The Korea Times Toronto

DAILY

No.1020-1021 1983년 1월 1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January 1,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JAN 4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록키산에 웅지를 펼쳐라!

◆웅장한 캐나다 록키에 태고의 정적이 감돈다. 새해를 맞아 봉우리를 감싼 안개가 걷히면 거기에는 『희망의 사신』이 웅자를 드러낸다.

〈촬영 임정재 사진협회부회장. 1982년 8 월, Nikon F 3 28미리, F 5.6, 60/1초 ASA 100〉

신년특집 32면 발행

<신년시>

대망(大望)의 서곡

시 : 검돌·이석현

해가 저문다.
만감이 엇갈리는 이역(異域),
모국어의 향내도 사위는 나날
얼룩진 일기장을 돌돌 말아
지구의 한점에 주저앉은
접목살이.

지축이 시한(時限)을 좁히는
망각의 변경(辺境)으로.
총총히 짐을 꾸린다.

에스키모의 Igloo를 밝히는
분적 없는 나의 노래는
허공을 젖다가
하이웨이를 달리는 차바퀴에
실향민의 천년을 점치고,

인디언의 Aurora를 그리는
한톨의 불씨,
씨앗되려는 안간힘!

별을 세는 마음,
별을 세는 달력,
이제금
고향집 처마끝에
테레파시로 야명등을 켜면

넓죽 큰절 올리던
색동 저고리에
바야흐로 동트는 계해년
새 역사의 장(章)을 열어주는
인경소라!

이 아침은
주옥같은 언어들로만,
실루엣으로 우주공간에 쌓여온
언어들로만
차례상을 차려야겠다.

실락원 저녁부터
올올이 땅을 적신
영가들로만
차례상을 차려야겠다.

경제회복의 청신호?

미국이어 토론토 증권계 붐일어

뉴욕증권시장의 붐에 힘입어 연일 폭등한 토론토증권시장(TSE)은 29일에는 3백개지수가 24.39나 오른 1934.2를 기록, "캐나다경제도 풀려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서는 3번째로 큰 은행인 체이스·맨해튼·뱅크가 28일 우대금리를 11.5%에서 11%로 내리자 뉴욕증권시장은 갑자기 활기, 이날 다우·존스 지수(주요주식 거래량의 평균치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을 보여줌)는 사상 최고기록인 1071.47로 치솟는 현상을 비롯, 2년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징조가 농후해졌다.

미국 증권가 전문 분석가들은 경기회복의 [illegible]를 린 주택건설과 자동차판매가 활기있게 움직이고, 연방중앙은행이 은행재할인률을 내려 금융계의 숨통을 열어준점등은 이번 증권시장의 붐을 옷받했고 이것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분명한 징조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는 캐나다경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기때문에 이번 토론토 증권시장현상은 고무적현상으로 받아 들여졌다.

지난 6개월간 토론토증시의 상승폭 41.5%는 1951년이후의 최고 기록이었고 29일의 상승폭 24.39는 지난 11월3일의 폭등이래 가장 높았다.

이번폭등을 이끈 주식은 금을 중심한 광산관계 증권이었다. 금은 최근들어 연이어 올라 지난주말 런던시장의 가격은 온스당 미화 463달러(CDN $572)였다.(금주 런던시장은 휴장)

전문가들은 금값이 현재 너무 인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토론토의 증권전문가 강상욱씨는 30일 "미국은 부동산회사를 비롯, 청색업체(Blue Chips)기업들의 주가 오르면서 경기회복의 징조를 보이고 있으나 캐나다 경제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조심성있게 말했다.

"한국 民主主義 발전 희망 公·私的으로 分明히 표시"

미국무성 金大中씨 會見에 대해 聲明

미국무성은 한국이 정치체제를 보다 개방하고 인권을 더욱 존중하길 바란다는 미국의 희망을 한국정부에 공적, 사적으로 분명히 표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미국이 한국정부에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민들이 미국에 배신감을 갖고 있다는 김대중씨의 발언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지에 보도된 후 발표된 성명에서 알란·롬버그 국무성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독립을 보존하고 한국내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롬버그대변인은 또 한국정부가 김대중씨를 포함한 48명에게 내린 특사조치는 정치체제개방과 인권존중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믿고있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한돈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賀新正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흑인들이 마이아미 중심가 흑인 집단거주 지역내에서 화염병을 던져 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마이애미 흑인폭동 재발

중심가서 무차별 난사, 1명 죽고 6명 부상

(마이아미)경찰이 흑인 청년에게 총을 쏜데 격분한 수배명의 흑인들이 28일 밤 마이아미 중심가로 쏟아져 나와 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며, 세워둔 차에 불을 지르는등 큰 난동을 부렸다.

이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난동이 마이아미중심부의 북쪽끝에 있는 오버타운(Overtown)지역에서 발발한 수시간후 폭동진압경찰은 약600명의 흑인군중들에게 최류탄을 쏘기 시작했다.

이 난동으로 경찰차 6대가 불탔으며 흑인들이 적어도 2대의 경찰차를 점거, 안에있던 총을 들고나와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에도 이지역에서 흑인폭동이 일어나 18명이 사망했다.

이때의 폭동은 백인으로만 구성된 배심원이 흑인 사업가를 때려 숨지게 한 4명의 백인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인정함으로써 발단되었다.

5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계속된 폭동으로 116개 사업체가 불에 타는등 총 재산피해액이 1억달러에 달했다. 폭동이 끝난후 불도저가 52동의 불탄 빌딩을 헐어버렸다.

2001년에 85%

불어사용 인구 증가

(몬트리얼)2001년도 퀘백주의 불어사용 인구는 현재의 81%에서 85%로 증가할 것으로 한 연구보고서가 전망했다.

퀘백주정부 불어사무국의 자문기관인 불어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몬트리얼대학이 마련한 이 보고서는 퀘백당이 불어사용법(Bill 101)을 통과, 불어를 퀘백주의 유일한 공용어로 지정한 직후인 1977년에 착수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영어사용인구는 2001년도에 전인구의 10%를 차지, 1971년보다 3.5%가 줄어든다.

본사휴무

31일~3일

본사는 12월31일(금)부터 1월3일(월)까지 휴무하고 4일부터 정상 근무합니다.

31일은 2종우편물인 신문을 접수 분류하는 우연물집적소가 휴무하고 3일은 1일 공휴일이 토요일에 겹쳤던 때문입니다. 독자가정에 대한 우편배달원의 신문배달은 4일부터 재개됩니다.

은행주식이 넘버·원

—새해의 최다이윤 주식전망—

83년도 증권계에서 가장 이윤이 클 주식은 은행주식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4개 도시의 증권 분석가 15명이 전망한「새해에 큰 이윤을 줄 5개 종류의 산업별 주식」에 의하면 지하자원및 오일관계회사 주식은 은행에게 왕자적 위치를 물려줬다.

15명이 투표한 결과 은행중 로열, 캐네디안·임페리얼, 토론토·도미니언은 각각 3표로 가장 표수가 많았다.

83년에는 낮은 이자율이 지속되어 대부가 활발할 것으로 보아 은행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했다.

몬트리얼의 임마스코(Imasco)회사(식품및 소매) 주식도 3표를 받아 톱·그룹에 끼었다.

두번째 그룹인 2표를 받은 10개 회사는 캠벨·레드·레이크·마인즈(광산회사), 캐네디안·페시픽(CP: 교통관계), 토론토 카링·오키프(맥주), 캘가리 트랜설터·유티리티스(알버타주전기), 올캔·알루미넘(알루미늄제품), 노슨·에너지·리소시스(오일·개스 개발), 인터프로빈셜·파이프라인(오일송유), 캘가리 아사메라(오일·개스 개발), 허스키·오일(오일판매), 토론토 무어회사(사업용 서류·서식 제조)였다.

이밖에 1표라도 받은 대회사는 다음과 같다.

걸프·캐나다(오일), 호커·시들리(기차 제조), 지브롤터·마인즈(광물), 피플스·주얼리(보석), 칩멘·디벨롭먼트(개스개발), 노던·텔레콤(전화등 통신장비 제조), 캐네디안·타이어(철물점), 콘슈머·디스트리뷰팅(소매업), 프로비고(Provigo, 식품소매업), 카라·오퍼레이션(레스토랑 스위스·샬레및 하비스·햄버거), 톰·페트로리움(오일), 톰슨·오가니제이션(신문), 파우어(Power: 지주회사), 트리젝(Trizec: 사무실·쇼핑센터 임대), 노바(Nova: 개스수송), 심슨·시어스(카타록 소매업), 캄텀(Comterm: 컴퓨터터미날 제조), 내셔널·뱅크, 로브로(수퍼마켓), 로저스·케이블(TV케이블), 시멘트·트마지(시멘트), 브라스캔(금속및 제지), 캐나다·마코니(통신장비), 앤드류·와인(포도주), 앳코(Atco: 오일·개스개발), 발코(Balco: 목재), 브리티쉬·콜럼비아 전화, 웨스트민·리소시스(금속), 노우스코·웰·서비스(Nowsco Well: 오일개발장비), 버사타일(Versatile: 농기구), 브렌다·마인즈, 시그램(술·포도주), 임페리알·오일(휘발유), 벨·캐나다(전화), 보우·벨리·인더스트리(Bow Valley: 오일개발), 죠지·웨스턴(식품체인), 몬트리얼은행, 그레이하운드(버스여객운송), 바톤·브로드캐스팅(Baton: 래디오·TV)

김부미작「과일」

신춘문예 가작입선

캐나다한국문인협회가 공모한「신춘문예」에 뉴·브룬스익주 프리드릭튼 거주 김부미씨의 수필「과일」이 "가작"으로 입상했다.

9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캐나다및 미국에 걸쳐 공모한 제6회 현상 신춘문예에는 시 4편, 수필 9편, 동화 2편등 19편이 응모했고 평론·희곡·동시 부문 응모작은 1편도 없었다.

유일한 입상자인 김씨는 수필 3편을 응모했다.

문인협회는 금년 공모에 응모작이 적고 우수작이 없었던 이유를, (1)이민길이 거의 막혀 신진인적자원이 적고, (2)학생·청년층은 한글표현에 지장이 많은 때문으로 보았다.

신춘문예 시상식은 1월하순 있을 예정이다.

WBA 세계랭킹에 한국복서 7명올라

〈카라카스-UPI〉세계권투협회(WBA)는 27일 12월중 세계랭킹을 발표하고 미국의 아론·프라이오(WBA 주니어 웰터급챔피언)선수를「올해의 복서」로 선정했다.

또한「12월의 복서」로는 프에토리코의 오시·오까지오(WBA주니어헤비급 챔피언)선수를 선정했다.

한편 WBA세계랭킹에는 한국의 정순현선수가 주니어페더급1위에 기록되는등 9명의 한국선수가 랭킹에 올랐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페더급-유환길(2위)

▲주니어페더급-정순현(1위)

▲주니어밴텀급-왕순천(2위), 김철호(6위), 배석철(10위)

▲프라이급-시회섭(3위), 양홍수(10위).

수퍼·채널 NHL 전담

2월4일 첫 경기 방영

온타리오와 알버타주에서 방영되는 페이·티·브이(Pay-TV)망인 수퍼채널(Superchannel)은 무료TV에서는 볼수없는 내셔널·하키·리그(NHL)게임을 방영하게 될것이라고 29일 발표했다.

Pay-TV는 2월1일 캐나다에서 시작되며 수퍼채널은 NHL TV방송을 제작하는 캐네디안·스포츠·네트워크(Canadian Sports Network)를 취급, 일반TV에서는 방영되지 않는 경기를 보여준다.

수퍼채널이 보여줄 첫 경기는 2월4일 에드몬턴의 오일러즈(Oilers)팀과 몬트리얼의 캐나디엔스(Canadiens)팀 의 게임이다.

아시아 경제성장율 저조

전반 무역침체로

한국 82년 5~6% 기록

70년대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대만·싱가폴·홍콩·말레이시아등 5개 아시아국가들은 세계적인 무역침체로 현재 성장률 저조를 면치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중 일부는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들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수입을 막기 위해 국내수요를 줄이고 있다.

이들 5개 아시아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81년도에 8%의 성장을 이룩한후 82년도에는 5~6%의 저조한 성장율을 기록할 것같다.

수출이 GN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국으로서는 성장률이 감퇴되는 주요이유를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수출액은 82년 첫 9개월간 160억달러(미화)로 겨우 3.7%가 증가, 1년전의 26%증가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한국의 최대수출상품인 섬유류의 수출은 1.8%가 하락했으며, 전자및 합판수출도 또한 심한 타격을 받았다. GNP성장률의 감소가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82년도 첫9개월간 수입액이 12%나 하락, 170억달러에 불과했다.

강대국에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75년에 종합상사제도를 도입, 주로 이들 10개 종합상사들을 통해 상품판매를 증진토록 권유해왔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어서 76년도에 총수출의 56%가 일본과 미국 두 나라에 편중된데 비해 81년에는 이들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42%로 하락되었다.

같은 기간인 81년도 첫9개월간 유럽공동시장(EEC)과의 교역도 3퍼센트·포인트 하락한 12%로 줄어들었으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5퍼센트·포인트 증가, 14%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은 또한 일본과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81년도의 경우 한국의 총 무역적자의 60%인 28억달러가 일본과의 무역에서 비롯된 적자였다.

대만의 수출은 한국보다 더욱 악화, 82년 첫10개월동안 3.2% 하락했으며, 수입은 거의 13%나 감소되었다. 또한 GNP는 81년도의 5.5% 성장에 비해 82년도에는 3.8%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자들은 임금인상을 동결했으며 조업시간을 단축했다.

홍콩의 수출액도 82년 첫 9개월동안 총99억달러로, 4.8% 하락했으며, 재수출역시 53억달러로 1.7% 줄어들었다. 수입 또한 172억달러로 5% 하락되었다. 82년도의 홍콩경제는 74-75년도이래 최하수준인 4%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82년의 경제성장률은 81년도의 성장률인 10%의 절반밖에 되지않은 5%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82년도 첫9개월간의 싱가폴의 수출액은 1% 증가한 157억달러에 수입액은 3.4% 증가한 206억달러에 달했다. 싱가폴은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산업에 외국인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세계적인 불황과 보호주의에 적절히 대처했다.

이들 4개국들이 가공상품 수출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동안 말레이지아는 1차 상품시장의 불경기로 심한 고초를 겪고 있다.

82년도 말레이지아의 생고무수출은 26%, 주석수출은 29%,「팜」유 수출은 1%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써비스 수입은 오히려 증가되어 경상수지적자는 81년도보다 무려 48%나 증가된 사상기록적인 3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수요를 줄이기 위해 말레이지아는 83년도에 개발비 지출을 5% 줄일것을 계획하고있고, 수입을 줄이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말레이지아정부는 담배, 주류및 사치성 차량에 대한 수입관세를 증가했다.

(The Economist지에서)

회장에 고광남

성동고동문회

성동고등학교 토론토동문회는 18일 정기총회겸 연말파티를 시내 그라나다식당에서 열고 83년도 신임회장단을 선출했다.

◉신임회장단

회 장 고광남

부회장 이영규

총 무 윤길웅

캐나다, "물개잡이 계속"표명

EEC 의 수입금지조치 불구

년간 18만마리를 때려잡아

환경보존주의자들 잔혹성 이유 압력

(오타와)유럽공동시장(EEC)국가들의 캐나다 북주산 새끼물개(Seal)가죽 수입금지합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에스키모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계속 물개잡이 사냥을 할것임을 밝혔다.

연방어업성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개사냥이 계속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판매시장이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말해 환경보존주의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물개사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방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확인한 것은 10개 EEC국가의 환경관계장관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내년 3월에 끝나는 물개사냥에 관한 국제연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물개가죽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개별행동을 취하기로 합의를 본뒤에 나온 조처이다.

캐나다 북쪽의 에스키모들이 새끼물개를 산채로 때려잡아 벗겨진 가죽은 외투용으로도 쓰이는, 상품가치가 높은 캐나다의 수출품이나 그 채취방법이 잔인한 때문에 동물애호가들및 자연보존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산 새끼물개 가죽수출의 70%가 서유럽으로 수출된다.

캐나다가 물개잡이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1천2백만달러, 뉴펀들랜드주의 빙원에서 잡히는 물개는 1년에 18만마리에 달한다.

유럽의 환경보존주의자들은 새끼물개를 때려죽이는 방법은 너무도 잔악하다고 규탄을 하고있다.

캐나다어업성 대변인은 "EEC국가들의 수입금지조처로 캐나다산 물개가죽 수출량의 95%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물개가죽으로 생계를 잇는 에스키모 극빈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400여년동안 뉴펀들랜드에서 생계수단으로 물개사냥을 해왔다고 말했다.

캐나다 에스키모에 따르면 노스웨스트·테리토리(Northwest Territories)에서는 물개가죽이 한장에 20달러에서 6달러로 거래된다고 말했다.

EEC국가들의 수입규제로 약 9,000명의 캐나다어민들의 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되었다.

한편 영국의 마가렛·댓처수상은 캐나다산 물개가죽 수입금지를 지지하라는 압력을 영국의 환경보존주의자들로부터 계속 받고 있다.

유럽으로 판매되고 있는 물개가죽의 약 80%가 영국을 거쳐 신발또는 장난감의 재료로.. 유럽 각국으로 퍼진다.

지난주 댓처수상은 환경보존주의자인 피트·스코트경으로부터 캐나다산 물개가죽 불매운동을 유럽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라는 진정서를 받은바있다.

또한 네델란드의 동물보호협회는 댓처수상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높이 칭찬받을만한 영국인의 동물애호정신은 이제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같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캐나다측은 희귀종 물개에 대한 사냥은 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존주의자들은 캐나다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에스키모들은 새끼물개를 때려 잡아 실신시킨 뒤 가죽을 벗겨 수출한다. 유럽의 자연보존주의자들은 이같은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구독은 533 2361

謹賀新年

경주이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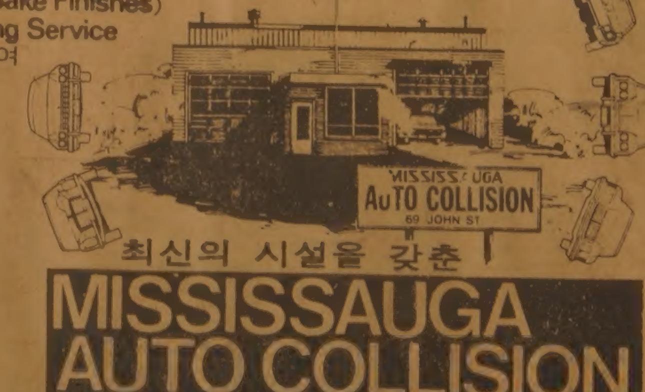
재캐나다종친회

회원일동

☎ 451-4450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PLAZA
JOHN ST.
PEAK-O-DAWN RD.
DUNDAS ST. HWY 5
Q.E.W.
HWY 10
HURONTARIO ST.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221—1621

교또레스트랑

"새해는 묵은해 보다 나아"

국민 40%가 낙관, 미국은 50%

당신은 83년도가 어떠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28일 발표된 갤럽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0%가 83년은 82년보다 좋은 해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인의 30%는 83년도가 82년보다 오히려 나빠질것으로, 25%는 변동이 없을것으로, 나머지 5%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갤럽이 조사한 27개국중 6개국만이 캐나다보다 높은 낙관율을 보였다.

지난 10월 총선에서 안드레아스·파판드레오의 압도적인 승리후 희망이 고조되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59%가 82년보다 83년이 좋아지리라고 예측했다.

새로 당선된 베탕크대통령이 수십년간 계속되어온 정치적 폭동과 좌익게릴라전을 해결하리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콜롬비아에서는 54%를 기록했다.

레이건대통령이 임기를 반쯤 남긴 미국에서는 50%의 낙관도를 보였고 또한 인프레율이 100%에 수년간의 군정후 민주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45%의 낙관도를 보였다.

포크랜드전쟁을 치룬 영국은 43%가, 노르웨이는 44%가 83년은 82년보다 좋아진다고 예견했다.

시험관 아기 200여명 탄생

78년 영국에서 첫아기 출생이후

(시카고)미국 중서부의 최초의 시험관아기전문의원이 최근 마운트·시나이병원 메디칼·센타에서 개원되었으며 의사들은 유리관 인공수정이 수년안에 성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운트·시나이병원의 산과 및 부인과 과장인 노르브드·그레이츠박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부부의 약20%가 생식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유리관수정이란 여자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시험관에 넣어 결합시킨후 수정난을 다시 여자의 자궁에 재이식시키는 인공적인 수정방법이다.

그레이츠박사는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스·브라운(여)이 1978년 영국에서 탄생된 이래 약 200명이 이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밝히면서 현재에도 수백명의 부부가 인공수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츠박사는 이어 "적극적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센터가 미국만도 6~7개소가 있으며 대기자명부에 기재된 사람만도 6,000내지 9,000쌍에 달하며 자기차례가 돌아오려면 2년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밍크·폭스·세블·라쿤
밍크
록키모피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정응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40>

출발 ㉑

"검은 안경은 창에게 야릇한 미소를…"

「얼마나 걸리겠읍니까?」
젊은 사내가 물었다.
「그거야 알수없자요. 한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가급적 빨리찾아주기 바랍니다。」
「당신들보다 내가 더 급해요。그런데 이일에 왜 나를 끌어들였지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텐데…。」
「선생만한 인물이 없읍니다。정확성, 명확성,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점에 있어서 선생을 따를 사람이없읍니다。우리는 그 점을 높이 삼겠니다。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생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있다는사실입니다。선생은 한국에서 한동안 사셨고, 그래서 한국말도 능숙하게 잘 하고 그곳 지리에도 훤하시지요。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았지요?」
「다 아는 수가 있지요。선생이 한국 출신인지 아닌지, 혹은 한국인과 가 섞인 잡종인지 아닌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지요。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선생이 한국에 대해 정통하다는 사실입니다。이같은 사실은 인터폴이 수집한 자료에서 우리가 알아낸 거지요。인터폴(국제경찰)이라고 해서 우리의 포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요。지난 10년동안 인터폴은 선생을 찾기위해 혈안이 되어있었지요。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선생에 대한 자료를 꽤 가지고 있지요。그런데도 선생이 한국에서 치과업을 개업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있습니다。우리는 선생을 인터폴에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를 않았읍니다。」
「고맙군요。」
그는 냉소했다。
「선생이 한달에 한번씩 한국에 다녀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물론 인터폴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요。」
「많이 조사했군요。」
그는 빈정거렸다。
「한국에는 왜 그렇게 자주 가시지요?」
「당신들이 알 바 아니예요。」
그는 차갑게 내뱉었다。그리고 일어섰다。
「불쾌하게 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젊은 사내도 따라 일어섰다。그는 시가를 입에 문채 다가왔다。
「잘 부탁합니다。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읍니다。」
창은 아무 대꾸도 하지않고 [illegible]
「안녕히 가십시오。」
젊은 사내가 손을 내밀었다。창은 그 손을 받지않고 돌아섰다。검은 안경은 야릇하게 미소하면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두 사나이가 모터보트로 그를 부두까지 태워다 주었다。
부두에 내린 그는 그들이 제공하는 차를 거절하고 택시를 잡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朴男 그림

새해는 돼지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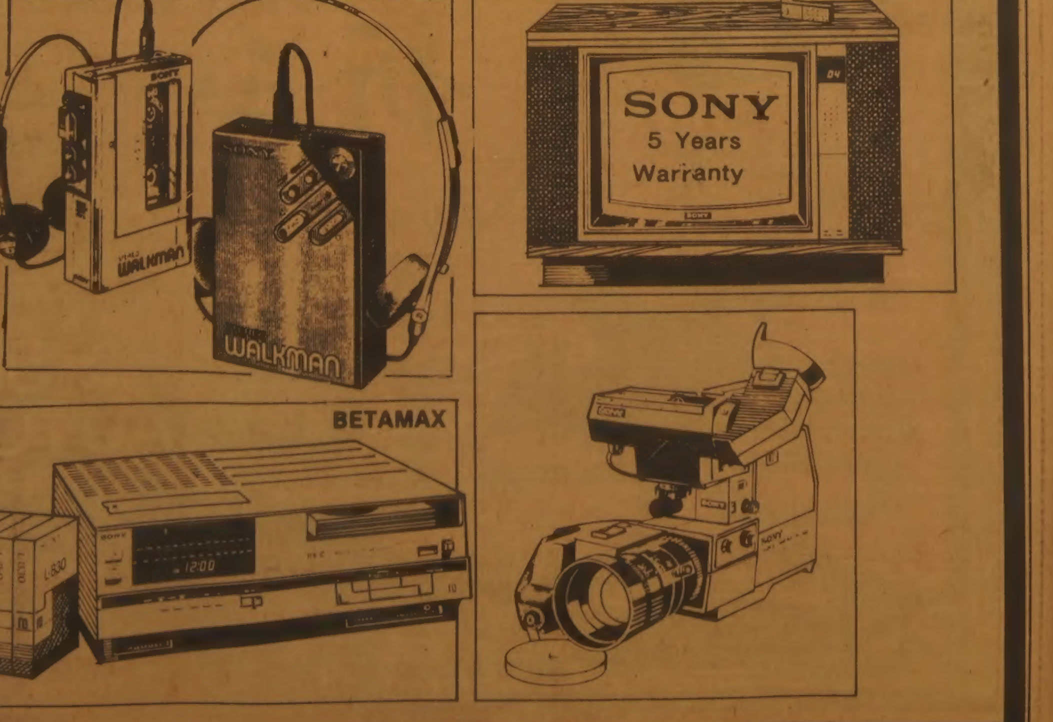
謹賀新年
지난해에 베풀어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아침
한국일보사
김명규 김순경 조미래 이명숙 박정서 이경숙
송낭운 허계완 최성조 이석현 홍석철 양승렬
논설위원 김정근 논설위원 박희민 오타와지국장 이태은 몬트리얼지국장 정관성 런던지국장 강상원
김영철 Susan Adam 이기주 이찬영 송경자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일보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근하신년
지난해에 베풀어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아침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항섭
Yonge St. Bayview Ave. Sheppard Ave. 404 401
취급품목
Stereo
Television
Video
Sony
Luxman
Pioneer
Sansui
Toshiba
J.V.C.
Panasonic
Sanyo
A.K.G.



한국일보

公務員봉급 4~8% 引上

下位職 처우改善주력

勤續수당 7·8·9級도 지급

내년부터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處遇개선계획을 의결, 새해부터 공무원의 봉급을 최고 8%, 최저 4%, 평균 6%인상지급키로 했다. 총무처관계자는 이날 『내년도공무원 처우개선계획은 경제여건을 감안, 適正수준으로 보수를인상했고 민간賃金과 물가자극을최소화하는데 중점을두는한편 실질家計費를 보장키위해 下厚上薄의원칙을적용, 下位職공무원의처우를개선하는데주력했다』고설명했다.

각종手當 합치면 4~16%引上 효과

이번처우개선계획은 지금까지 6級에게만 지급하던 長期근속手當(5년이상 2만원, 10년이상 3만원)을 7, 8, 9級등 下位職공무원 전체에 확대, 지급키로 했다.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계획에 의하면 또 봉급인상률은 최고8%, 최저 4%에 머물렀으나 期末수당, 精勤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등을 합한 報酬金額으로보면 최저 4·3%, 최고16·4%의 인상효과를 가져오도록 했다.

이번 봉급인상과 보수인상으로 1급(전호봉기준)의 경우 봉급이 4% 인상되며 보수는 4·8% 오르게 됐고 4급(20호봉기준)은 봉급5%인상에비해 6·7%의 보수가 오르게됐으며 대신설되는 장기근속수당을 받게된 7급 12호봉과 8급(8호봉)은 6~7% 봉급인상에 16·4%의 보수인상효과를 보게됐다.

봉급인상내용을보면 일반직은 5급이상이 4~5%인상되고 6급이하는 6~7% 인상됐으며 경찰관은 경감이상 4~5%, 경위이하가 6~7%, 군인은 소위이상이 4~5·5%, 준위이하가 6·5~7%인상케됐다.

정부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봉급이 인상됨에따라 下位職과 高位職간의 봉급격차가 점차 좁혀지고있다고 지적, 하위직(9급)對고위직(1급)간의 봉급격차가 81년은 1對4·5였으나 82년엔 1對3·3, 내년엔 1對3·2로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필요한 소요財源은 봉급기준 1천87억원, 수당인상분을포함한 보수기준으로는 1천5백41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으로 대통령은 1백27만5천원에서 1백35만7천원으로, 국무총리는 1백1만5천원에서 1백8만7천원으로,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75만7천원에서 81만8천5백원으로, 장관과 서울시장은 69만7천원에서 75만6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됐다.

◇政務職 공무원등의 俸給表

(月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職 名	봉급액
행정부	대통령직속기관	대 통 령	1,357
		감 사 원 장	818·5
		국가안전기획부장·대통령비서실장·平統정책자문회의사무총장·국가안전보장회의상근위원	765
		대통령경호실장·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차장·국가안전기획부차장·감사위원·감사원사무총장·비상기획위원회부위원장·次官級상당비서관	633·5
		대통령경호실차장·감사원사무차장·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	569
	행정부	국 무 총 리	1,087
		부 총 리	818·5
		국무위원·처장·서울특별시장	756
		차관·處의차장·廳長·직할시장·도지사·서울특별시부시장·국무총리비서실장·행정조정실장·訴請심사위원회위원장·중앙공무원교육원장·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633·5
		次官補·廳의次長·정무장관보좌관·訴請심사위원회위원·원자력위원회상임위원·과학기술처과학기술심의실장·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569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530·5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465
입 법 부		국회사무총장	756
		국회사무차장·국회도서관장·국회의장비서실장	633·5
		국회전문위원	569
		국회의원비서관	382·5
사 법 부		대법원장비서실장	633·5
선거 관리 위 원 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7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633·5
		서울특별시·직할시·道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536·5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상임위원	756

公共단체·기업체 報告창구 단일화

국무회의는 28일 報告통제규정을개정, 각행정기관이 公共단체나 기업체로 부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報告를 요구하는 일을 막기위해 報告통제창구를 단일화 하기로했다.

報告통제규정은 지금까지 각행정기관상호간에 행해지는 보고에대해서만 규제해왔다.

내년 公共料金 전면凍結

物價억제위해 豫算 2천億 절감

遞信料만 제한된 범위서 引上

정부는 내년에 체신요금을 제외한 모든 公共料金은 현행수준을 그대로유지, 일체동결할 방침이다.

27일 정부의 한소식통은 체신요금등 일부公共料金에 인상요인이 생기고있으나 내년도물가를 소비자물가기준 年率3~4%에서 억제한다는 기본방침에따라 체신요금만 극히 제한된범위내서 인상토록 허용하고 나머지 公共料金은 현행수준을 그대로유지해 나갈것이라고밝혔다.

또한물가를 최대한으로 억제한다는 전제아래 정부예산도 초긴축으로 조정, 실행예산에서는 2천억원정도를 절감토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인상이 내년중 전체도매물가에 1~2%정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보고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위해公共料金조정을일체동결키로 한것이다.

"새마을운동 都市중심으로"

全대통령, 中央본부회장등과 오찬

全斗煥대통령은 28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金準회장등 임원과 市道支部회장등 22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 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더욱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발전시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내년한해는 새마을운동이 새로운도약을 성취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은 농촌이나 小都市중심으로 전개돼 큰성과가 있었으나 大都市에서는 일부 주민들사이에 아직도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풍조가 있어 큰 발전이 없었다』고 지적, 『모두가 잘살아보자는 이운동에 大都市人들도 그기본정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 모두가 共感하고 적극적으로同參해 앞으로는 도시중심으로 이 운동이 발전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海參總長에 吳慶煥대장

1次長 金大溶중장

2次長 朴喜宰중장

정부는 28일 제14대 해군참모총장에 吳慶煥중장을 대장으로 승진과 동시에 발령, 또 金大溶중장을 제1참모차장에, 朴喜宰중장을 제2참모차장으로 각각 승진발령했다.

◇吳총장 ▲경남출신·51세 ▲해사8기 ▲해군본부비서실장 ▲전단사령관 ▲해역사령관 ▲본부참모부장 ▲함대사령관

◇金차장 ▲서울출신·50세 ▲해사8기 ▲함대참모장 ▲해역사령관 ▲본부참모부장 ▲해사교장

◇朴차장 ▲경북金陵출신·50세 ▲해사9기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海參總長 申告받아

全斗煥대통령은 28일상오 해군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吳慶煥신임해군참모총장과 해군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한 金大溶해군제1참모차장, 朴喜宰제2참모차장, 그리고 崔相和해군중장으로부터 진급및 補職신고를 받았다.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장관이 배석했다.

◇吳慶煥총장

◇金大溶차장

◇朴喜宰차장

在外公館 공용備品 國産品 사용하도록

외무부는 국산품질향상에 따른 수출진흥확대및 의식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在外公館에서의 公用備用品은 가능한한 국산품을 구입사용하도록하는 한편 수출진흥을 강화하고 한국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관원개인용품에 대해서도 국산화를 적극권장, 해외교민들의 국산품애용풍토를 조성키로했다.

千5百여 法令·法規 개선

「成長발전 制度개선白書」 발표

정부는 28일 작년4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成長발전 沮害要因개선작업을 결산, 그결과를 종합한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白書」를 발표했다.

白書에의하면 지난1년8개월동안 8백여개에 달하는 각종제도와 이와관련한 1천5백여개의 法令·法規·例規등을 개선했으며 개선대상으로 남아있는 8백6개과제중 비료및受재도의개선등 10개과제와 1천5백27개의 정비대상法令중 아직 완료되지못한 2백92개는 83년으로 移越, 各部處단위로 마무리짓도록했다.

정부는 그동안 과도한 私有地규제조치를 완화, 保安林1억4백만坪, 接適구역1억2천만坪, 군사시설 보호구역 7백62만坪, 비행안전구역 1천2백30만坪등을 해제하고 편익의 政務제도를 폐지, 國民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사람을 보호하는제도를신설했다.

또 행정체계의개혁으로 부서인력 2천91명을 감축했고 각종위원회도 6백21개에서 4백39개로 1백82개를 統廢合하는한편 정기보고도 2천4백43種에서 1천8백84種으로 5백59種을 줄였다.

평화적 政權교체 基盤조성에 주력

柳民韓총재

【錦山=李成俊기자】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8일 『11代국회임기동안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모든 기반의 조성에 전력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柳총재는 이날 錦山·大德·燕岐지구당(위원장 柳漢烈의원) 개편대회에 참석, 치사를 통해 『내년 1년 동안에 평화적 정권교체에 필요한 정치규제자의 解禁, 지방자치제의실시, 언론기본법과 국회법의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만일국회법이나 地自制에대한 야당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때 정부에대한 不信은더 해갈것으로 본다』고말했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최우수新人 양궁 申貞順

本社제정 제20회 한국新人體育賞수상자 選定

장려新人엔 농구 成貞見·레슬링 魯昊宣

◇申貞順선수

◇成貞見선수

◇魯昊宣선수

한국스포츠 미래의 주역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일보社가 제정한 제20회 한국신인체육상 최우수신인에 양궁의 유망주 申貞順(17·光州女高2년), 여자장려신인에 농구의 대형스타 成貞見(17·三千浦女商1년), 남자장려신인에 레슬링의 호프 魯昊宣(18·佳宅)이 각각 선정되었다.

한국신인체육상 9인심사위원회(위원장 金鍾烈대한체육회고문)는 28일하오 한국일보社 13층회의실서 13개종목서 추천된 15명의 남녀 후보선수를 대상으로하여 심사를 벌여 영예의 수상자를 결정했다.

시상식은 내년1월14일 하오2시 한국일보社 13층회의실서 거행된다.

公職者 재산등록 來1일부터 施行

국무회의는 28일 公職者윤리법시행령을 의결,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선물신고제등을 예정대로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시행령에 의하면 또 재산등록대상에 高法부장판사급이상의法官과검사장급이상의 검사를 포함시키기로했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9人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밑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했고 營利私企業體에의 就業이 제한되는 退職공직자는 재산등록대상자에 한정키로했다.

社告

제23회 한국出版文化賞 受賞圖書결정

著作賞 李鍾旭著 「新羅國家形成史研究」

孫禎睦著 「한국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製作賞은 高大出版部·弘盛社등 10개社

施賞式 1월21일

지난1년동안 우리나라의 出版文化를 빛낸 영광의 도서들이 밝혀졌읍니다. 제23회한국出版文化賞(한국일보社제정) 심사위원들은 응모된 良書로 접수한 1백4개社의 출품도서 2천63종(총7백21권)을 심사한 결과, 李鍾旭교수(36·嶺南大)의 「新羅國家形成史研究」와 孫禎睦교수(54·서울市立大)의 「韓國開港期都市社會經濟史研究」및 「韓國開港期 都市社會變化過程研究」를 저작상으로 선정했읍니다. 두명의 저작상수상자들은 상금 1백만원과 상패를 받게됩니다.

한편 제작상은 高大출판부를 비롯한 10개사에 영예가 돌아갔읍니다. 시상식은 83년1월21일하오4시 한국일보社 12층강당에서 열립니다.

◇著作賞 受賞圖書

▲孫禎睦교수(서울市立大·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研究·韓國開港期都市社會變化過程研究)

▲李鍾旭교수(嶺南大·新羅國家形成史研究)

◇製作賞 受賞者

▲성경전서대전7권(아카데미출판사) ▲法律百科12권(星友出版社) ▲醫療의 法理論(文國鎮著·高大출판부) ▲현대세계지성전집35권(弘盛社) ▲編輯과 印刷(洪佑東編·信興출판사) ▲悅話堂美術選書33권(悅話堂) ▲韓國의 木家具(朴榮圭著·三省出版社) ▲그림나라100 40권(중화출판공사) ▲생동하는 자연학습10권(홍민사)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50권(삼성당)

한국일보社

社会漫評

그렇다면…

地平線

우리는 흰옷을 입기를 즐겨 했다. 고대로부터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일반은 흰옷을입어왔으므로 흔히 백의민족이라 불리고 있다. 중국의 사서 삼국지중 부여의 민족을 소개하는 글에 흰옷을 숭상한다는것으로 쓰인 것을 비롯하여 수서에서도 신라인의 복색이 흰것을 숭상한다 하였으니 고대의 복색이 백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시대가 내려와 중국의 송사에서도 고려의 선비와 여성들의 옷이 흰것을 좋아한다 했으며 명시대에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던 동월도 그의 유명한 조선부에서 옷이 한결같이 희다고 읊고 있다. 이렇게 보아오면 우리 겨레의 복식이 흰옷을 즐겨 했던것은 거의 시대와 장소에 아랑곳 없는 줄기찬 전통인 것을 알수가 있다. ▼이렇듯 변함줄 모르는 전통에 대해서 유달리 최남선은 우리나라에 연료가 귀해서 또는 국상이겹쳐서 삼복으로 입게되었던 것이 정착되었다는 일부의 말을 물리치고 백의숭상은 태양숭배에서 말미암은 절대신성의 존재 의미 아니고서는 설명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육당의 이와같은 견해에도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되나 이유야 어찌 되었던 이처럼 변할줄 모르는 백의 숭상의 줄기찬 전통도 순탄하게만 이어졌던것은 아니다. 고려시대 중기에는 백의를 입어서 안된다는 금령이 내렸었다. 동방인 우리나라는 5행으로 보아서 목이오 따라서 청색을 입어야한다는 것이 그 금령의 근거였다. ▼이런 금령은 고려말 공민왕때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 내려와서 또한 처음에는회색이나 옥색을 입으라했다. 세종때에는 황색을, 또 성종때는 아청·초록·옥색을, 임진왜란 다음에는 홍색을, 숙종때는 청색을 입힌것을 각각 강요했으나 그것은 극히 일부 사대부 사이에서만 지켜졌을 뿐 별 소용이 없었다. ▼백의를 금하는 조치는 일제하에서도 극심하였지만 여전히 이에 대항하는 풍조가 절대적 이더니 마침내 광복과 더불어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6·25의 전란을 거치면서 흰옷을 입는 전통은 씨가 마르듯 돼버린채 오늘에 이른다. 비단 백의를 입지않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복자체를 외면한는 세태가 되었다. ▼근자 전통에 대한 복고풍조가 보이면서 그한복의 경우 금·은박이 눈부시고 원색 천이 어지러운 한복만 나돌았지 지난날의 다소곳하고 정갈하며 은은했던 백의의 멋이 재생되지는 않는것 같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복인구가 늘고 색조도 다분히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다니 새삼 복식의 추이를 주목하게 된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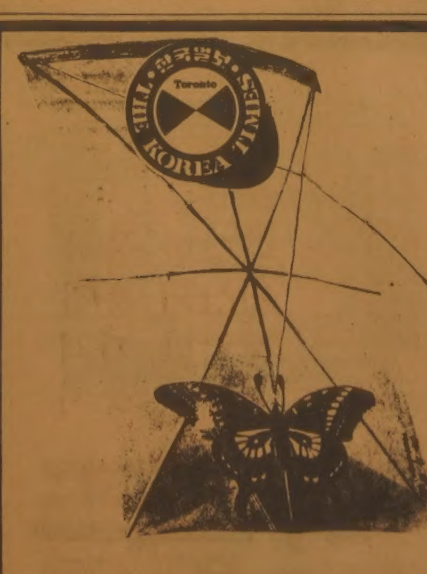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新正

힘차게 올라라
거침이 없이
더높게, 드높게
아 새해가 보인다.

우리 모두
저 창공을 가르는
연과같이
무한한 자유와
불굴의 투지와
건강과
드높은 기상으로
저기 떠오는 새해와 함께
이 한해를 가자.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귀하의 사업에 번창이
있으시기를 비오며
삼가 새해 인사 올립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임·직원 일동

職種間의 격차 좁혀

"半자리 物價정착" 반영

평균 6%…내년 공무원봉급 引上의 背景

내년도 공무원봉급인상률은 올해의 9%에는 못치는 평균6%로 책정했으나 금년도 물가인상률5%(소비자물가인상률 推定値)、내년도 물가인상목표선 3~4%(소비자물가기준)에 비해서는 일단높은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한자리수 범위내에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금년에 이은 내년도 물가정책을 반영시킨 것으로 어느면에서는 한자리물가의 定着과 低賃金지향에있어 공무원부터 垂範을보이자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6%의 봉급인상률은 또 民間부문의 賃金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성격을 띠는것이며 한편으로는 물가인상에 자극을주는 최소한의 線이기도하다는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공무원이 나눠지고 어려움을 함께 부담으로써 오히려 일반근로자도 경제의 고임금보다는 실질賃金인상효과를 거두자는것으로 풀이할수있다. 해마다 年初에 실시되는 공무원처우개선에서 가장낮은 수준이라고할수있는내년도인상률6%는 또國營기업체는물론일반기업의 봉급인상률결정에 중요한 참고기준이 된다는점과 물가인상에 큰 비중을차지한다는 점에서 이해돼야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를 차지하는 下級공무원의 실질生計費보장이 새해에도 이루어지지 못하게된것은 공무원의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점에서 정부는 장기근속수당의조정、위험수당、특수근무수당등 특수手當성격의 補完的인 처우개선에 계속 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보완적인 처우개선에는 無住宅공무원에 대한 유리한 주택공급、학자금대부등획기적인 공무원 복지후생증진책도 포함돼야할것임은 물론이다.

내년도 공무원봉급인상률을 6%라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것은 공무원봉급을 86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에는 거리가 먼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이같은점은 내년도 공무원봉급이 봉급인상 推定수준을 6%로 잡은 내년도 국영기업체 봉급수준에 비해 63%에 머물고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75%、대기업에 비해서는 51%에 불과하다는 정부관계자의설명에서도 분명히 엿볼수있다.

내년 공무원봉급수준을 국영기업이나 일반기업봉급과 비교해보면 下位職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高位職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특징을 나타내고있다.

이는 곧 공무원처우를개선함에있어 장차는 生計費에 미달하는 下位職공무원을 일소함과동시에 高位職공무원에대한 봉급도 현실화할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현상은 미국과 日本의 공무원봉급에 비교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있는데、고위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비해 거의3배、日本은 1.5배에 이르고 있다.

下級職엔 주택공급등 福祉뒤따라야

民間임금의「가이드 라인」구실

인상되는 내년도 공무원봉급의 職種別 인상률을보면 일반직의경우 1급이4%인데 비해 중간레벨이라할수있는4、5급은5%、6、7급이 평균선인 6%에 머물렀고 하위직인8、9급은7%、고용직은8%로 돼있다.

教員의 봉급은 總學長이 4%오른데 비해 교수와初·中·高교사는 일률적으로 6%오르게 됐고 군인역시 장군은 4~5%、대령과 중령은 5%、소령·대위·중위·소위는 5·5%씩 인상케됐으며 下士이하가 7%인상돼 일반직공무원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경찰관의 경우 경사、경장、순경이 6~7%인상돼 제일많이 오르게됐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경제여건을 감안、평균6% 인상、재원범위내에서 인상했고▲주어진 報酬財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실질家計費를 보장하는데 主眼을 두어 下厚上薄의 원칙을 적용했고▲6급에게만 주던 장기근속 수당을 7、8、9급등 하위직 전부에게 확대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을 작성하면서 정부는 報酬體系를 합리화하기 위해▲職種間의 봉급이 점차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힘썼고▲수당지급 대상을 확대하는등 각종 수당을 조정、직종별 특수성을 살리는데 노력했다.

금년 한햇동안의 노력으로 한자리수내에서 잡힌물가를 내년에는 半자리수범위에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내년도 공무원봉급인상계획에는 1천87억원의재원(봉급기준)이 소요되고 수당을 포함한 報酬를 기준으로 하면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1천5백41억원에 이른다.

공무원의 봉급등 人件費가 전체예산의 24.9%에 이르는 실정을 고려하면 내년도공무원봉급인상수준이 꼭 낮은것이라고만 할수는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지금까지 공무원처우는 이른바 부정부패의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서 정부는 官界의 淨化와함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노력해 온게 사실이다.

낮은 처우가 일반기업체 봉급에 대한 콤플렉스와함께 불만을 낳고 결국 부정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에 6%인상을 책정한것은 한자리 물가정책과함께 경제전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 가지려는 의지이지만 이의 成敗는 물가안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것 같다.

【河長春기자】

◇일반·特定및 別定職공무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천원)

號俸	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7級	8級	9級
1	409	339.5	290.5	246.5	225	174	158	139.5	129
2	414	344.5	295.5	251.5	230	179	163	144.5	134
3	419	349.5	300.5	256.5	235	184	168	149.5	139
4	424	354.5	305.5	261.5	240	189	173	154.5	144
5	429	359.5	310.5	266.5	245	194	178	159.5	149
6	435	365.5	316.5	272.5	251	200	184	165.5	155
7	441	371.5	322.5	278.5	257	206	190	171.5	161
8	447	377.5	328.5	284.5	263	212	196	177.5	167
9	453	383.5	334.5	290.5	269	218	202	183.5	173
10	459	389.5	340.5	296.5	275	224	208	189.5	179
11	466.5	397	348	304	282.5	231.5	215.5	197	186.5
12	474	404.5	355.5	311.5	290	239	223	204.5	194
13	481.5	412	363	319	297.5	246.5	230.5	212	201.5
14	489	419.5	370.5	326.5	305	254	238	219.5	209
15	496.5	427	378	334	312.5	261.5	245.5	227	216.5
16	503	433.5	384.5	340.5	319	268	252	233.5	223
17	509.5	440	391	347	325.5	274.5	258.5	240	229.5
18	516	446.5	397.5	353.5	332	281	265	246.5	236
19	522.5	453	404	360	338.5	287.5	271.5	253	242.5
20	529	459.5	410.5	366.5	345	294	278	259.5	249
21	533	463.5	414.5	370.5	349	298	282	263.5	253
22	537	467.5	418.5	374.5	353	302	286	267.5	257
23	541	471.5	422.5	378.5	357	306	290	271.5	261
24	545	475.5	426.5	382.5	361	310	294	275.5	265
25	549	479.5	430.5	386.5	365	314	298	279.5	269
26	553	483.5	434.5	390.5	369	318	302	283.5	273
27	557	487.5	438.5	394.5	373	322	306	287.5	277
28	561	491.5	442.5	398.5	377	326	310	291.5	281
29	565	495.5	446.5	402.5	381	330	314	295.5	285
30	569	499.5	450.5	406.5	385	334	318	299.5	289

◇봉급및 報酬인상內譯 단위 : 千원

구분	俸給 俸給額	俸給 인상률(%)	報酬 報酬額	報酬 인상률(%)	增加額 俸給	增加額 報酬
長官	756	4	1,134	4·3	29	47
次官	633·5	4	950	4·4	24·5	40
1級	537	4	806	4·8	21	37
2級	467·5	4·5	701	5·3	20·5	35·5
3級	418·5	4·5	628	5·5	18·5	33
4級	366·5	5·0	570	6·1	18·5	33
5級	319	5·0	499	6·7	15	31·3
6級	268	6·0	452	6·4	15	27·1
7級	223	6·0	385	16·4	12	54·3
8級	177·5	7·0	297	16·4	11·5	41·8
9級	139	7·0	199	10	10	18·1
雇傭員	145·5	8·0	222	14·8	11	28·6

※報酬內譯 : 俸給+期末수당+精勤수당+장기勤續수당+가족수당

「아프간수렁」3년 골치싸맨 蘇聯

中東·인도양進出 要衝

각국 撤軍압력등 외면

회교反軍의 완강한 저항과 세계각국의 빗발치는 철군압력에도 소련은 아프간의 늪에서 빠져 나올 생각을 않고 있다.

소련은 아프간 침공에대한 국제적 비난과 회교反軍의항쟁에 의한 아프간주둔군의인적·물적 피해가 막심하다해도 이를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을 만큼 아프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소련은 또국제문제와 관련해 국내여론의 압력이 거센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 미국이 과거 월남에서 쫓기듯 발을빼야했던것과는 달리 소련은국제문제와 관련한 국내여론의 압력을 받지않기 때문에 비교적느긋하게 아프간에서 버티어 낼수가있다는 것이다.

소련에 있어서 아프간은 석유의 보고 중동을 굽어볼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다. 동시에 美해상함대가 진을 친 인도양 진출을 위해서도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있는 위치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난 79년12월27일 소련은 제3세계의 大兄을 자처했으면서도 바로 그 3세계의 일원、아프간에 대해 파렴치한 침공을 단행했었다.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아프간에 주둔한 소련군은 10만8천을 헤아린다. 여기에 親蘇아프간 정부군 8만이합세、험준한 산악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회교反軍의 소탕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월등한 병력과 소련의 신예무기를동원한 전투로서도 反軍의 저항은 조금도 수그러지질않고 있다.

소련주둔군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갈수록 막심해지고 있다.

소련의 곤경을 더해주고있는것은 아프간 정부군의 이탈자가 늘어나고 국경을넘어 이웃 파키스탄등의 회교국으로 피난하는 난민의 대열이 그치지 않고있는 점이다. 그 숫자가 지금까지 3백여만에 달한다고 밝혀졌으며 이들은 바로 아프간 산악에서 활동하는 회교반군의 후방기지가 돼 反蘇항쟁의 불길은 더욱 거세어만간다.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이는 회교국들은 이들을 결코 천대하지 않는다. 소련의 팽창야욕에대한 경계의 끈을 더욱조이고 있을뿐이다.

소련군의 아프간침공 3주년이되는 지난27일 이란、사우디등 중동국가들은 일제히 소련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란주재 소련대사관을 포위하고 일어난 격렬한 反蘇시위를 두고 소련은『이것이 이란정부의 묵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라고 비난、외교문제로 삼을 기세다.

이란접경 소련영내에 회교혁명의 확산을 우려、이란에 은근히 추파를던져온 소련에게 이같은사태발전은 결코원하지 않던 일이다. 사우디정부도 소련을향해『소련이 아프간에 장기주둔할정책을 채택했다』고 비난하고나섰다.

◇叛軍소탕에 나선 소련군병사와 아프간의 한 농부가 등을 돌린채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있다. 소련의 侵攻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된 아프간국민과 침공군의 관계를 상징하는것같다.

회교 叛軍 완강한 저항

人命·財産피해만 늘어

중동에서 시작된 反蘇시위는 뉴델리、북、제네바、뉴욕등 세계도처로확산돼 소련의 아프간 강점에 대한 국제적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소련이 아프간을 전략적으로 중요시하는 것과는 달리 얻은것보다는 잃은것이 더많다. 우선 중동산유국이 對蘇경계심을 더욱 다진 것이 그중의 하나가 된다. 중동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서도 아프간문제가 가장 어려운매듭이되고있다. 미국과의군축회담이 난항을 겪는 것도 따지고보면 원인은 아프간침공에있다.

동구권을 제외한 대외관계에서 아프간 문제는 소련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있다. 소련이 아무리 大兄임을 자처해도 비동맹과 회교권은 소련의 파렴치함을비난하고 그 팽창야욕을 위험한 눈으로본다.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가 끈질기게 아프간철군을 요구하고있다.

그렇지만 소련에 안드로포프 체제가 들어선 후도 아프간 정책에 대한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직없다. 다만 새지도자들이 아프간을 씹지도뱉지도 못할 큰 골치거리로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시사가 분명할 뿐이다. 얼마전 모스크바를 방문、안드로포프를만났던 지아·울·하크 파키스탄대통령도『소련지도자들이 아프간문제와 관련、일부 새로운 조짐들을 보이고 있으나 조기철군을 자신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었다.

그는 또『소련이 명예스런 철군을 바라고 있다』고도전했다. 소련이 말하는 명예스런철군이란▲아프간에는 확고한 소련의 親蘇괴뢰정부가 남을것▲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영향력이 완전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하면 브레즈네프 시절의 입장과 하등 다를 것이없다.

아프간은 사실 브레즈네프 시절에도 지금과같이 씹지도 뱉지도 못할 골치거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간에 오래머물면 머물수록 미국이 월남에서 겪었던것처럼 소련은 점점더 지독한 수렁에빠져버리고말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첫째는 친소괴뢰정부인 카르말정권이 갈수록 아프간국민과 거리가 멀어지고 철저한 불신을 받고있기때문이다. 홍수를 이루고 빠져나오는아프간 난민의 대열이 이것을 웅변으로 증명한다. 국민이 떨어져나가버리는 정부는 존립할수없기때문이다.

【崔相鎬기자】

메아리

燈

한해가 저물때면 燈이 그리워진다.「저문다」는 우리나라 말의 이미지 때문일까. 거리에는 크리스머스와 연말연시를 위한 등불들의 장식이 한해중 어느때보다도 화사하게 빛난다. 집안에서도 등불을 하나라도 켜놓고 싶어진다. 등불이 없는 歲暮는 영영 새지않는 밤처럼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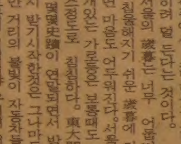
照明을 발명한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했다. 약 5만년전에 불을일으킬줄안 인간은 처음에 횃불을만들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명의 역사는 나무개비불로 시작되었다. 나무토막을 잘게잘라 樹脂나 獸脂를바른뒤 불을 붙여서는 비스듬히 매달아 놓는것인데 이것이 빛과 熱을 분리한 처음도였다. 이불이 어두운 世紀를 천년이상 비추어 왔다. 그러다가 나무대신 기름에 심지를넣어 불에 담근 등불이 나오고 이번에는 그 동을 없애버린 촛불이 등장했다. 그후 다시 기름대신 가스를 쓰게되고 19세기 중엽 석유가 나면서 석유램프가 퍼지는 사이 電燈이 발명되었다. 전등은 불꽃이 없이도 빛을내는 램프라는것이 획기적이었지만 어떻게하면 熱이 없는 빛을 만들어내느냐한것이 그후 과학자들의 과제가 되어왔다. 이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등불은 반딧불이다. 반딧불의 빛은 차다. 可視光線이 양에 비해 열輻射가 적은 光源을 얻으려는 노력이 螢光燈으로 나타났다. 처음 조명이 집안에서 거리로 나와 가로등이 맨처음 켜진것은 루이14세때의 파리였다.

루이 14세는「太陽王」이라 불리지만 가로등의 창시자로서도 가히 그 이름에 값했고 그는 이 첫가로등을 기념하여 메달까지 만들었다. 당시 파리를 여행한는 사람들은 휘황한 밤거리를보고 눈이 둥그래졌다고한다. 프랑스 대혁명중에는 파리시민들이 國王派를 이 가로등의 기둥에 매어죽이기도했는데 그때 끌려온 한僧院長은『좋다、나를 죽여라. 그랬다고해서 이 가로등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줄 아느냐』고 소리쳤다. 처음에는 가로등이 촛불이었지만 혁명전인 1765년이래 反射器달린 기름램프로 바뀌어져 있었다.

런던의 가로등은 파리보다 20년이 늦은데다가 집10채에 동하나씩을 달았는 밤에 그것도 겨울철만 켠 것인데도 시민들은「다른 어떤 발명도 밤을 낮으로 바꾼 가로등만한것이 없다」고 격찬했다.

가로등의 元祖인 파리는 지금도 照明에 관한한 세계의 첨단이다. 특히 歲暮의 파리거리는 밝다. 샹젤리제大路는가로수 가지마다 燈들이 잎사귀처럼 매달린다. 휘하게 조명된 개선문 꼭대기에서는 레이저光線이 어두운 밤하늘을 길게 찌른다. 파리시내의 주요상가 50여군데는 商人組合과 各區의 祝祭委員會가 만든 전등장식으로 거리가대낮같다. 파리에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머스 트리가 해마다 點火된다. 높이 3백20m의 에펠탑을 4만개의 등이 달린 1만m의 꽃줄로 불밝히는 것이다. 꼭대기에는 200개의 등으로된 별이 그려지고 塔의 중간층에는 높이 6m의큰 글씨로「謹賀新年」이 쓰여진다. 이 조명에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될까 싶겠지만 4백㎾의 전력소비로 이塔을 보통때 바깥쪽에서 조명하는것보다 1백㎾가 오히려 덜 든다는 것이다.

서울의 歲暮는 너무 어둡다. 가뜩이나 침울해지기 쉬운 歲暮에 거리가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워진다. 서울에 2만3천개있는 가로등은 보통때도 밝기가 6룩스정도로 침침하다. 東大門、南大門등 몇몇史蹟이 연말되면서 밤에 조명을 다시 밝기시작한것은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거리의 불빛이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불에 밀려서야 우리의 전부는 해는 슬퍼진다. 世宗路—太平路같은 밝기를 25룩스로 높이는 가로등 공사를 지금 진행중이지만、이 歲暮에 이 거리하나쯤이라도 장식등으로 환하게 꾸민다면 새해는 더욱 밝게 밝지 않겠는가.



金聖佑
<編輯委員>

4천만이 穴居생활

★人民日報 군색한 예찬론

중공에서는 약 4천만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혈거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같은 동굴생활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에너지를 절약해줄뿐 아니라 건축자재가 별로 들지않아 값도 싸고 농토도 점유하지 않는등의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중공당기관지 인민일보가 27일 보도.

이신문은 최근 농촌지역에서 일고 있는 건축붐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동굴집의 철거요구가 있자 황하중상류지역의 동굴집들을 예로 들며 이같이 동굴집의 예찬론을폈다.

이신문은 특히 4천만명에 달하는 혈거인들을 일시에 동굴에서 철거시킬경우 나무·시멘트·벽돌등이나 주택지가 모자라는 지역에서는 큰 부담이 될것이라면서 건축가들이 동굴집들을 보다좋은 거주환경으로 개조할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촉구했다.【北京=AP】

癌 완전예방·地震사전예측

腦卒中·동맥경화 特効藥도

日科技廳조사 2천년代 전망

서기2천년을전후하여▲암의 완전예방과 대규모 지진의 사전예측이 가능해지고▲동맥경화증·뇌졸중및 정신병등의 특효약이 개발되며▲家事로보트가 실용화하고▲전자자동차·핵추진민간선박·시속5백㎞의「비행열차」가 등장할것이라는 보고서가 27일 발표됐다.

일본과학기술청은 이날 2천명의 과학자·정부고위관리및 실업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핵에너지·우주·우주과학등 15개분야의 8백개 연구주제에 관한 중요도와 그실현가능시기를 조사、그결과를 발표한 향후 30년간의 기술예측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보고서는 또한 금세기말까지 유전인자조작에의한 식량생산기술이 개량되며 인공장기의 소형화로 이것의 자택사용이 가능해지는등 꿈같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다.【東京=聯】

컴퓨터選定에 당혹

★일부 讀者들 올해人物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일부 독자들은 타임지가「올해의 人物」로 컴퓨터를 선정하자 혐오와 당혹감을 표시해왔다고 브라이언·브라운 타임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브라운대변인은 그렇지 않아도 인간미가 그리워지고 진실한 인간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시대에 타임이 사상처음으로 컴퓨터를「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자 독자들이 적잖이 놀란것같다면서 그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한해의 가장 의미깊었던사건이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 과정인 경우도 종종있다』고 타임지의 견해를 대변.

그는 컴퓨터를 선정한데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지난 79년 이란의 지도자 호메이니옹을「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을때 9천명의 독자가 정기구독을 취소하는등 일대소동을 벌였던데 비하면 미미한것이라고 논평.

그는 당시 독자들이『좋건나쁘건 그해의 뉴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인』이라는 선정기준을 몰랐기때문에 그같은 항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뉴욕=聯】

◇그레이스王妃 一代記 드라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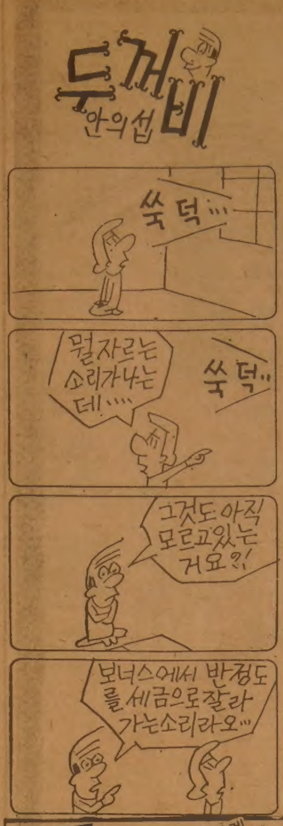
얼마전 세상을 떠난 모나코 王妃 그레이스·켈리의 一代記를 TV드라마로 만든「그레이스·켈리」에서『레이니에公(이언·맥스베인扮)이 그레이스왕비 (체릴·래드扮)에게 王室결혼을 제의하는 장면. 美國의 ABC·TV가 제작한 이드라마는 오는 발렌타인데이에 특별방영될 예정.【뉴욕26日AP特約=聯】

謹頌新禧

다양한 품목
정상의 품질
저렴한 가격
최대의 봉사

한인식품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假登記담보법」制定

閣議의결 「집단건물 所有관리법」도

부동산을 가등기해주고 돈을 빌어쓴사람이 기일내에갚지못하더라도 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기전 2개월의유예기간을 줘야하며 부동산을 팔더라도 판값과 원리금의차액(청산금)은 채무자에게 되돌려줘야만 소유권을 본등기에 등재할수있게 됐다.

또 아파트입주자들도 대지등기를 개인별로 낼수있으며 주거전용 아파트를 함부로개축 또는 개조, 술집등 영업용으로 사용할수없으며 이를어길경우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내용을 주요골자로한 「가등기담보법」과 「집합건물의 소유관리법」등 2개법률의 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들 법률은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가등기담보법은 공포후즉시, 집합건물의 소유관리법은 공포후 1년경과후부터 시행된다.

가등기담보법 제정안은 소액채무자가 대금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일이없도록 하기위한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상기간이 끝나도 2개월의 유예기간을두고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처분하겠다는 통지를 하도록규정했으며 그기간이 경과한후 담보부동산을 처분해도 처분가액에서 원리금 (빚과이자)을 제외한 잔액 즉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등기를 이전할수 있게했다.

이때 청산금의 지급의무와 가등기에의한 본등기의 이행및 담보물의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으로 규정했다.

제정안은 또 부동산 소유권외에 광업권, 전화가입권, 자동차및 선박등록권등이 담보로 잡혔을때도 마찬가지로 이법이 준용되도록 했다.

이법은 이밖에 채무자는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할때까지는 채권판제기 5년전에는 언제라도 빚을 갚으면 이전된 소유권의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법의 규정에 반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어떠한 특약도 무효로했다.

집합 (集合) 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은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목적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 요정이나 댄스교습소등을 설치하거나 내부벽을 허는등의 무단개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 지금까지는 이같은 집합주택의 각세대별대지의 구분등기가 인정되지않아 대지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전체세대분의 등기부등본을 한꺼번에 떼어야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기위해 대지에대한 권리도 구분건물의 등기부 표제부에 지분 (持分)을 표시해 대지의 구분등기도 가능하게하고 구분건물의 처분에 함께 따르도록 했다.

前 연합철강대표 權哲鉉씨 脫稅부분 無罪선고

大法, 7년만에확정

대법원형사2부 (주심李正雨대법원판사)는 28일 전연합철강대표 權哲鉉피고인(57·서울中區奬忠洞1街91)에 대한 특가법 (탈세) 및 외환관리법위반등 사건상고심선고공판을 기소된지 7년만에 열고 검사의 상고를기각,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외환관리법위반부분에대해서만 벌금4천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權피고인은 지난 73~74년사이에 법인세, 법인영업세등 4억2천여만원을 포탈하고 암달러상을통해 미화 12만4천5백달러를 불법매입한혐의로 지난75년12월 구속기소돼 76년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그후 4년만인 지난80년10월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3년에 벌금5억원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지난7월 權피고인과 법인체연합철강의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權피고인에대해 외환관리법위반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인정, 벌금4천만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에불복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權피고인이 소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하더라도 세금납부기간이 경과한후에야 탈세로 처벌할수있는데도 그기간이 지나지않은상태에서 기소한것은 잘못』이라고 탈세부분의 무죄이유를밝혔다.

연탄가스中毒 3父子가숨져

28일상오7시10분께 서울西大門區大峴洞20의90 삼천리연탄가게 (주인 金榮丘·40)문간방에서 이방에 세든 연탄배달부 金壽福씨 (47)와 金씨의 장남 聖郁군 (16·한영중3년) 2남 聖國군 (13·북성국교6년)등 3부자가 연탄가스에 중독, 숨졌다.

숨진 金씨는 지난78년10월 부인 (42)과 헤어져 두아들과함께 이가게에서 일당1만원을 받고 일해왔었다.

臺城洞·統一村에 李문공, 年末선물

李振羲문공부장관은 28일 비무장지대내 자유의마을인 臺城洞과 서부전선 최전방마을인 統一村에 주방용기1백20세트를 연말선물로 전달했다.

商店불 7채태워 5천여만원 피해

【安東】28일 새벽4시30분께 경북安東市南門洞187 천일상회 (주인 권영환·27)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이웃점포 서울의집, 수임센터등 목조건물 7채를 태워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1시간만에 진화됐다. 【聯】

精米所불 5천여만원피해

高速道 트럭에도 불티…貨物태워

【蔚山】27일하오10시30분께 蔚州郡彥陽面直東里476의7 彥陽합동정미소 (대표 김대회·37)에서 원인을 알수없는 불이나 이곳에 보관돼있던 정부미 보리쌀60kg들이 8백가마와 정미기, 빈가마등 모두 5천여만원상당을 태우고 4시간만인 28일 새벽2시30분께 진화됐다.

이날 도정공장의불로 때마침 정미소옆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지나가던 천일정기화물소속 경북7아4887호 (운전사 김창언·25)트럭 적재함에 불티가날아 싣고있던 염화피아노롤 (1천1백만원상당)등 1천5백만원상당의 화물까지 태웠다.

얼굴없는 篤志家…不遇돕기 7년

그도 가난한 사람이었다

끈질긴 추적끝에 나타난 「漢江아파트 權씨」

假名·匿名으로 60여차례 温情

작은事業실패…집 날릴처지

숨은 독지가는 뜻밖에도가난한 사람이었다. 남의 가난과 불우를 돕는것으로서 자신의 가난을이겨내고있었다.

지난 7년간 신문에 보도된 불행한 사람들의 암담한 사연을 위해 60여차례나 익명이나 가명으로 성금을 보내온 「한강아파트 權」씨는 해마다 세모가되면 기자들의 추적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權씨를 만나기란 쉬운일이 아니었다. 기자가 접근하는 낌새가 보이면 또다시 가명을 바꾸어버리고 잠적해버리기때문이었다.

西部二村洞의 아파트 촌과 洞사무소를 호구조사 하다시피 10일간이나 뒤져서 찾아낸 權씨는 끝내 이름밝히기를 거부하며 나이가 52세이며 서울 江南區 盤浦洞 한신아파트에 산다는것만 확인해주고는 『무얼하러 왔느냐』며 기자를 나무랐다. 해마다 연말이되면 연탄몇장, 양말몇켤레의 「선행」을 신문에 내달라는 주문이 산더미 같이 쌓이지만 權씨의 숨은 성금은 오른손도 모르는 왼손만의 일이었다.

세상에는 무수한 답답한 사연들이 있다. 악기가 없어 취업치 못하는 맹인악사, 아들의 소풍과자값을 마련키위해 절도를 범한 가난한 아버지, 호떡을 파는 소녀家長과 그의 식솔, 심장병을앓는 외딴섬의 소녀등의사연이 보도될때마다 權씨는 「독자」 또는 「한강아파트權」이란는 이름으로 5천원또는 1~2만원정도의 소액환을 성금으로 부쳐왔다. 79년 연말께 기자가 접근하려하자 그후부터는 「盤浦洞 權奇淳」이라고 가명을 바꾸었다.

權씨는 이 「빈자의 一燈」과 함께 늘 짤막한 격려의편지를 곁들였는데 그의 편지는 불우한 사람들이 갖는 삶에 대한 한없는 동경을 어루만져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내용이었다.

온정도 「전염」이 되는 것인지, 權씨의 성금이 접수되었다는 기사를 기폭제로해서 더 많은 성금이 몰려들기도 했다.

측근들은 그의 숨은 선행이 신문에 나지않은 쪽에 도 많았었다고전해준다. 신문에 보도되면 그는 「작은 축복하나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작은 바람 한점이 호수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날을래 미소지었다고 한다.

가난한 농촌 출신인 그는 3세때 아버지와 사별하고 홀로 고학으로 고교와 서울大商大를 졸업했다.

지난68년 38살의 노총각으로 늦은 결혼을할때도 형과 동생의 도움으로 겨우 셋방한칸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고 지난76년 西部二村洞공무원아파트에 12평짜리 「내집」을 마련할때까지 셋방을 전전해왔다.

그러나 그가 천신만고끝에 마련한 이 아파트한채가 연말이면 경매처분으로 남의손에 넘어갈 운명에 처해있다.

최근 모기업의 대리점을인수한 그는 부도를낸 회사의 어음을받고 3천5백만원어치의물건을 내주었다가 집이 빚의 담보로 넘어가게된 것이다. 그것도 측근의 귀띔으로 알수있었다. 직원들마저 모두떠나버린 5평짜리 사무실을 홀로 지키고있는 그는 자신의입장을 얘기하길 끝내 마다하고 차분한표정으로「딱한사연」을찾아 신문의 구석구석을 뒤지고있다. 이사람을 「괴짜」라고 생각하고 그의 일을 남의일처럼 흘려보내[illegible]는 없다고 느껴졌다. 【李秉泰기자】

◇프란체스카여사가 내놓을 뜻을 밝힌 서울시지방문화재6호인 梨花莊.

"梨花莊 市에 기증"

프란체스카女史 뜻밝혀 서울市 검토

"지방文化財…개인살곳못돼 국립墓地근처 居處 마련을"

故 李承晩대통령의 미망인 프란체스카여사 (사진)가 현재 살고있는 서울시 지방문화재6호인 梨花莊 (서울鍾路區梨花洞1)을 서울시에 기증할뜻을 밝혀 서울시가 이를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프란체스카女史

현재 梨花莊에서 양아들 李仁秀씨의 가족과함께 살고있는 프란체스카여사는 李대통령이 잠들고있는 국립묘지부근에 살집을 마련해주면 梨花莊을 내놓을뜻을 밝혔다고 서울시관계자는 전했다.

프란체스카여사는 요즘도 거의 매일 국립묘지의 李대통령묘소를 참배하고 있는데 梨花莊에서 거리가 멀어 나들이가 불편한데다 문화재인 梨花莊은 개인이 살기에는 적합하지않다는 점에서 이를 기증할 뜻을 밝혔다는것.

한편 27일하오에 모임을 가진 서울시문화재위원회는 梨花莊이 우리나라초대 대통령이 집무하던 곳이고 건국당시 이집에서 내각을 구성하는등 역사적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지방문화재6호로 지정한바있다.

"卒業정원제 不變"

李문교 도태없는大學 質的향상 못해

李奎浩문교부장관은 28일 전국대학총학장에게보낸 공한에서『졸업정원제에관한한 문교부의 기본방침은 새해에도 변하지않을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공한에서『우리나라대학들의 지적수준이 만족할만큼 향상된뒤에는 졸업정원제의 운용방식이 대학자율에 맡겨진다고해도 졸업정원이상으로 뽑은 학생들은 탈락돼야한다』고말했다.

李장관은 『열악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하게돼있는 종래의 대학은 대학이아니다』고 말하고 『도태가없는 대학은 질적인보장을 무시하는 대학』이라고 지적했다.

李장관은 특히 면학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대학교육의질을 높이기위해서 졸업정원제 운영을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하고 교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철저히 교육시키고 교수방법을 개선한 대학에서는 졸업정원제가 조금도 문제가 되지않는데비해 옛날의 안일한 타성을벗어나지 못한 대학에서는 졸업정원제가 문제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밍크목도리 密輸 船員2명令狀 수배

【釜山】연말 밀수특별단속을 벌이고있는 釜山세관은 28일 3천만원 상당의 밍크목도리를 밀반입한 釜山東區草梁洞1211 용신해운 소속 세통호 선원 안종선씨 (36)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동료선원 金모씨 (35)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27일 새벽 2시께 일본 고베항에 수출품을 하역하고 귀국하면서 일제 밍크목도리 2백1조 (4백2마리, 시가 3천여만원)를 기관실에 숨겨 들여와 부두밖으로 몰래 운반하려다 적발됐다. 【聯】

내일저녁 月食현상

6시50분~10시7분

30일 하오6시50분부터 하오10시7분까지 달이 지구그림자에 가리워져 보이지않는 월식현상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난다.

달의 침식현상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시간은 하오7시58분부터이며 31분 후인 하오 8시29분에 달이 지구그림자에 완전히 가리워지는 개기월식현상이 1시간1분동안 진행되다가 하오8시59분에 끝나며 달이 월식현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각은 하오 10시7분이다.

이번 월식현상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시아서북부, 태평양,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서북부, 그린란드, 대서양서부, 북극등지에서도 볼수있다.

새마을유아원 教師 정원제

내년부터 月19만5천원 지급

내무부는 28일 내년부터전국새마을유아원에 교사정원제 (원아40명당1명씩)를 실시, 정원내의교사모두에게 월19만5천원씩의 인건비를 지급키로 하는한편 도시 변두리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에유아원 4백64개소를 증설키로 했다.

또 이유아원에는 영세민과 맞벌이부부의 자녀를 우선수용해 이들 자녀의 취원율을 76%로 늘릴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등 기존유아교육시설과의 거리는 도시에서는 5백m이상, 농촌의경우 1천m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아원중 종일반 (상오9시~하오4시) 원아들에게는 급식양곡 (1일 1명당 쌀1백8g, 보리쌀35g、부식비 1백50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내무부는이를위해 내년에 1백75억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도시일반지역에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은 학부모들로부터 원아1인당 1만 (반나절반)~1만5천원 (종일반) 이내의 회비를 받는다.

海上오염 防除船 忠武에 첫 등장

【忠武】현대식해상오염방지장비를 갖춘 대형해상오염방제선 「방제6호」(85톤)의취항식이 28일 열렸다.

취항식을 마친즉시 남해안일대의 바다오염방지에 나선 길이 22.3m, 폭8.2m의 방제6호는 현대식 기름회수기와 오일·펜스등의 해상오염방지장비와 소방장비까지 갖춘 단독적 선박이다.

지난 81년9월부터 忠南牙山郡 광양조선소에서 7억6천7백만원을 들여 건조, 15개월여만에 준공된 이 배는 忠武·巨濟의 청정해역보호와 오염된 馬山·鎭海灣을 되살려내기위해 정부에서 발주한 것.

이 방제6호가 갖추고있는 기름회수기는 원심력을이용, 고무로 만든 슈퍼·벨트로 바다표면에 깔려있는 기름을거둬들여 수집탱크에 모을수있도록 만들었다. 범퍼 C와 같은 기름덩이는 스크린·벨트로 시간당 8만1천ℓ를끌어들일수있다. 【聯】

보컬그룹 元顯武씨 피아노등詐取·사기

서울 江南경찰서는 28일 보컬그룹 키보이스의 오르간주자인 元顯武씨 (29·전과3범·서울城北區吉音洞582의25)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元씨는 27일하오3시께 서울江南區新沙洞리버사이드호텔나이트클럽에서 이곳 밴드마스터인 孫鶴來씨 (41) 와 俞尙潤씨 (33)의 프랑스제 섹스폰2개 (싯가 1백50만원)를 훔친것을비롯 지난 20일에도 남서울호텔에서 전자피아노1대 (싯가1백50만원)를 『수리를부탁받았다』며 갖고나와 전당포에 맡긴혐의를 받고있다.

元씨는 3년전부터 J회사에서 나오는 R탄 각기약을 하루에 50여개씩 복용, 몽롱한 상태에서 연주를 해왔다는데 경찰에서 약을먹은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男子를 여관에유인 안정제먹이고 털어

서울시경은 28일 朴允慶씨 (36·여·전과3범·주거부정)를 강도·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朴씨는 지난23일자정께 서울江南區驛三洞Y여관앞에서 회사원 姜모씨 (36·서울江西區禾谷洞)를 동침하자면서 여관으로유인신경안정제 4알을탄 사이다를 마시게한뒤 姜씨가 정신을잃자 롤렉스시계등 68만여원어치의 금품을털어 달아난것을 비롯 지난10월부터 같은방법으로 4차례에걸쳐 모두 1백60만원어치의 금품을턴 혐의이다.

「장애社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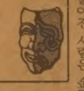
教師꿈잃은 肢體부자유 金鳳蓮양

지체부자유자를 정상인과 차별없이 대우한다는 것은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너무나 거리가 멀다.

지난번 대법원이 법관임용에서 지체부자유자를 제외해 말썽이더니 이번에 釜山시교위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은 金鳳蓮양 (25·사진)을물렸다.

왼쪽다리를 약간 저는 金양은 부산시교위가 지난11월27일에 실시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가정과선고사에 응시, 22.5대1의 경쟁률을 뚫고 1차관문을 통과했으나 면접에서 눈물을 삼켜야했다. 면접에 응한 3백16명중 떨어진 사람은 金양한사람이었고, 불합격이유도 「발표력이 부족하다」는 애매 모호한 것이었다.

그러나 28일상오 서울正立회관에서 만난 金양은 다리를 전다는것외에는 정상인과 다름없었다. 말도논리가 정연해 발표력이 오히려 뛰어났다.



교사가 꿈이었던 金양은 금년봄에 晉州 慶尙大 식품영양학과를 졸업, 중학교 2급정교사와 1급영양사자격증을 땄다. 꿈이 이루어질듯해 한없이 부풀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이지러졌다.

불합격통지를 받은 후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슴을 치밀었다. 그때마다 지난해 11월 교생실습을 마치는날 중학교 1학년생들이 준 편지를 꺼내 읽었다.

"이다리로 雪嶽山까지 올랐는데…"

『처음에는 예쁘고 날씬한 선생님이 아니어서 실망도 했지만 저희들이 의자를 권해도 끝까지 서서계신 선생님은 어린 저희를 가슴속에 색다른 감동과 신념을 주었읍니다』

소년들이 되려 정확한 눈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것이다.

金양은 자신의 다리에 믿음을 지니고 있다. 대학시절 전국의 유명사찰을 누비고 지리산과 설악산 정상에도 올랐다. 이다리로 교생실습을 마치고 받은 평가도 89점으로 상위권이었다.

깨져버린 꿈이 아프기도 했지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위해 날마다 釜山시교위를 찾아갔다. 한결같이 『내년에 다른 市·道에 가서 응시해보라』는 무책임한 대답뿐이었다.

『다른이유로 떨어졌다면 할말이없겠읍니다. 육체적장애자라는 이유로 나머지 다른 가능성마저 빼앗길수는 없지않읍니까』이런 대우가있을까봐 지금껏 목발을 거부해왔다는그녀의절규는하나의못이되어기자의가슴을후벼댔다. 【韓基泰기자】

KOREAN-CANADIAN ACADEMY

학생모집

금번 저희 학교에서는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그 규모를 확장하여 한국 2세를 위한 새로운 교육이념의 토요학교를 미시사가에 마련하여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등록 있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개학일시 : 1983년1월8일
수업시간 : 매주토요일 오전9시30분~오후4시30분
등록마감 : 1983년1월5일까지
모집인원 : 매 학년에 15명내외
장 소 : Queen Elizabeth Senior Public School(Hwy10과 Q.E.W.)
필수과목 : 한국어
선택과목 : 영어, 수학, 미술, 콤퓨터, 태권도
※각 과목 각학급의 정원미달일 경우엔 개인교습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음.
수 업 료 : 등록시 발표
연 락 처 : Mr. 장(823-5774) Mr. 유(621-2189) Mr. 천(275-3274) Mr. 오(270-3118)
◉COMPUTER & MATH 김재신 주병돈 윤여경 Dong Hanes
◉ENGLISH Mr. R. Mcnutt Miss G. Dolan Mr. S. M. Lesjak
◉ART: 이정자
◉태권도: 이우희
◉한 글: 김인자, 강경희, 임혜경, 김영곤, 이정자

씨알한국인학교 안내

◇한국어 프로그램(무료)
매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30분
한국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부터 각자의 년령과 능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치반부터 9학년까지 모두 7학급으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언제라도 등록을 받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어교육를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자녀에게 길러 주십시요.

◇수업료
●중고등부 : 한과목당 90불 두과목 170불
●초등부 : 두과목을 택할 수 있음.
●한학생 120불, 두학생 230불, 세학생 330불

◇특수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중·고등부 : 컴퓨터, 영어, 음악이론
●초등부 :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고전무용, 영어, 수학, 태권도, 스케이트(봄에는 축구)

◇학교버스
동쪽 : 마캄×핀치에서부터 제랄드×Coxwell 지역)
서쪽 : 베이크·서부터 Bathurst× 세파드 지역
●한학생 85불, 두학생 160불

◇연락처 : 960-0074 248-8885

My Credit Union means
MEMBERSHIP
NOT NUMBERSHIP

삼가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만복이 깃들길 빕니다

이사장	한상훈	대출위원장	김상범
부이사장	김학량	위 원	최태권
전무이사	이홍렬	위 원	김종조
이 사	윤호영	감사위원장	심재환
이 사	김장환	위 원	방남주
이 사	서준경	위 원	정필주
이 사	김병권	직 원	민숙기
상 무	김연수	직 원	김영희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 M6G 1L1

☎ : 533—9387·9388

BRAUN, SANSUI, TELEFUNKEN, JVC,
ZENITH, PANASONIC, SANYO, SHARP,…

아카데미 TV. STEREO

EAST
MORNINGSID MALL
256 MORNINGSIDE AV. SCAR.
KINGSTON RD. & MORNINGSIDE
☎ 282-2820

WEST
FINCHWEST MALL
348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賀新正

謹 賀 新 年

토론토무역관
관장: 이준식
977-8784

베커경영인협회
회장: 김병진
755-3632

토론토한국총영사관
총영사 이상훈외 직원일동
598-4608

FINE DESIGN
조덕남
622-5328

정영수태권도 아카데미
1065 St.Clair Ave, W.
652-0000

현영일국제경영 CONSULTANT
444-9341

토론토 한인라이온스클럽
회장: 서준경
621-4890

승공문화협회
이근우
444-3658

하르빈한약상사
서춘봉
536-6854

천주교회
신부: 최규식
863-0415

동우회
임원이사 일동
755-0721

FINE WOOD WORK
조상민·조덕근
676-1173

Zap SUREKILLER
바퀴벌레약회사
북미여행사 대표: 임태호
368-9018, 366-0960

한인장학재단
이사장: 강공선
533-8344

BRITANNICA 백과사전
송영
461-3363

토론토한인회
회장: 박인순
755-9288

캐나다탁구협회
임원및 이사일동

서울여행사
최동주
535-6004

순복음카나다교회
목사: 조이식
745-3884, 743-4813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519)579-1819

황해도향우회
회장: 김준순
368-1602

Young Sook's 보석상
민영숙
215 Yonge St.
368-7961

Kim's Art Gallery
김석환
243-0233

김종조종합보험
535-7200

축구협회
회장: 고광남
731-1229

야채도매상
곽덕열
465-8167

종교서관
김명준
535-1920

메시아한인교회
목사: 조창환
298-1876

영락교회
목사: 김재광
423-9880
423-8400(복음의 다이얼)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223-1914

블로아·하드웨어
대표: 변의섭
608 Bloor St. W. Tor.
531-6183

박종수태권도장
719 Yonge St.
961-7100

Picture Frame Warehouse
조성호
746-2120

선·라이프
백용빈
497-3800

내고향통닭집
이종소
537-0432

제일식품
오석환
532-1054

가나안교회
목사: 이정준
244-2301

미시사가연합교회
목사: 유환진
276-5163, 277-2394

오순절장로교회
목사: 장세택
762-1495

한인교회
목사 반병섭
243-9543, 743-8082

집수리, 건축
심태식
669-5784

박준삼태권도장
814 Bloor St, W.
535-4000

Wayside Gallery Picture Frame's
(길섶화랑)
김길수
886-1667

조규혁종합보험
The Sovereign Insurance
250 The East Mall.
233-6236

아리랑하우스
장순채
532-2727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248-2957

대한교회
목사: 조남유
621-6340

빌라델비아장로
목사: 김경진
281-5706

제7안식일교회
목사: 박형종
630-4284

한인장로교회
목사: 박희민
535-6864, 532-2121

제일여행사
유지원·신용목
535-2377

손명수도장
2188 Bloor St. W.
763-1155

앵코오토·바디
자동차수리
송찬섭
846 Richmond St. W.
862-1433

IMPERIAL LIFE
김홍량
624-2103, 961-3774

클링톤하우스
김영규
693 Bloor St. W.
535-9541

스타미용실
Mrs. 김
741-4410 (서부)
267-0333 (동부·월만)

대한수도원
김소봉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목사: 김요환
248-9709, 248-1653

중앙한인연합교회
목사: 김태규
922-3863, 922-0605

한국협신선교협회 협신기도원
회장: 이광옥
245-1687

새한칼라현상소
이인덕
535-7772(B), 654-5691(R)

완인태권무도회
이경태 도장
1865 Lawrence Ave, E.
759-2500

ALLEN 오토 SERVICE
정용태
762-3247

SOVEREIGN LIFE
강경범
233-6236(B), 279-7774(R)

호심식당
최동호
368-0686

소니아미용실
Mrs. 허
2085 Lawrence Ave, E.
759-8854

동부한인장로교회
목사: 홍순관
530-1142

새예루살렘교회
목사: 김승환
429-1430, 429-2685

중앙한인장로교회
목사: 정관일 외 교우일동
961-8361

불광사
서광옥
223-9152

Super X Drug
약사: 조남오
233 Yonge St.
368-2746

완인태권무도회
이현우 도장
2281 Yonge St, Tor.
483-4002

FIRST 오토 SERVICE
최이락, 김한호
532-0200

동양한약상사
함병섭
537-6685

김명숙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534-3760

킴스미용실
Mrs. 오
668 Manning Ave, Tor.
532-7094

토론토한인감리교회
목사: 박준하
장로: 엄기옥, 김상진, 고광언
498-7960

성산교회
목사: 제화삼
233-2266

침례교회
목사: 홍신웅
531-7604

인벤토리
호세환
536-6250

돈밀약국
약사: 이이병(요한)
429-4117

임송학태권도장
1963 Weston Rd.
247-7577

HILL TOP AUTO BODY
자동차수리
김상수
13367 Yonge St, Tor.
773-7777(B)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588-1984

이영철회계사무소
344 Bloor St,W. Suit 304
921-1294

Annie's 미용실
Mrs. 리
812 Queen St, E.
463-9071

런던한인교회
목사: 신용규
473-5257

순복음교회
목사: 이필주
881-7162

충현교회
목사: 박경남
281-7772

킴스카메라
김춘탁
619 Bloor St, W.
534-1085

아카데미 TV & 스테레오
동부: 김정운 282-2820
서부: 전광재 745-5555

한인태권도협회
임원 일동
630-3095

NOOR ES 도매상
777 Warden Ave, #7
757-9271

아세아한약방
조지섭
530-0522, 530-4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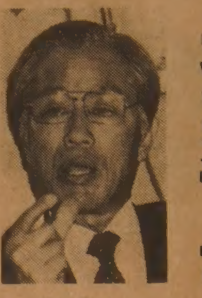
종합회계사무소
최태권
533-7573

LE SALON
박용숙
964-2715

내년에 金利引下

金부총리 日本등 輸出경쟁국 水準으로

物價 3~4%線서 억제 換率 현수준 계속維持



◇金부총리

金竣成부총리는 27일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도매기준 2.0~2.5% ▲소비자기준 3.0~4.0%수준에서 억제시키고 현재 대출연10%, 예금8%로돼있는 은행금리를 내년중에 수출경쟁국 수준으로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경쟁국인 日本·臺灣·싱가포르의 은행대출금리는 현재 연6~9% 수준이다.

金부총리는 이날換率도 현재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지금의 美달러貨 약세 추이가 그대로계속될경우 내년연말께가서 2~4% 정도 절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정부가 83년 경제운용계획試案을 발표할 당시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5~6%로 잡았으나 ①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의와 석유현물시장의 동향으로 미루어보아 기름값이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내릴것이 확실해졌고 ②세계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원자재가격이 오르지 않을 전망이며 ③우리나라의 물가와 금리수준이 수출경쟁상대국인 일본·대만·싱가포르등에 비해 아직도 1~2% 높은수준에 있는점등을 감안, 이같이 물가목표를 하향조정하게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金부총리는 물가목표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7.5%의 성장목표와 2백40억달러의 수출목표등 83년도 경제운용계획시안의 다른 내용은 조정하지 않을 생각이며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삭제하는등최대한으로 절약, 3천4백억원의 내년도 국채발행규모를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투융자사업의 60%이상을 상반기중에 조기집행,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있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재무구조개선이 상당한 실적을 거두어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생겼다고 말하고 내년하반기부터는 기술투자보완투자를 시발로 신규투자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 경기회복을 가속화시키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발표된 試案과 공청회등을 통해수집된 각계여론을 토대로 83년경제운용계획을 마무리지어 내년 1월10일까지 案을 최종확정키로 했다.

戶主制폐지 검토

3子女이상 주민세·醫保料 더내게

政府, 人口억제위해 관계法令개정 추진

정부는 인구증가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아들 선호사상을 유발시키고 있는 현행戶主제도를 폐지하는한편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친족범위도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정부는이를위해내년초까지 관계부처간에 협의를끝내고공청회를거쳐1월중 최종방침을확정, 실시토록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가족수당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불임시술자에대한 공공주택(아파트) 분양권을 최우선으로 주도록하며 育兒休職制를 새로도입키로 확정하고 내년부터실시하기로했다.

정부는 27일 인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金竣成부총리·경제기획원장관)를 열고 인구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해나가기위해 각부처가 인구억제에 장애가되고있는 각종제도나 법령을 현실에맞도록 고쳐나가기로 하고 내년1월20일까지 부처별로 구체적인 인구억제대책계획을 수립, 제출토록했다.

가족법개정은 현행 호주및 상속제도, 친족범위가 남성위주로 되어있는것을고쳐 호주제도를 폐지키로하고 출가한 딸의 상속분(아들의2분지1)을 조정키로했으며 친족범위(남자 8촌·여자 4촌)도 조정한다는 원칙아래 긍정적으로 검토, 확정짓기로했다.

의료보험료와 주민세 차등징수도 3자녀이상출산시 보험료를 추가부담시키는등 차등부과및 징수하는 방향에서 검토키로 했다.

여자공무원에대한 가족수당지급대상은 현재 형제자매가없는경우에만 주고있으나 20세이상 남자형제가 없는경우로 고치고 새로도입키로한 育兒休職制는 여성근로자가 자녀의 출산까지 육아휴직기간(6개월내지 1년까지)을 부여받아 휴직기간이끝나면 법적으로 복직을 보장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분양시에는 선매청약저축및 부금입회수가 동일한경우 두자녀이하 불임시술자를 1순위로해서 최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회의는 20대연령층에대한 가족계획사업을 강화하는등 종합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새마을學校 수료자 學歷인정方案 검토

政府·民正黨서

정부와 民正黨은 내년에 학교신설과 교실신축을통해 過密학급을 억제하는한편 지금까지 학력을 인정받지못하고있는 새마을청소년학교의修了者들에게 정규학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검토중이다.

民正黨의 정책관계자는 27일『내년중 총3천3백96억원을 투입, 1백95個校(國校86개교, 중학교69개교, 商校40개교)를 신설하고 6천3백47개교실을 신축하는한편 老朽교실 1만5백실을改築하여 國校의 학급당 아동숫자를 대도시기준 63명으로 유지토록하겠다』고 말하고『또 2部制수업을 3년의 3분의2선까지 해소하며 95학급이상의 過大학교를 분리, 교육의 질적향상을 꾀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2子女 斷産가족 47%로

올 不妊施術 26만명, 작년比 44%늘어

인구억제정책에따라 가족계획실천율도 향상되고있다.

27일 보사부에 의하면 82년 1월~11월중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은 모두 26만7천5백2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4%가 증가했으며 2자녀이하에서 불임시술을 받은 가정은 작년의 39%에서 49%로 10%가 증가, 소자녀관(少子女觀)이 정착돼가고있다.

영세민 특별생계지원불임시술은 82년 1천5백82명에서 11월말현재 6천1백94명으로 4배가늘었고 2자녀이하 단산가정도 27%에서 47%로 크게증가했다.

文敎·文公部등 職制개편 部處

1월10일께 대규모人事

保社·遞信·총무처·國稅廳포함

離任 自由中國대사 全대통령, 勳章수여

全斗煥대통령은 27일하오 청와대에서 丁懋時駐韓 自由중국대사의 離任예방을 받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사진〉

정부는 문교, 문공, 국세청등 일부部處의 職制가 개편됨에따라 내년1월중 實務級에대한 대대적인 人事를단행할 방침이다.

지난24일 국무회의에서 職制가 개정된부처는 문교, 문공, 국세청에도 보사부와 산하기관, 총무처, 체신부와 산하기관, 원호처등이다.

정부관계자는 27일『직제가개정된 부처에 대한 人事는 개정職制에대한 裁可가난뒤부터 인사대상자를 선정, 개정직제가 발효되는 내년1월10일을 전후해서 各部處별로 단행될것으로 안다』고말했다.

이번 인사가 마무리되면 지난해 있었던 정부기구축소개편결과 발생한 剩餘人力인 研究官의 고위공무원이 모두 소화될 전망이다.

개정직제는 대부분 部處別 또는 전체공무원 定員범위내에서 조직이나 人員을 늘리지는 않는 원칙아래 조정됐다.

총무처의 경우 공무원年金관리업무 전부를 공무원年金관리公團으로 이관함에 따라 厚生局의 給與課와 관리과를 폐지, 그人員을 公團으로 넘기고 총무처의 운영과 업무를 후생국으로 이관하는한편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업무를 맡게될 기구를 감사담당관실에 두기위해 1개課를 신설함으로써 定員 1백27명(4급2, 5급6, 6급9, 7급8, 고용직1백8명)을 감축키로했다.

또 정부청사관리소의 직제가 개정됨에따라 정부종합청사관리는 관리1과에서, 果川청사관리는 관리2과에서 맡게 됐고 이와함께 6급 2명을 포함, 정원36명이 감축되게 됐다.

체신부의 경우 전파관리국업무에 통신·방송위성에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중앙통신지원국의 지원계획관과 1개分局을 폐지하는한편 공무원定員의 60명을 감축키로하는등 지방체신관서와 電波관서, 郵政연구소, 체신부換金관리사무소의 일부 직제가 바뀌게 된다.

보사부의경우 마약사범의 증가를 감시하는데 필요한人力의 확보를 위해정원8명을 증원하고 국립병원과 국립검역소,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의 회복지연수원, 국립사회 직제를 개정, 5, 6급을 비롯, 1백70명을 증원키로 했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27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在스페인僑民일동 8萬페세타
新豊商工(株) 60만원
(株)新進商事 60만원
南松産業(株) 50만원
又醒開發(株) 20만원

◀在스페인교민一同=스페인貨8만4천1백30페세타【한국일보스페인지국장겸 교민회장 金濟元씨=1만페세타, 김일홍씨(교민회부회장)=5천〃, 어수일씨(〃)=5천〃, 이영우씨(〃)=5천〃, 이경연씨(총무)=5천〃, 김태명씨(태권도장경영)=5천〃, 홍영만씨(〃)=5천〃, 한성수씨(〃)=2천〃, 장화선씨(〃)=2천〃, 이영기씨(〃)=2천〃, 김의열씨(〃)=2천〃, 박규환씨(〃)=2천〃, 김종섭씨(교민회고문)=5천〃, 이영씨(〃)=5천〃, 전영태씨(〃)=5천〃, 최원철씨(〃)=5천〃, 김홍수씨(태권도친목회부회장)=3천〃, 교민야유회모금액=1만1천1백30〃【스페인지국접수】
◀新豊商工(株)任職員一同=60만원
◀(株)新進商事임직원一同=60만원
◀南松産業(株) 대표이사 李康源사장외 임직원一同=50만원
◀又醒開發(株) 임직원一同=20만원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10만원
◀서울시축산기업종로구조합조합장 이종석씨외 조합원一同=20만9천4백85원
◀동마체육관 관장최준배씨외 관원一同=2만4천3백50원

◇金濟元씨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社告

20회 한국新人體育賞 수상자 오늘選定

未來를 짊어질 새 主役발굴 最優秀 1·奬勵賞2명 뽑아

한국일보·티켓스포츠社가 제정한 82년도 제20회 한국신인체육상 수상자가 오늘(28일)선정됩니다. 한국신인체육상은 미래의 한국스포츠를 짊어질참신하고 장래성있는 신인선수들을 발굴격려하기위해서 지난 63년제정되었으며, 역대 각종목의 수상자들은 한국스포츠의 빛나는 主役으로 성장, 활약해왔읍니다.

신인체육상은 최우수신인상(1명)과 장려상(남녀각1명)으로 구분, 82년도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신인선수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84LA올림픽·86아시안게임·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한국의 도약을 다짐하는 싯점이어서 본상의 의의는 더욱 크다 하겠읍니다.

82년도 신인체육상 심사는 한국일보·티켓스포츠체육부에서 추천한 13종목 15명의 남녀후보를 대상으로 실시, 심사위원9명의 의결로 영예의 수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상식은 내년1월14일 하오2시에 본사13층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82년도 신인체육상 후보 ▲육상=李美玉(여) ▲수영=方駿榮(남) ▲축구=曺敏國 ▲농구=俞敎學(남) 成貞兒(여) ▲배구=韓壯錫(남) ▲탁구=安宰亨(남) 尹璟美(여) ▲테니스=盧甲澤(남) ▲핸드볼=姜在源(남) ▲배드민턴=金鍊子(여) ▲복싱=李海正 ▲역도=金喆鉉 ▲레슬링=魯貝宣 ▲양궁=申貞順(여)

◇신인체육상 심사위원=金鍾烈(체육회고문) 金晟集(태릉선수촌장) 李容一(前KOC상임위원) 韓良順(연세대교수) 李桓世(스포츠과학연구소장) 朴喆斌(한국체육대학장) 崔宇榮(태릉선수촌강화위원) 韓佑澤(서울시교위체육과장) 趙東彪(일간스포츠논설위원)

한국일보社

社會漫評

年末年始가
너무 조용한것같구나…

地平線

여성의 사회적지위가올라감에 따라「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남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난8월 미국에서 발표된「성욕의 의학적고찰」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말했었다. 이미 일본에서는 결혼한 샐러리맨의 40%가 자주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63%는 남자도 부엌일을 도와야된다고 생각하고있다는 조사보고다.▼영국에서는 72%가 아침6시에서 8시30분까지에는 잠자리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있다. 특히 남자들은 3분의 2가 7시30분까지는 일어난다. 그러나 여자들은 절반이상이 남자보다 2시간까지 늦게 일어나고있다. 여자들이 단잠을 즐기고있을 때 남자들은 코피 한잔 끓여 마시고 허둥지둥 출근길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네 풍속과는 닮지도 않은 풍경이다.▼악당이나 열간이 남자들을 때려누이는「원더·우먼」이 미국의 만화에 탄생한것은 40년전이었다. 여참정권은 원더·우먼탄생 40년을 맞아 미국에서는 지난달 22일 40세이상의 여걸후 18명을 골라 원더·우먼상을 줬다. 대부분이 여권운동 지도자들이지만, 예를 들어 위스콘신州 에디·디어여사는 7천5백달러(5백62만원)의 상금으로 선거빚을 갚겠다고 말하고있다.▼딸이건 아들이건 아이를 한사람의시민으로 기르자면 돈과 정성이 든다. 76년 경제기획원의 계산에 의하면 양육비와 대학교육까지 끝내는 교육비가 25년동안 7백66만5천원이 든다고한다. 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보면 80년 현재 1천3백75만7천원이다. 이에 비해 근로자가 평생에 버는 돈은 1억1천8백74만원으로 계산된다.▼근로자가 평생에 버는돈은 보너스나 퇴직금을 뺀 78년도계산(西江大경제경영문제연구소)에 임금상승률을 곱한것이다. 근로자들은평생에 1억2천만원 못미치는 돈으로 먹고살며,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길러 교육까지 시켜야된다. 아이 하나를 사람으로 만드는데 소득의 10%이상 든다는 계산이다. 노후를 위해서 근로자들은 정신차려 저축하라고 저축추진중앙위는 경고하고있다.▼그러나 이렇게 평생을 바쳐 기르는「자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노인문제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일어나는것은 왜 그럴까? 산업화사회가 되면서 자식이 대를 잇는다는 생각은 무의미해 지고있다.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의 의미가 달라지는 세상이다. 더구나 지금은 원더·우먼의 시대가 돼가고있다. 아들을 기다리던부모가 태어난딸을 죽였다니(한국일보 26일자 11면보도) 어처구니없는 무지몽매의 비극이라 하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謹賀新年

희망의 새해를 맞아 교민여러분의 만복을 기원합니다.
금년도 여러 문제점으로 소매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불편드림을 사과드리오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분발, 노력해서 봉사하겠읍니다.

Broadway Fruit Market
야채도매상 곽덕렬올림
437 Calaw Ave.
☎ : 465-8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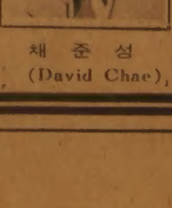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준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Gift shop: 취급품목-선물, 문방구, 카드, 장난감등, 작년매상 $230,000, 이윤 40%이상, 바쁜 쇼핑몰안에 있으며 일요일은 휴업. Try best offer!
◉Donuts shop: 주매상 $3,500, 리스10년+10년, 설비값만 $80,000이상 됨. 타 사업관계로 팔고저 함. 전망좋음. Asking $99,000
◉Variety Store: 주매상 $5,500, 윗층의 살림집도 Rent가능. Asking $55,000
◉Hamburger Shop: 주매상 $2,300~$2,500, Rent $700/mo. 리스6년+5년 Full basement, 40 Seats, 주인의 건강문제로 팔고저 함. $35,000 Downpayment! Asking $65,900
◉Tudk Shop: 주매상 $3,500 Rent $450/mo. 리스2년+5년. 짧은시간 높은이윤. Asking $69,900
◉Tuck Shop: 주매상 $5,000이상. Rent $750/mo. 리스5년+5년 짧은시간 Asking $109,000.
★위의 두 Tuck Shop은 같은 3동의 고층아파트속에 있으며 두 가게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두 가족에 아주 적합함.
◉Supermarket: 주매상 $30,000, 리스7년+10년. Store size 8,700s.f.+7,000s.f.의 지하실, 좋은장비, 경쟁이 없으며 아주좋은 동네의 고층아파트를 속에 있음. 앞으로도 6동의 고층아파트와 6동의 고층사무실이 더 들어설 계획임. 주인 은퇴함. 좋은 전망 기대됨. Asking $299,900

★타 사업체나 주택에 관하여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메아리

顔面沒收

최근길 택시속에서 퀴즈 방송을 들었다.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이 겨루는 프로였다.

차를 탔을때 프로는 상당히 진행된듯했고, 사회자는 고2남학생에게 막 문제를 내고있었다.얼핏들은 문제라 말할까지 정확치는 않으나 대강 이런 투였다.

『다음문제-。얼굴을 낯이라고 하죠。그런데 낯이 없다, 볼 낯이 없다, 이런 경우를 다른말로 뭐라고 합니까?』

처음듣기에는 문제가 좀 막연한듯 했다。고교생역시 默默不答。사회자는 설명을 곁들였다。

『정답은 漢字語입니다。唐나라때 楊貴妃의 故事가있죠。楊貴妃를 읊은 詩중에 이말이 나옵니다』

한참만에 대답이 들렸다。

『안면몰수-』

아닙니다-라는 사회자의 판정이 나기 전에, 운전기사가 킥킥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顔面沒收도 漢字語라면 漢字語다。그러나 그 학생 사회의 隱語가 楊貴妃에가 닿을리는 없다。정답이 漢字語 라는 힌트가 없었다면 「쪽 팔렸다」는 진짜 隱語가 튀어 나왔을지도 모른다。

사회자의 정답 풀이는 이러 했다。

『정답은 無顔, 無色입니다。詩에는 無顔色이라 나오죠』

詩人의 이름이나, 詩題는 밝히지 않고 넘어 갔다。

아마 사회자가 말한 詩는 白居易(樂天·772~846)의 長詩「長恨歌」일 터이다。漢文사전에도 無顔色의 典據로 그 詩句를 인용하고 있다。

그 귀절은 詩의 첫머리께, 楊貴妃의 자태를 읊은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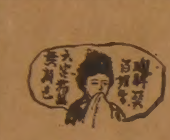
『回眸一笑百媚生 六宮粉黛無顔色』

(눈동자를 돌려 한번 웃으매 온갖 교태가 생기고/ 온 궁안의 화장한 미녀들은 빛을 잃는다)

「무안하다」「무색하다」는 말의 典據를 이런詩句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아야 할지는 의문이다。고2 학생의 상식으로 「長恨歌」를 요구하는 것도 좀 억지스럽다。퀴즈의 출제나 그 힌트가 썩 잘된 것이라고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故事를 말하고 漢詩를 힌트로 준 퀴즈에서 「안면몰수」란 말이 튀겨져 나오는 言語感覺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듯 싶다。

시험삼아 그 학생이 배웠을 고1의 漢文교과서 「漢文I」을 펴보니 꽤나 어려운 「古典」 詩句가 줄을 잇고 있다。敎育過程의 설명인즉 교육용 기초漢字 1천8백자중 9백자는 중학교에서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고등학교에서 배울 9백자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재를 고른 것이라고 한다。



金昌悅
<編輯委員>

고1에서 이만한 漢字·漢文을 제대로 익혔으면 적어도 「안면몰수」라는 투의 문자는 입밖에 내지를 않을터인데, 역시 「漢文混用」「한글전용」의 다툼을 넘어서, 初·中·高의 우리말교육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의 교과서는 그첫장에서 왜 漢字·漢文을 배워야하는지를 밝히고 있다。그 첫째는 國語生活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둘째는 문화전통의 계승·발전을위하여, 세째는 동양의 古典문화 이해를위하여-등이다。

이세가지 까닭에 모두 수긍이 간다。그러나 첫번째 「國語生活」이 漢字·漢文을 알아야할 가장큰 까닭이며, 그비중이 8~9할은 차지하지 않을까 한다。

漢字·漢文의 상식을 떠나서는 우리말의 語感,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말의 발음조차 제대로 할수가 없음을, 中·高또래 애들을 키우는 어버이의 체험으로 절감하던 참이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는 漢文교과가 없다시피 하던 시절에 학교를 다닌 축이다。그랏만은 아니지만 이따금 誤字를 써내 校閱部 신세를 지고, 「안면몰수」를 당하기도 한다。그런 주제에 내 후배들-어엿하게 中·高 6년동안 漢文을 배우고, 학력고사를 쳤다하면 3백점이상을 받는 후배들의 漢字·漢文 상식을 걱정한다。漢字와 漢文, 그보다는 「아-우리말…」의 自嘲이 없지않다。

◇정부는 27일 경제기획원에서 金埈成부총리(中)주재로 인구정책심의위를열고 인구증가억제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人口정책審議委, 公聽會열기로

해묵은 論爭… 家族法개정 年初엔 結論낸다

유교적 전통의 봉건적관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풍조가 살아있다。사회적 관습만 그런것이 아니라 법으로도 남녀를 차별하고있는곳이 우리나라다。장성한 누나가 있어도 어린 남동생이 호주가 되도록하고 있는 것이나 출가한 여자는 남자의 절반밖에 상속을 받을수 없게 하고 있는 것, 남자는 8촌까지 친족으로 인정해주면서도 여자는 4촌까지밖에 인정하지 않는것 등이 모두 법상의 차별이다。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앞에 남녀가 유별한게 우리현실이다。

남자를 우월하게보고 여자를 은연중 멸시하는 이런 사회적풍토가 정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무차별적이고 평등한 수평적 인간관계를 토대로해서 발전하는 민주적 시민의식의 발달을 저해하는 암적요소로 되고있지만 우리경우는 그보다 당장급한것이 인구문제다。다섯명, 여섯명씩 자녀를 두고도 아들이없기 때문에 출산을계속하는 부모들을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수있는것은 우리 사회의 男兒選好사상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다。「1가정2자녀」시책이 아무리 강력하게 추진되더라도 이뿌리 깊은 男兒選好사상이 약화되지않는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녀를 차별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 관습을 개정하는 것을 인구대책의 핵심과제로 삼고있다。27일 열린 인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金埈成부총리)에서도 가족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란됐다。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제도를 고치고 법상 친족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각부처 장관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확실한결론은 내지 못했다。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보면 장관들 자신이 뿌리 깊은전통적 사고들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있을것 같다。호주제를 그대로 두었을때의 이해득실이 무엇이고 이것을 폐지했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에대한 세밀한 토의는 이날 없었다。

상속제도와 친족범위조정 문제도 마찬가지。그냥 관습과 전통이 중시돼야 하고 『현실적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신중히』라는 이유를 내세워 또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다。

지난해에도 연말이 다돼서 열린 인구정책심의위원회가 똑같은 방식으로 어물쩡 넘기고 말았었다。이번 회의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①신년초에 가부간 결론을 내겠다는것 ②정부 각부처와 정당, 유관사회단체간에 협의를 광범하게 해보겠다는 것 ③결론 내기 전에 공청회를 하겠다는것을 결의 했다는 점이다。지난해에 똑같은회의에서 똑같은 문제를 검토하고서도 왜 1년동안 협의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치밀한 사전검토와 분명한 소신도 없이 회의만 자주 연다고 해결될 문제가아니다。

남녀차별을 부득이 할수밖에 없었다거나 앞으로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대도표명이 있어야겠다。가족법 문제때문에 인구대책에 포함된 다른 문제들을 까지 질질 끌면서 해결을 못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는▲장인장모도 의료보험 피부양자 속에 포함시키는문제▲출가한 여자공무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여성근로자가 2명의 자녀를 출산할때 까지는 6개월~1년간의 育兒휴직기간을 주는문제등 주로 남녀차별을없애는데 관한 것이며 이밖에▲3자녀이상출산한 가구에대해 주민세를 추가 부담시키는문제▲3자녀이상 출산시 의료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문제▲3자녀이상 가정에는 공공주택분양을 제한하는 문제등이 검토됐다。

育兒휴직制, 해당部署서 難色

결혼女공무원 家族수당支給엔 合意

이중에서 결론을 낸것은 출가한 여자공무원이 형제자매가 없을때는 그직계존속에대해 내년1월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것 뿐이다。나머지문제는『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검토』해서 내년초에 결론을내기로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중에서 시행되면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구애됨이 없이 마음놓고 직장에 다닐수있는 법적보장을받게돼 여성들의 취업제한이 크게 완화되게된다。이 문제의 소관부처인 노동부는 육아휴직제가 실시될 경우『기업들에 과중한 부담을 주게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있는데 좀더 시야를 넓혀서 득실을 따져볼 문제라고 하겠다。

3자녀 이상 가정에대해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더 받고 공공주택분양을 제한(84년1월부터 시행계획)하는것은 응징적·처벌적방법으로서 소극적인 인구대책이라 할 수있다。이에반해 가족법을 개정해서 남녀 차별을 없애고 여성들의 취업상 제약·규제·제한을 없애주는 것은 적극적인 인구대책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호응도 얻기 쉽다。

정부는 오는 88년에 한쌍의 부부가 평균 2명의 자녀만 낳는 이른바 代替出産水準을 달성하고 오는 2천50년에가서 인구증가율이 0%, 다시말해서 인구증가가 없거나 오히려줄어드는 停止人口수준에 도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있다。이렇게 할경우에도 오는 90년의 인구가 4천4백26만1천명이 되며 2천년에 5천만명을 넘고 인구증가가 정지되는 2천50년에 가서 6천1백31만명이 된다는 예측이다。

이 6천1백31만명이 우리나라의 균형인구가 되는 셈이다。땅은 좁고 자원은 없는데 인구만 계속증가하면 경제발전이 어렵고실업자만 늘어나게될 가능성이 많다。과실의 크기는 일정한데 나누어먹을사람만 많아지게되면 결국모두가 가난해 질수밖에없다。『산입에 거미줄 치겠냐』는 말도있고『사람마다 제먹을것은 타고난다』는 말도 없지않지만 아직도한참 발전을해야하는 개발도상의 국민경제에 과중한 인구증가가 부담이되는것은 어쩔수없는 사실이라고 할수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연구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국민 모두가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정부도 낡은 사고관습을 타파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은 좀더 충격적인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남녀차별은 사회적 불평등의 표본이다。【朴載기자】

◇눈밭에 빠진 버스 시카고로 가는 버스 한대가 25일 덴버터미널에 도착한후 눈밭에 빠져 움직이지를 못하자 승객들이 버스를 밀고있다。【덴버25日UPI聯合=特約】

35년앙숙 印·파키스탄 解氷은 오는가

頂上회담이어 共同委설치 假調印

軍備경쟁凍結「캐시미르」現狀 유지

지난 35년간 3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적대관계로 일관해온 인도와 파키스탄이 평화를 향해 접근하고있다。

양국 대표들은 지난23일부터 이틀간 뉴델리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쌍무문제를 협의하기위한 外相급 공동위원회 설치에관한 협정에 가조인하는 한편 복역중인 상대국 전쟁포로명단을 일부 공개했다。

정식협정은 내년3월초 뉴델리에서 있을 비동맹정상회담때 야쿠브·칸 파키스탄외상과 나라시마·라오 인도외상간에 최종적으로 체결될예정이다。

이 공동위원회는 경제 무역 산업 교육 보건 문화 기술정보등 양국간의 관계개선, 더 나아가 평화정착을위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양국의 공동위원회설치문제는 지난11월1일 지아·울·하크 파키스탄대통령이 뉴델리를 방문하고 인디라·간디 인도수상과 90분간 회담을가진후 그계획이 발표됐었다。

이번에 발표된 전쟁포로는 인도인 2백32명, 파키스탄인 25명인데 현재양국에서 복역중인 전쟁포로의 숫자는 모두5백명에 달하는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71년의 제3차 인도·파키스탄전쟁의 희생자들로서 이전쟁의 결과 파키스탄은 동부지역을 잃었고 이지역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47년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각각 독립을 쟁취한후 종교와 국토문제등으로 계속 앙숙관계를 지속해왔으며 48년과 65년에도 한차례씩 전쟁을 치렀다。

지난11월 지아·울·하크가 인도를 방문하기전까지만 해도 양국간의 적대관계와무기경쟁은 날카롭게 부딪쳤었다。

지난해 파키스탄이 미국에서 F16전투기 40대를 비롯한 총30억2천만달러어치의 무기구입계획을 발표하자 인도는 프랑스로부터 미라지機 40대구매 협정에 조인하는등 유럽과 소련을 무기구입源으로 확보했다。

무기경쟁뿐 아니라 외교정책면에서도 양국은 서로대립했다。인도가 과거 소련과 동맹관계를 수립한반면 파키스탄은 중공과 동맹을 맺고 親美정책을 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때문에 인도는 지금도 파키스탄이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우려하고있다。그러나 파키스탄은 외국군사기지제공을 거부하는 비동맹외교정책을 준수하기 때문에 인도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11월1일 뉴델리에서열렸던 인도·파키스탄 정상회담때 파안대소하고있는 인디라·간디(右)와 지아·울·하크。양국은 이 정상회담을 깃점으로 오랜 앙숙사이에서 선린관계를 향해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현재 양국간에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는 문제로 캐시미르의 영토분쟁이 있으나 양국공동위원회는 이 문제를 건드리지않고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략요충지인 캐시미르를 놓고 두차례 전쟁을 했고 인도는 아직도 파키스탄이 캐시미르의 일부를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현재 캐시미르의 3분의2는 인도가, 나머지는 파키스탄이 나눠갖고있는데 이지역은 한쪽으로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고있고 또한쪽은 중공과 접경을이루어 어느쪽에서나 놓칠수 없는 전략적 요지이다。

예상되는 한가지 해결책은 캐시미르의 현상유지를 양국이 인정하고 관계개선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이지역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이기때문에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와 충돌을 빚을 불씨는계속 남게되는 셈이다。

양국공동위원회의 설치와 더불어 거론되는 문제로 인도측이 평화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할 의사를 비치고있는데 비해 파키스탄은 불가침조약까지 덧붙이려 하고있다。

파키스탄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평화공세를 펴는이유는 지난 10월 지아대통령의 北京방문연설에서 찾아볼수 있다。

지아대통령은 당시『파키스탄은 어느모로보나 인도의 경쟁상대가 아니므로 인도의 미라지機구입을반대않겠다』고 현실적인입장을피력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평화를 향해 한발짝을 내딛게된데는 최근 아시아대륙에 불어온는 해빙무드가 하나의 배경이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中蘇화해로 일컬어지는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재정립움직임은 주변국가들에도 이에 상응하는 국제외교관계재정립의 필요성을 일깨워준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오랜군비경쟁에서 비롯된 경제적압박으로부터 돌파구의 발전이라는 국내 정치적 필요에도 이해를 함께 하고있는 것같다。【朴來富기자】

키스한번에 壽命18초 단축

印醫療회보, 콧수염男子는 더위험

키스한번 할때마다 수명이 18초씩 단축되며 콧수염을기른 남자와 키스하는 여성들은 특히 심장활동에 치명적부담을 안게된다는 보고가 인도에서 공개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고。

이같은 사실은 현재 인도남부 벵갈로에서 열리고있는 제37차 인도치과협회의를 기념하기위해 발간된 의료회보의 기사로 알려진것。

키스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충격적인 보도는 극도로 민감한 청진기로진단한결과에 근거를 둔것인데 키스를하면 심장이 평상시보다 활동이 격해지며 입체의 각기관중 입술처럼 세균에 민감한 부분도 없다고。

이기사는 이같은 근거에서 키스를『위험한 쾌락』으로 부르고있다。【벵갈로(인도)=UPI】

海外토픽

濠洲대륙횡단 順調

★太陽力승용차 時速25㎞로

호주의 모험가인 한스·솔스트럽씨와 자동차경주선수인 래리·퍼킨스씨는 태양력승용차로 사상처음 호주대륙을 횡단하기위한 1개월일정의 일부를 순조롭게 계속하고 있다고。

총연장 4천㎞의 호주대륙횡단일주에 도전하고있는 솔스트럽씨와 퍼킨스씨가 타고있는 태양력승용차는 자전거바퀴에 욕조를얹고 꼭대기에 탁구대를 붙여놓은 모습을하고있는데 평균속도가 시속25㎞라고。【시드니=UPI】

시나이서 鄕愁달래

★11國평화군×머스트리심어

이스라엘이 최근 이집트에 반환한 시나이 사막에 크리스머스트리가 자라고 있다。

오색등이 번쩍이는 짙은녹색의 예루살렘 소나무 2그루는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위해 이 황량한 사막지역에 파견된 11개국 다국적평화감시단장병 2천명이 향수를달래기위해 두달전 부근 소나무숲에서 옮겨심은것。【엘고라(이집트)=UPI】

꽃으로 파리등退治

★썩는냄새풍겨유인사도잡아

곤충을 잡아먹는 꽃을 이용하여 파리를 퇴치할수 있을것이라고 인도 환경학자들이 최근 보고。

밤에도 꽃을 피워 파리등 곤충을 유인하여 사로 잡는 식물이 인도중부 마을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들을 집주변에서 자라게하면 자연스럽게 파리들을 없앨수 있을것이라는것。

인도 환경생물학교의 S다크왈레박사와 S·바트나가르박사가 「오늘의 과학」이란 잡지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로마툼·구타툼이라 불리는 이식물은 24시간 계속 꽃을 피우면서 분뇨썩는 냄새를 풍겨 파리 딱정벌레 개미등의 곤충을 아주 많이 유인한다는데 꽃 한송이가 1백60마리나 되는 많은 곤충을 사로잡는다。【뉴델리=UPI】

日 60개지역이 沈降현상

地下水 마구 파올려 해마다深化

일본 36개 현60개 지역에서 땅이 가라앉고 있는것으로 일본환경청의 최근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조사보고서에따르면 이들 60개 침강지역중 27개 지역에서 작년보다 침강률이 증가됐으며 지난 12개월동안 2㎝이상 침강된 총면적도 작년보다 47·5㎢증가한 6백98㎢에 달한다고。

환경청관리들은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위해 지하수를 파올리는것이 침강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도쿄·오오사까·나고야같은 대도시의 침강률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가나가와·지바·사이따마현같은 신개발지구의 침강률은 높아지고있다는것。【東京=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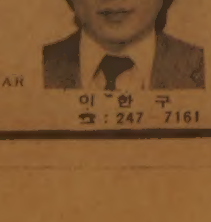
◇클라크氏의 가족들 사상최초로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바니·클라크씨의 부인 우나·로이·클라크여사가 25일 기자회견에서 유타대학 메디컬센터에 입원중인 남편이 가족과함께 크리스머스를보낸 얘기를 하고있다。뒤쪽에 딸 카렌양과 사위 짐·샤퍼씨가 서있다。【솔트레이크시티AP聯合=特約】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 한 구
☎ : 247-7161
1575 WESTON RD.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엣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Bathurst / Bloor / CHINA HOUSE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이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교실.
▫기초반·중급반·상급반
▫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韓服차림 많아졌다

名節아니라도 파티등에 즐겨입어

儉素하고 고유의 멋 나는 "正裝"

검소한 한복이 축제일에서민들까지 즐겨찾는 전통의상으로 제자리를 되찾아 가고있다. 상류사회의 외국인상대 파티장등 이나 대로 「한복」이 끊임없이 등장해온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비싸고 개작된 정체불명의 사이비 「한복」이 아니라 값싸고 고유의멋과격식을 제대로 살린 한복이 보다 많이 팔리고있는것. 따라서 구정, 추석등 고유명절때는물론이고 최근에는 부부동반의 송년회, 신년회등에도 진짜한복을 차려입은부인들이 압도적으로많고, 크리스마스이브의 거리에도 한복의 물결이 등장, 품위있는 축제분위기가 돋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우리국민이 자아를찾아가고 분수를알게된때문이라고 분석,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복전문가에 의하면 한복은 70년대말 요란하고 화려한 색상과 무늬에서 벗어나 안정된 색상과 전통미로 돌아가려는 경향을보이고 있다.

명절의 한복붐과함께 최근에는 댕기, 주머니, 노리개등 한복에 어울리는 액세서리까지 등장했고, 두루마기에 고무신까지 착용하는「정장」한복의 경향도 크게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한 의상전문가는 한복의 이같은 큰 유행에대해『한복이 일상의 의복으로는 정착되기 어렵겠지만 명절의 축제의상으로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명절 한복의 이같은 큰유행은전통차(茶)의 부활움직임과함께 시민들의 생활감각이 전통에 대한 향수를 느낄만큼 여유가 있게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아파트 거주주민들이 명절이면 특히 한복을 좋아하는 것은 그같은 감성의 발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수년간 한복의수요가 급증하자 종전노파들의「삯바느질」 철식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한복제조업도, 기업화, 공업화의 추세를보이고있다. 서울城北區 東仙洞의 신흥사입구와 서울鍾路3街일대에는「고전의상실」의 간판을건 한복메이커들이 자리잡게되었고이들「고전의상실」에서는 남녀한복은 물론 두루마기, 댕기, 주머니등 한복에 필요한 장신구까지도 취급하고있다.

또 한복에맞는고무신을 인체역학적으로개조, 가죽으로 굽을 대서 1만5천원정도에 팔기도 한다.

대형 한복가게는 공장을차려놓고 30여명의 바느질하는 사람을 둘정도로 기업화 했다.

색상이나 무늬의 안정도 최근들어 두드러지는 경향으로 의상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는데 서울城北區東仙洞 신흥사입구의 S고전의상실 주인 鄭모씨 (51·여) 는『4년전에 가게를 처음열었을때는 금박치마, 색동치마, 홍배무늬등이 박힌 요란한 옷이 많이 팔렸으나 올해는 금박도 줄고 색상이 점잖고 고상하게 유행하였다. 또 젊은이들도 간간이 두루마기를 찾고있어 전통한복의 모습을 찾아가는것같다』고 전했다.

한복의 경향이 점잖아지는 것은 東大門광장시장의 상인들도 지적하고 있다.

鍾路5가 광장시장2층 한복 주단부의 D상회 주인은『요즘은 회장저고리가 줄고 단색치마저고리에 수놓은 공단이 유행한다』며 요즘의한복을 말했다.

또 가끔 젊은 처녀들이 댕기를 해달라고도 한다고 이상인들은 밝혔다.

또 작년겨울부터 보급된전통매듭의 노리개가 1개에5백원에서 4천원까지 팔리고있다. 東大門지하상가에서 매듭을팔고있는 權英心양 (19) 은『하루에 2천원하는 나비무늬의 전통노리개를 20개정도 팔고있다』면서『그것도 나이든분들만 사가고 젊은사람들은 대부분 전통매듭하는 방법을배워 직접 만들어쓰니까 매듭의 보급률은 대단하며 구두가 줄고 고무신을 찾는것도 새경향.

鍾路2街 신신백화점에서 H한복연구소를 하는 權周玉씨 (50) 는『2천5백원하는 고무신이 꾸준히 팔린다』고 말했다.

남성들의 한복차림은 여성에 비하면 훨씬 덜한편이지만 최근들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결혼때 사위의 한복한벌씩을 해주는것도 최근들어「장모의 선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있다고 혼수품상인들은 지적하고있다.

한편 의상전문가들은 한복의 이같은 큰 유행에비해 한복을 입는법 또는 관리하는법에대한 교육은 크게미치지 못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저고리 동정을 갈아대는법이나 바지의대님매는법 옷고름매는법등을 올바로알아 모처럼의 한복붐이 생활속에바른게 정착되어야 할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品位있는 傳統의 美 값싸고 격식을 제대로 갖춘 정통 한복이 시민생활속에 뿌리를 내려가고있다.

상습賭博團 11명적발

9천만원 오가 現場덮쳐 돈뜯은 공갈犯 셋拘束

大邱

【大邱】대구남부 경찰서는 27일 9천여만원상당의 포커판을벌인 상습도박단 11명을 적발, 이가운데 鄭永英씨 (大邱市西區内唐洞 984)를상습도박혐의로구속하고 달아난 禹永煥씨 (35·大邱市南區大明洞2253) 등10명을같은 혐의로입건하거나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박현장을덮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백35만원을 갈취한공갈범 韓鍾吉씨 (26·大邱市壽城區 泛魚洞120의1) 등 3명을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등11명은 지난14일하오 4시부터15일 새벽까지 대구시中區 太平路청원장여관 317호실에서 포커판을 벌여 1회에1만~2만원씩 모두 1백50차례에 걸쳐 3백여만원의판돈을놓고 도박을한것을비롯, 지난5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시내 뉴대구호텔, 동명여관등 호텔과 여관을 옮겨다니면서 40여회에걸쳐 모두 9천여만원상당의 상습도박을 해온혐의를 받고있다.

또韓씨등 공갈범일당은 이들이 상습도박을 하는것을알고 지난15일 새벽0시30분께 대구시 中區 太平路청원장여관도박현장을 덮쳐 흉기로위협하고 판돈현금 1백5만원과 10만원권 가계수표 3장등 모두 1백35만원을 갈취한혐의다. 【邱】

文敎部 방침

등록금이 財源인 校內장학금 無償서 貸與로 전환

문교부는 27일 등록금을 재원으로한 교내장학금의 지급방법을 현행 무상에서 대여제도로 전환시켜 수혜학생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등록금감면혜택으로 가장많은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해온 교내장학금의 지급방법을 현재의 무상에서 점차대여방식으로 바꿔 나감으로써 장학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재원으로 다시 수혜학생의 폭을 늘려 나갈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한편 문교부가 집계한 금년 한해동안의 장학금 총지급액은 1천28억원으로 집계돼 전체학생의 68·7%인 35만9천8백60명이 혜택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학금중 89%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을 재원으로한 교내장학금이고 나머지11%만이 장학법인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외장학금으로 집계됐으며 교내장학금중 무상이 85·7% 근로가 7·8% 대여가 6·5%로 각각 나타났다.

醫保진료酬價 인상

새해부터 醫院級15%·2次진료기관5%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가 새해부터 오른다.

보사부는 27일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산정에 적용되는 보호수가 기준을 인상키로 결정,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의료보호지정기관에 적용토록 했다.

이 개정고시에 의하면 의원급 1차진료기관의 수가는 82년 하루 1천40원을 15·3%인상, 1천2백원으로 올랐으며 2차진료기관 수가중 약가는 올해처럼 보험약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진료수가는 현행 의료보험수가의 70%에서 75%수준으로 5%인상 적용된다.

한편 전국의 의료보호대상자는 현재 3백72만8천여명으로 정부는 보호대상자를 더이상 늘리지않을 방침이다.

聖誕연휴 이틀동안 20萬명 관광지찾아

성탄절과일요일이연휴였던 지난25, 26일 양일간 전국에서 20만여명이 온천등 휴양지를 찾아 세모의 연휴를 즐겼다.

白岩, 釜谷, 儒城등 온천장에는 가족을 동반한 오너드라이버들로 붐볐지만 예년과 같이 대형버스를 대절한 행락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慶州 고적지와 보문단지등에도 5만여명이 몰렸으나 대부분 당일로 돌아가 고 호텔객실은 50%정도가 비어있었다.

한편 한라산과 설악산에도 겨울등반객들이 몰려 설경을 즐겼으나 숙박시설은 남아돌았다.

중앙기상대는 28, 29일에는 예년보다 1~2도 정도가 높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30일에는 전국적으로 흐리고 서울·경기지방에는 아침한때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술집接待婦 피살

여관同宿 40代남자 수배

26일상오10시께 서울城東區上往十里洞263의8 경일여관 (주인 文漢姬·56·여) 7호실에서 黃順姬양 (22·접대부·서울中區新堂5洞56의1)이 입고있던 한복저고리 옷고름으로 목이 졸린채숨져 있는것을 여관주인 文씨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文씨에 의하면 숨진黃양은 이날새벽 4시30분께 친숙한사이로 보이는 40대중반의남자와 함께 술에취한채 여관에들어와『친구결혼식에 가야하니 아침10시에 깨워달라』며 7호실에 투숙했는데 文씨가 상오10시가돼 방에가보니 방문이 열려있고 黃양이 하의가 벗겨진채 숨져 이불로 덮여 있었다는것.

黃양은 2년전부터 경일여관에서 2백여m 떨어진 모맥주홀에서 접대부로 일해왔다.

洞長직인 위조 土地사기 구속

【慶州】경북 慶州경찰서는 27일 동장의 직인과 접수인, 입부인등을 위조, 남의 땅을 이전등기한 강인수씨 (50·釜山市西區大新洞3가70)를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동행사, 공정증서 부실기재, 사기미수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김영관씨 (25·釜山市中區富平洞4가)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중순 길에서 주은 김두봉씨 (27·부산시)의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慶州市皇南洞으로 바꾸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후 皇南洞장의 직인등을 위조, 지난21일 김두선씨 (慶州市城乾洞560의4) 소유 대지 2백21평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소개업자 정엄대씨 (47·慶州市東部洞2의9) 에게 1천5백만원에 저당 하려다, 정씨가 주민등록증의 나이가 틀린것을 발견,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위조임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입건된 김씨등은 강씨의 사기행위에 바람잡이 노릇을한 혐의이다.【慶】

슈퍼마킷에 強盜

浦項 高校生 피살·어머니 重傷

【大邱】25일밤 10시50분께 浦項市 海島2洞 85의24 한아름수퍼마케트 (주인韓一國·42) 에 20대 괴한이 침입, 가게를 보고있던 韓씨의 큰아들 昌奎군 (16·浦項高 1년)을 과도로 찔러죽이고 韓씨의 부인 車鐘伊씨 (39) 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수퍼마킷트의 문을 닫기직전에25세가량된 신사복차림의 청년1명이 들어와 사과 1개를 사고 車씨에게 과도를 빌어 사과를 깎다가 車씨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車씨와 함께 가게를 보고있던 昌奎군이 괴한에게 덤벼들자 괴한은 昌奎군의 가슴을 찔러 쓰러뜨린뒤 옆에 서있던 車씨의 배를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났다.【邱】

브로커등 셋拘束

光州, 택시매매용診斷書위조사건

【光州】속보=개인택시 매매용 허위진단서 발급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수사과는 27일 광주 적십자 병원 수위 吳鍾煥씨 (48·光州市西區芳林1洞310)와 브로커 姜仁煥씨 (41·光州市牛山洞539의12) 등 3명을 허위진단서 작성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0일 개인택시 전남 1사5023호 차주겸 운전사인 林모씨 (58) 로부터 택시를 매매하는데 6개월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광주적십자 병원 정형외과 과장 柳在〇씨 (36·구속중) 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4명의 개인택시 운전사들로부터 1백45만원을 받아 허위진단서를 떼어준 柳과장에게 73만5천원을 주고 나머지를 나눠가졌다는것.【光】

過速트럭 信號대기 택시받아

승객등 3명死傷

【釜山】27일 새벽 2시30분께 부산시 德川洞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신호대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동래운수소속 부산7아2836호 트럭(운전사 이상범·28)이 신호대기중이던 제일교통소속 부산4허5421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 이종호씨 (35·南區門峴3洞311)가 숨지고 택시운전사 박수안씨 (30·釜山鎭區開琴3洞438) 와 승객 한문섭씨 (33)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釜】

安全점검 하다 鑛夫2명 壓死

【寧越】27일 상오 10시30분께 강원도 旌善郡南面武陵1里 강원산업무산광업소(대표 김유선) 무릉갱의 사갱경사입구로부터 1천1백m 지점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선산부 최돈지씨 (21)와 후산부 김근수씨 (38)가 천장에서 떨어진 3톤가량의 탄더미에깔려 현장에서 숨졌다.【春】

釜山 副市長에 李孝林씨 발령

내무부는 27일 부산부시장에 李孝林씨, 본부민방위 국장에 任仕彬씨를 전보발령하는등 이사관및 부이사관급9명에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내용 2면。

電柱옮기다 壓死

【長興】26일상오 11시께 전남長興郡 蓉山面上鉢里 용산동국민학교앞에서 전주 이설작업을하던 장흥전업사 공원 朴時雨씨 (23·長興郡長興邑中山里491) 가 전주가 넘어지는바람에 중상을입고 전남대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光】

油槽車 다리서추락 운전사 불에타숨져

【大邱】27일상오5시50분께 경북 慶山郡 河陽邑南河1洞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대구8아3107호 유조트럭이 높이 10m의 다리아래로 떨어져 트럭운전사 김동욱씨 (30) 가 불에타 숨지고 유조차량이 전소됐다.【邱】

朝總聯系 재일동포 2백명 母國을찾아

재일동포 83신정모국방문단 일행 2백명이 27일 4편의 KAL기에 나누어타고 모국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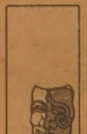
이번 방문단은 東京 大阪 名古屋등 6개지역의 조총련계 동포들로 오는 30일까지 浦項제철등지의 산업시찰과 慶州등지의 관광을 끝낸뒤 각자 고향에돌아가 친지를만나보게된다.

이날 귀국한 재일동포가운데 許德씨 (71·兵庫縣) 는『6세때 日本으로 건너간뒤 65년만에 처음 귀국했다』며 기쁜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기도했다.

暗行교사

校外생활지도 康晶熙씨

"그림자善導 12년… 社會가 관심을"



해마다 세밑이되면 청소년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골치를 앓게 마련이다. 평소에 무관심했던것을 속죄라도 하듯 지나칠만큼 관심을쏟고 잔소리를한다. 그러나 이같은 학부모들의 노심초사도 교외생활지도교사의 그것에는 비할바가 못된다.

서울永登浦女高 학생주임 康晶熙씨 (56·사진) 는 올해도 예년과다름없이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있다.

그는 습관적으로 밝은곳보다는으슥한 곳을, 조용한 곳보단 시끌버글한곳을 파고드는 야행성이다. 학생들을 유혹하는 손길이 많은 곳이 바로 그의 근무지가 되는것. 들뜬 학생들이 기웃거리는곳엔 그도함께 있어야한다.

각급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간 지난 20일부터 휴일날 하오에는 꼬박 그림자인생을 살고 있다. 그의 담당지역은 永登浦역전을 중심으로 永登浦시장과 주변 유흥가.

24일엔 하오4시부터 인파에 묻혀 부지런히 쏘다녔다. 다방, 전자오락실, 포장마차, 디스코클럽주변을 기웃거리고 학생들을 선도하자는 내용의 전단도 뿌렸다. 두발과 교복자율화이후 이일도 쉽지않다는게 그의 고백이다.

불량학생을 찾는 그의 눈은 더한층 피로를 느껴야했다. 학생이라는 심증이 가더라도 아니라고 잡아떼면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

건네주는 전단을 선전전단인줄알고 시민들이 뿌리칠땐『당신집엔 학생이 없느냐』는 고함이 금방 목구멍으로 넘어오려 하기도했다.

디스코클럽에선 신분증을 내밀어도 입구에서부터 입장이 제지당해 별수없이 추운 골목에서 밤12시넘도록 숨어있을수밖에 없었다.

크리스마스날도 하오4시부터 밤12시까지 永登浦일대를 헤맸다.

가족들과함께 지내라고 호소하는 자신은 정작 가족들에겐 케이크 하나만 사주고 때워 가슴이 아팠다.

교직생활29년동안 학생주임만 12년간을 맡아온 그는『의외로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눈에 띄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학생들이 두발·교복자율화등 외형상의 자율화를 내면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는것같다』면서도『청소년선도는 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질때 가능하다』고 당부하는걸 잊지않았다. 【方旼俊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전화번호변경안내

서울시내 다음 지역의 가입전화는 방포전신전화국에서 서초분국으로 수용변경됨과 동시 전화번호도 변경됩니다.

변경 대상 지역	변경일시
○방배 신동아아파트, 서초동 일부지역	1차82년12월30일11시
○서초, 방배, 남현, 사당동일부 (순환도로부근)	2차83년1월7일11시
○남현동전역, 사당동 일부지역	3차83년1월14일11시
○방배, 사당동 일부지역 (관악경찰서 부근)	4차83년1월21일11시
○방배, 사당동 일부지역	5차83년1월28일11시
○서초, 방배, 사당동 잔여지역	6차83년2월15일11시

※전화번호변경내역 ○대상지역의 599국은 582국으로, 591국은 583국으로, 590국은 584국으로 국번만변경되며 가입자번호는 변경없음 (단, 공번호 …48, …98번은 전화번호가변경됨) ○593, 592, 532, 533국은 582, 583, 584국으로분산수용되며 일부는 가입자번호도변경됨. 82년12월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장

賀正
한국식품점의 대명사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레이몬드 미용실
2491 LAKESHORE BLVD.
(레이크셔 × 로얄욕)
☎ 255-4745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쉘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템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896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광고문의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한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7학년 남학생 공부 도와주실 분
영어, 수학 위주.
전화 : 767-1702(오후 6시이후)

Smoke & Gift 가게 풀타임 캐쉬어 구함.
오전9시~오후5시, 2180 Yonge St, 3층
M & M Shoppes, Mr. or Mrs. Dharsee, 내방바람.

출퇴근 하시면서 3살 아이 봐주실분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6544 Mrs. 리

풀타임, 파트타임 남자헬퍼 구함.
전화 : 622-2643

Donut Shop Casher 구함.
학생환영(스카보로 지역)
전화: 497-4221 Mrs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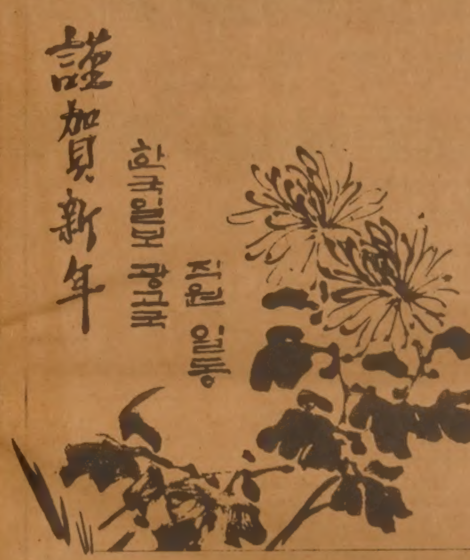
한식·일식·중식 겸한 요리사 3명 구함.
초봉 : $1,400 (일식·중식은 한국스타일 원함)
전화 : (403)252-2225 (캘가리)

입주하셔서 아이들(2명) 돌봐 주실분 구함.
752-1467(오후1시 이후)
빅토리아·팍×에그린톤 근방.

급히 아주머니 헬퍼 구함.
전화 : 532-1054 Mrs. 오

점심시간 Dish Washer구함.
오전 11시30분~오후 2시30분. 젊은부인 환영.
영어 못해도 무방함. 421-6016, 421-2258

시외 그로서리가게 메니저 구함.
Barrie 근처.
전화: 1-705-458-4326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칩(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외롭고 쓸쓸한 남자(담배 안핌) 결혼대상자로 토론토나 한국에 있는 30대 한국미혼여성을 찾습니다.
전화 : 653-3105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6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주인이 정년퇴직으로 구두방과 빌딩매매
또는 가게렌트도 합니다.
803 St.Clair Ave. W. 전화 : 654-1455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Montreal Trust Company Realtor.
플라자내에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는 투자가를 찾습니다.
다운페이: $250,000이상.
딴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읍니다.
당신에 스페샬 리스트 Dave Lal
전화: 275-5555

나니아가라폭포 근방의 개조된 호텔에 투자하실분.
파드너 쉽 가능.
최고의 투자임.
전화: 1-416-735-9930 John Psutka
주소: 30½ Niagara St. Welland L3C 4Z5

$107,000 Net plus, 년매상임. 11 스토아, 새로운 플라자
하이웨이가 만나는 지점이고 고층아파트 들어서고
매우 바쁜 거리임.
아스킹: 1,200,000, 25% 다운
Doris Burda 763-5555
R. Cholken Co., Ltd.

매매(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242-2630 Mr. Pak(밤10시30분 이후)

5일에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
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
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여자 룸 메이트 구함. 1 Bed-room
(베다스트와 에그린톤)
전화 : 782-9777 (오후5시반 이후)

Office space for rent
1500 Sq.Ft. 1736 Queen St. W. 불에 타지 않는
안전창고 100 Sq.Ft. 전화 : 960-1888

아파트 쉐브렛, 3Bd, Rm, ◉Albion & Weston에 있는
새아파트, ◉리스: 83년 8월까지.
전화: 488-2436(B), 745-0409(R)

1 Bed Rm, 아파트펜트(서브렛)
Don Mills 지역, 월 $311.00
전화 : 447-1785

방세 놓습니다. ◉여자분에 한함.
적당한 가격.
전화: 481-4330(저녁)

새로 꾸민 지하실 2 bdrm(거실, 부엌, 목욕탕)
세 놓습니다. Bathurst와 St.Clair 지역임, 월 $280
출입구 따로 있음. Mrs.채 Tel: 651-5388

방세 놓음(Victoria Pk. & Finch)
1Room(월 120불) 여자분에 한함.
전화: 497-4221 Mrs. 김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연락처 : (416)461-3363(H), 463-7423(B) 송영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 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21 (Alpaca Realty)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謹賀新年

서울식품

(동부·
서부·
해밀톤)

새해 福많이
받으십시오.

토론토한국총영사관

교민간의 경쟁과 상도의 ④

그 문제점과 처방·비젼

김철수 (토론토실업인)

〈지난호에서 계속〉

◆상도의와 감정

사실상 한인끼리의 상도의문제는 경쟁자 등장 자체보다 감정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강력히 말할 수 있다. 상도의문제는 상대방이 나에게 경쟁자로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쟁자를 만나 그 환경에 의하여 영향받아진 나의 감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며, 나의 감정을 조정할 수 없을 때, 내가 먼저 상도의에 어긋나는 욕설과 비난이 나오게 된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인들을 열거하면,

(1)동족의 도전: 다른 경쟁자들은 받아들이나 동족의 경쟁은 감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

(2)열등감: 자기사업에의 실력부족(위치, 재정력, 서비스, 가정문제…)은 열등감을 일으키며, 곧 감정으로 격화된다.

(3)성격: 외부에서 가격이나 기타 경쟁이 접근할 때 감정이 풍부한 우리들은 성급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

(4)속임수: 경쟁자와 적당히 타협을 본 후, 그 약속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속임을 당한 감정이 야기된다.

(5)인내: 설령 경쟁자가 약속을 어기었거나, 혹은 욕설을 퍼부을 때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인내의 부족은 곧 상호비난의 악환경을 조성한다.

감정은 금물이다. 사업적으로 당한 문제는 반드시 사업적 이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만약 당신 감정을 억누르고 긍정적사고로 경쟁자를 대하면 당신은 반드시 그 실망과 낭패를 극복하고, 엄청난 기적 가까운 새로운 도움과 위로를 체험케 될 것이다. 결코 당신의 경쟁자로 등장하여 당신의 사업에 치명적 타격을 준 그 동족은 결코 무정하지 않을 것이며, 같이 당신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으며, 이 교민사회가 당신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한 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가능성의 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겪은 체험을 말하고 있다. 바로 우리에게는 남다른 인정이 있다.

◆교민업체와의 상도의 (이민사회의 특성)

교민업체를 나무라지 말아야 하며, 기존업체들보다 부족한 것을 인내할 줄 아는 도움이 필요하다. 캐네디언 업체 같으면 비난하지 안는데 한국인 업체는 왜 그렇게 비난하는가?

오래전 나는 '인끼리 협력하여 투자하는 금융투자회사에서 돈을 빌려 쓴 일이 있다. 심히 어려운 가운데도 끝내 지불완료 했다. 하도 그것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필요해서 한번더 얻어 쓰려고 했다.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한국사람들 말아 많아서 이젠 LOAN 비지니를 안하겠다"고 하는 말은 들었다. 돈 필요할 땐 급해서 갖다 쓰면서 (신세지고 있으면서) 돈 갚을땐 "×××들 고리대금한다"고 떠들며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파트업하는 H씨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다.

한인에 의한 한인의 도움은 정말 불가능한가?

필자는 이 기회에 실망한 그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역사의 창조는 그러한 사고 없는 무책임한 말에 귀를 귀울이는 나약함에서 일어나 역사를 쥐는 사고와 신념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교민업체는 서로가 고객이며, 서로가 공급자이다. 같은 조건이면 교민업체를 밀어주어야 하며, 인내해야 한다. 또한 교민업체에는 보다나은 성의와 조건으로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

◆상도의

도의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예의라고 한다면 상도의란 비지니스를 위한, 즉 이권을 위한 경쟁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할 예의와 도리인 것이다. 우리가 사업의 행위를 현실화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상도의의 문제점을 다룰 수 있다.

(1)사회나 지역사회에 대한 상도의
(2)수요자(고객)에 대한 상도의
(3)경쟁자에 대한 상도의
(4)공급자에 대한 상도의
(5)교민업체에 대한 상도의(이민사회가 갖는 특성)

(1)사회나 지역사회에 대한 상도의

기업인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회, 혹은 지역사회이다. 이 사회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의 일부분을 사회를 위하여 쓰는 자세 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낯선 이민사회에의 깊은 참여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각종 스포츠·팀에의 지원이나 각종 모금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인들이 재료나 상품을 구매할 때 정식 공급라인을 선택치 않을 때 사회범죄를 지원하거나 양성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수요가 반드시 공급을 창조해 내기 때문이다.

(2)수요자(고객)에 대한 상도의

어떤 기업인들은 자기중심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은 수명이 길지 못하다. 물고기가 물 없이 존속할 수 없듯이 사업인이 고객없인 기업을 영위할 수 없다. 고객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가 문제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이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주기를 원한다. 바로 고객과 기업인의 관계는 바로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다. 고객이 상점으로부터 공정한 가격, 친절, 기쁜 분위기…등을 신뢰하고, 기업인이 자기 고객이 아무리 작은 물건을 사는 형편에 이를지라도 큰 고객인 것을 믿고 대할 때, 그 관계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위에 선 사업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3)경쟁자와의 상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경쟁을 인정하라. 가격경쟁이나 서비스 경쟁…등의 경쟁이 인간관계를 깨어서는 안된다.

우리 한인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사업과 인간관계를 구분하여 처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9년전 C씨와 다운타운에서 마주 쳐다보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사업상의 적수(경쟁자)로 만났다가 그 경쟁 속에서 깊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져, 사업의 동업자가 되었으나, 사업의 실패로 고난을 극복하면서 상호위로의 도움을 아끼지 않아 아직까지 깊은 인간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그것은 사업과 인간관계를 구분하는 이성 때문이며, 정확하고 확실한 책임감 때문이다.

신뢰한다는 뜻은 손해보기까지 참는 것이며, 이성이라는 것은 감정을 눌러야 하는 아픔이 있고, 진통이 있다.

상도의는 교포상점이나 교포 기존업체에 새로운 경쟁상점이나 경쟁업체가 등장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자를 맞아 어떻게 게임(경쟁)을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자를 기업의 실력(가격, 구매방법, 서비스, 영업시간…)을 통하여 대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를 아는 기업인인 것이다. 감정이나 욕심은 상도의를 깨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왜 원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 할수 없으나 우리끼리는 욕설을 퍼부어야 하는가? 기쁜 표정으로 인사하고, 사업은 실력발휘하여 경쟁할 수 있다. 고객 앞에서 상대 경쟁자를 욕해서는 안된다.

(4)공급자와의 상도의

필자는 한인사회의 상도의의 문제점중 공급자와의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공급자와의 관계는 바로 한인사회가 이곳 사회에서 사업으로 정착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다음 단계의 기업으로 도약하거나 후손들에게의 크나큰 형태 없는 자본의 축적에 절대적 영향력을 주고 있다.

우리들 속에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우리 핏속에 흐르는 피가 있다.

"외할미 떡도 커야 사먹는다", "1전 보고 십리 뛴다" 이 사고 방식은 혈육끼리는 물론이려니와 동포끼리도 초월한 기업이념이며, 1전의 이익을 위한 무서운 노력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사고 방식이 낳은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기존시장을 흐려놓은 장본인이 되었다. 구매가격의 인하를 위하여 이 도매상, 저 도매상 뛴 이유로 도매상끼리의 가격경쟁을 야기시켰으며, 조용한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다. 이것은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준 특혜를 간직할줄 알아야 하며, 그 특혜를 준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필자가 도매상할 때 경험한 것이다. 몇고객, 혹은 한인고객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 특혜를 이용하여 딴 도매상과의 흥정에 이용했다. 보다 나은 특혜 때문에 고객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도매상(경쟁자)에게 구체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공급자와의 사이에 상도의이다. 다른 공급처의 조건보다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혜택에 대하여 보답은 없을지라도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 혜택을 주려했던 공급자에 대한 배반이다.

당신이 아직 햇병아리 사업인인 것 같이 당신의 동족공급자도 아직 햇병아리 공급자이다. 기라성같은 원주민, 혹은 선배 이민자들의 공급자와 싸워야 할 당신 동족의 공급자는 원주민이나 다른 이민자들에게 배반당한 것이 아니라, 그 배반이 우리가 그토록 믿으려고 했던, 그래도 협력해 주지 않겠느냐고 믿었던 동포끼리 속에서 일어났을 때, 그 상처는 더욱 컸으며, 그 배반이 불고온 여파는 햇병아리로서는 감당치 못할 파도였던 것이다.

필자는 저주스러워 잊어버리려 했던 민족역사가 한스럽게 생각되어졌다. 구한말 동포끼리를 넘어선 정치적 권력투쟁은 자기의 이권(사업상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세(민씨일파에 의한 청국세력과 개화파에 의한 일본세력-기존도매상)를 지원함으로써 급기야는 자기 국가(동족의 도매상)마저 멸망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도 남북간에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지는 것같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피가 내 속에도 있으니 안타까우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정착자들이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 혹은 상질서가 있다. 하루아침에 새로운 정착자들에 의하여 이 사회의 상질서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그들로부터 주목을 면치 못한다. 우리는 조용히 내실을 굳혀야 한다.

둘째로, Credit을 형성치 못한다.

우리 한인들은 지불에 대한 Credit은 있을지 몰라도, 사업의 연륜을 쌓는 Credit은 없다. 그 이유가 바로 가격에 따라 유동하는 사업자세를 갖고 있다.

약속한 날에 약속한 수표를 틀림없이 막는 것도 중요한 Credit이다. 그러나 사업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비지니스의 규모까지도 마음 놓고 주어 쌓는 Credit는 더욱 중요하다.

Credit이라는 말은 쉽게 의리로 표현될 수 있다. 상도의가 사업인과 사업인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내지 의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이 면에서 부족하다. 가격 따라 유동하는 구매행위는 인간의리를 초월하며, 사업의 의리도 초월한다. 나에게 혜택을 준 공급처에게 다른 형태의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도리이다. 이곳 공급자들의 한인에 대한 이미지는 한 마디로 영리하다는 것이다. 진실로 우리가 지녀야할 것은 영리(Smart)한 것이 아니라, intelligent해야 한다. Smart한 것이 순간적이라면 intelligent한 것은 깊이와 내일이 있다.

우리 한인들은 오래 사귈만한 사업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필자가 과거에 상당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도움을 준 인간적 손길과 공급자들이 있다.

$1,000이 생기면 열개의 지불처를 앞에 놓고 고민고민하던 때다. 나의 수표를 받는데 누구나 주저하던 때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때여서 수표를 허구한 날 돌려보내곤 했다. 그로 인해 많은 시간을 법정과 변호사와 기타 대행업자들 앞에 출두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협력해준 손길과 공급처가 있다. 나는 결코 그들을 저버릴 수 없다. 그들이 한국인이든 인도인이든, 중국인이나 유태인이든 상관치 않는다. 그들이 나를 키워주었고, 지금도 나는 그들을 키워주고 있다. 나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큰 내일의 사업을 의논하고, 협력하고 있다. 필자는 Credit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지불, 즉 전투에서는 패배했으나 끝내는 지불을 완료하는, 혹은 꾸준한 사업을 지원해줌으로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Credit을 형성했다.

몇번이나 감사의 편지와 격려의 전화를 받았고, 그들이 새로운 Credit형성에 적극적 선봉지원자가 되었다. 필자는 나의 핏속으로 용해하는 생명력 있는 진리를 배웠다. 자기 양심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양심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역경과 고난들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조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를 육체와 영혼속에 체험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한 Credit보다 무(패배)에서 유를 창조한 Credit은 더욱 값진 것을 알았다.

세째로 동족업체를 키우지 못한다.

가격 따라 유동하는 구매자세는 동족을 초월한다. 동족의 공급자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결론이다.

나는 오래 전에 유태인 도매상에서 같은 유태인 고객을 대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다. 나는 50개에 1개를 계산대 밑으로 얻었는데 그 유태인 고객은 받을 생각도 않고, 이쪽은 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번 보았다. 그래서 하루는 그 유태인 사장에게 물어 보았다. 그 사람과의 사업관계는 10~15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순간 생각했다. 저런 사고를 갖고 있는 저 사람들이 나의 도매상에 와서 물건을 살 것인가 생각했더니 머리가 아찔했다. 아마 단 1명도 나의 도매상에 고객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금방 얻었다

◆언론의 역할

우리가 고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외국에 나오니 우리에게 상호불신 풍조가 있는 것을 새삼느끼며 교민의 증가에 따라 더욱 나타나고 있다. 개인개인이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것은 어떻게 말리겠는가? 그러나 교민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나아갈 길을 유도하는 언론은 그사명과 영향력이 크다. 남을 칭찬하는데는 실수하여도 괜찮으나 남의 잘못을 끄집거나 비난하는데에 잘못을 저지를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된다. 이피해를 누가 보상 하겠는가? 이피해에 대한 책임감없이 함부로 펜대를 움직일때 언론스스로가 감정과 상호 비난의 수라장을 스스로가 유도하는 것이며 사회론간의 책임을 면할길이 없다.

몇년전 L한인회장 파동때 L씨와 J씨는(현재 M신문의 발행인이며 당시 부회장) K신문의 공정치못한 편견의 희생물이었다고 자신들을 변호했다. 오늘 M신문의 탄생은 바로 그공정치 못한 한 신문에 대한 도전적 행위로써 언론의 공정성 때문에 M신문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창설동기를 M신문의 한이사로부터 들은적이 있다. 오늘 그 공정치 못하다고 남을 비난한 그 잘못을 스스로가 저질른 것을 필자는 지적코자 하며 이에 도전할 제5의 한인신문이 필자에 의해 필요하다면 억지가 되겠는가? J씨가 언론의 피해자였다고 자신을 변호한것 같이 필자도 언론의 피해자인 것이며 오늘 이 쓰라린 필자의 마음은 J씨만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 필자는 이기회를 빌어 언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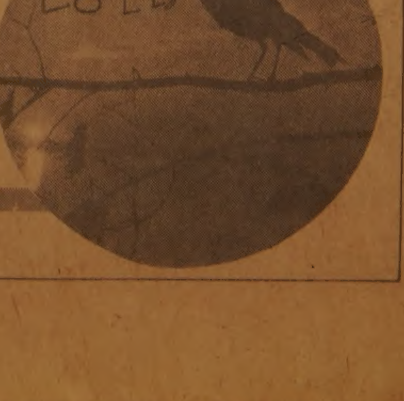
첫째, 긍정적 선풍을 교민사회에 불어넣어주기 원한다. 우리들은 모이면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잘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많은 말들에 이젠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난다. 신문만이라도 밝고 긍정적이며 남을 칭찬하는 기사로만 채워주기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또한 우리 한인사회에서 아무리 지탄 받아야 할 사람이라도, 그사람을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나에게 착하게 살려는 본능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환경이 때로는 인간을 변질시킨다. 이 환경은 저 사람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의 환경가운데에 있다면 그와같이 변질되어 질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특수한 환경을 이해해주고 인도하는 진실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한인사회에서 아무리 덕망이 있고 훌륭한 분일지라도, 아니 이글을 읽고있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부정적 측면에서보면 추하고 더럽고 모순투성이가 발견되어 질수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돌맹이를 들고 둘러온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중에 자신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예수님은 말했다. 정죄의 돌을 그녀에게 칠 만큼 깨끗한 행위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돌을 버리고 그녀로부터 떠났다. 예수님도 그녀에게 이르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늘 우리한인사회에 바로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힌 뿌리없는 사고와 철학을 가진 정죄의 돌을 든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은 인류최고의 긍정적 사고자이며 과연 순간과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역사와 영원에 참여한, 그리고 인류역사 아니 우주역사에 참여한 그분의 사고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수 밖에 없는 위대성을 가지셨고 시간을 항시 초월하는 진리일수밖에 없는 절대성이 그에게 있다. 오늘 이 서구사회는 그러한 사고가 문화학적, 역사학적으로 깔려있는 사회이다. 남을 헐뜯고 남에게의 관심보다 자기일과 자신과 자기가정에 충실한 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 뿌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언론인들은 대범해야 한다. 유년기의 교육이 학교와 부모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어른들의 교육과 발전은 바로 사회속의 언론을 통해서 이다. 전국민적 사상과 단합은 바로 언론을 통해서 유도되며 지도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이 교육이 인간개체와 단체와 국가전체에 이르는 개혁의 주역이 되고 있다. 한국적 현실속에서 범국민적 교육과 개혁의 첫장소는 학교이며, 둘째장소는 군이다. 모든 남성은 군에 복무해야 하며 남자가 가정과 사회의 주역이기 때문에 교육에 가장 큰 능률을 올릴 수 있는곳이 군이며, 명령적 군의 특수성 때문에 군을 통한 국민교육은 가장 효율을 올릴수 있다. 아무리 학교의 교육이 잘되어 있어,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 패기와 철학있는 젊은이들이 양성되었다할지라도 그들의 첫시험장인 군복무기간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배우거나 타협하거나 묵인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바로 군지도자들의 사회에 대한 숙정의 의지를 그들이 속해있는 군자체속으로 돌려야 한다. 그속에 엄청나고 절대적인 장차 이민족을 짊어진 민족의 일꾼과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셋째, 국민교육자 계몽을 통한 사상적정화와 국민적총화가 언론을 통해서이다. 이 언론의 실패와 좌절은 국민적좌절이며 민족적실패인 것이다. 즉 언론은 국민사상의 표현이며 최고의 지성이며 국민사상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사고와 같다. 이 언론이 역사성을 잃고 현실에만 억매어있고, 전체를 보는 시야를 망각하고 부분에만 머물러 있으며, 이성에 서지 못하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같이 물고뜯고 하거나 부정부패 불의와 타협되어지거나 그것들을 묵인할때, 그 어느 누가 저지른 잘못보다도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다. 지금 이 시점 교민간의 경쟁문제를 다루는 이 시점에서 언론은 대범해야 한다. 골목 골목에서 각 분야마다에서 교민끼리 터지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과정은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며 인류역사의 문화문명은 바로 그 과정을 겪고 현재에 이른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정상에 도전할 권투선수는 형제끼리, 동네끼리, 학교끼리, 동포끼리의 경쟁에서 이겨난자라야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골목 골목 마다에서의 한인들의 노력은 Corner상점이 다른형태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한국인의 보다 큰 구매력은 증대돼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현실과 부분과 감정으로 골목 골목에만 치중할때, 우리 한인사회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며 상호불신의 결과로 유도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교민사회의 문제들을 인류역사를 통하여 사고하며 그부분적 문제들을 인류전체를 통하여 사고하며 이러한 이성적사고에 낙오한 연약한 교민들을 범교민적으로 협력하는 설득력있는 인정으로 유도할때,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이루며 한인사회는 대범한 언론을 통하여 대범한 기업인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회로 끝〉



이민자와 고향

도시 위에 눈이 내린다. 기다림 뒤에 오는 눈이다. 공원에 쌓이고 지붕 위에 쌓인다. 사람들은 눈을 머리 위에 이고 길을 걷는다. 얼굴들이 평화스럽다.

도시 주변의 하이웨이에는 차들이 긴 행렬을 이룬다. 가디너·익스프레스웨이, 돈·밸리·파크웨이, 하이웨이-401의 차들은 천천히 움직인다. 차들의 불빛이 눈발 속에 명멸한다.

눈 속에서 도시는 비로소 지난 계절의 상념에서 벗어 난다. 이제 이 도시는 여름날의 작열하는 태양의 기억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을날의 슬픔과 방황도 이제 이 도시에는 없다. 도시는 눈발 속에서 새로운 리듬을 찾는다. 12월의 리듬이다.

•

눈 속에서 고향을 생각한다. 두고 온 도시와 마을, 강과 산, 신작로와 골목길이 그립다. 동네 앞 장승이 눈에 서려 온다. 잔솔밭이 떠 오른다. 조상들의 무덤이 하나 둘 망막을 스쳐간다. 지금 고향에도 눈이 오고 있을까?

•

떨어져 살 뿐이다. 버린 고향이 아니다. 학자들은 이민을 인간경험의 확대과정으로 보지 않았던가? 우리는 고향을 버리지 않았다. 고향이 우리를 버릴 리도 없다. 남은 사람에게나 떠나 온 사람에게 꼭같이 고향은 소중하다. 그 땅에 쌓인 역사와 넘치는 문화를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이 공유한다. 어디 가 있으나 고향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상상력의 근거가 된다. 육자배기, 밀양아리랑, 몽금포타령에 신바람이 인다. 탈춤 속에 흥이 일기는 이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복의 원색 속에서 참 나를 발견한다. 쌓이는 이민사의 연륜 속에서 고향을 재발견한다. 새로운 빛 속에 코리아를 본다. 떠나 온 땅을 뜨겁게 끌어 안는다. 마침내 우리는 고향 속에서 자유한다.

〈신년사설〉

교포사회 마무리

— 지난 한해를 돌아본다

이민사회

눈 속에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한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캐나다 속의 한인사회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쌀싸움이 터지는가 하면 부정 담배사건이 생긴다. 티·티·시·티켓을 위조한 사람들은 징역을 살고 한인들의 스토어는 강도에 시달리기도 한다. 어글리 코리언과 어글리 캐네디언이 협주곡을 이룬다.

•

· 한인사회는 소수민족 커뮤니티로서의 의젓함을 이루지 못하고, 미숙함과 치졸성에 시달리기도 한다. 정치적인·데마고그들은 아직도 목에 힘을 준다. 근거도 없는 찬성이 있고 논리도 안서는 반대가 있다. 낡고 병든 〈애국심〉이 과성을 지른다. 종교적인 데마고그들이 끼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어진 민중을 정신적으로 착란시킨다. 경제적인 피해가 말할 수 없다.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한 종교학자는 이들 종교적 데마고그들이 〈네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을 〈네 양을 먹으라〉로 알아 들은 것이나 아닌가고 비판한다. 문화계에는 아직도 작은 영웅들이 야맹증 속에서 헤맨다. 한국인의 얼을 말하는 학자는 스스로 얼이 빠진 소리를 한다. 왜 우리는 이래야만 하는가?

•

한인사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생명이 보인다. 새로운 생각들이 보인다. 문화적 정치적 데마고그들의 소리가 시끄러운 반면, 이들의 소리는 작고 가늘다.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긍정의 싹은 이민사회의 게토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예술계의 일각에서 탈게토에의 노력, 프로페셔널리즘에의 지향이 일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음악평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인오케스트라가 일개 에트닉 그룹의 발표회 형식의 테두리를 벗어나 진실로 이 캐나다 사회의 음악단체로 자라고 싶은 비촌이 있다면 몇번의 음악회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이 문제인 것이다."

또 다른 한 음악회에 관계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한인합창단의 이날 밤 공연은 에트닉이자 아마추어 연주단체로서 캐네디언 음악사회의 주류에 발을 내 딛기 시작했다는 데서 의의가 컸다."

하나는 충고의 글로 쓰여졌으며, 다른 하나는 행사의 성공을 보도한 기사다. 그러나 두 글의 시각은 동일하다. 게토성을 벗어남으로써 예술이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 뿐 아닌 다른 예술분야에도 같은 움직임이 일기를 바란다. 예술분야 뿐 아니라, 정치와 종교에도 게토의 땟국물이 씻겨 가기를 바란다.

이민신문

토론토·한국일보는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한국계 일간신문이다. 최대의 발행부수를 낸다. 〈캐너더·뉴스〉 때부터, 특별히 1981년 6월 일간 발행 이래 독자와 광고주 여러분이 보여 준 뜨거운 사랑에 감사한다. 경영진과 제작진은 감복에 싸여 있다. 우리는 부채를 진 사람들이다. 진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는 밤낮으로 뛰고 있다. 좋은 신문, 바르고 정확한 신문을 제작하여 독자와 광고주 앞에 내놓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있다. 독자와 광고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이 있는 한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

신문의 내용을 캐나다 속의 한인사회의 절실한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요구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고향과 나, 모국사회와 이민사회, 모국사회와 캐나다사회의 연결로 보고 있다. 제작진의 문제의식의 일단이 우리가 내거는 켓취·프레이즈에 나타나고 있음을 독자는 이미 안다. 〈캐나다 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한국과 캐나다가 뜨거운 우정으로 만나는 곳〉. 이것이 토론토·한국일보의 지향점이다.

•

한인사회의 절실한 요구 가운데 다른 하나를 우리는 크게 이민 커뮤니티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파악한다. 우리 커뮤니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걸쳐 게토성을 벗어나야 한다. 캐나다사회의 성숙한 멤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촛수를 맞추며 신문을 만들고 있다.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를 밝혀가는 신문〉,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가는 신문〉, 〈우수한 이민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신문〉, 이것이 토론토·한국일보의 또 하나의 지향점이다.

•

12월의 눈 속에서 뿌리를 명상한다. 고향과 모토( )에 뿌리가 있다. 문화의 뿌리, 역사의 뿌리가 있다. 나무는 캐나다에서 자란다. 동과 서가 우리 속에서 만난다. 문화의 꽃이 융화에서 핀다. 우리는 꿈을 머금고 눈 속에서 새 해를 바라본다.

〈새해 꽁뜨〉

양 로 원

이 태 준
(문협 부회장)

◆이태준씨

밖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지, 가끔 유리창이 덜거덩거렸다. 만성 기관지염으로 잔기침을 계속하던 넌시 할머니도 잠이 들어 가벼운 코를 골고 있었다.

김노파는 눈을 감고 잠을 불여 보려고 몸을 뒤채어 보았으나 정신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늙으면 누구나가 불면증으로 시달림을 받게 마련이지만 김노파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불면증의 탓만이 아니었다. 거동도 불편한 몸으로 이 양로원에 들어와 말도 못하며, 답답하게 보낸 세월이 벌써 2년을 넘기고 있다는 씁쓸한 생각과 가슴에 저려오는 고독이 그녀로 하여금 잠을 이룰 수 없게 했다.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더욱, 힘겹게 길러놓은 자식들에게 소외되고 있다는 섭섭한 마음은 그녀로 하여금 절실하게 그러한 생각을 하게 했다.

낡은 벽시계가 "뎅뎅"거리며 12시를 알렸다. 「해피뉴이어」라고 소리치는 고함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서 들려왔다.

김노파는 고향이 그리워졌다. 뜨끈뜨끈한 온돌방과 떡국 생각이 간절했다. 그녀의 마음은 벌써 색동옷을 입고 고향의 들과 산을 누비기 시작했다. 복주머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세뱃돈이 두둑하고, 마음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쉬며 다시 돌아누웠다. 그녀의 방안에는 암흑과 침묵이 있을 뿐이었다.

◆

고향길은 변함이 없었다. 더러 길이 넓혀지고 바뀌어 서먹서먹한 기분은 들었으나 곧은 신작로길을 따라 걷다 산을 구비돌아 마을로 가는 길은 여전했다. 길가에는 듬성듬성 잔설이 있어 더욱 반가웠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길이며 산이었던가. 김노파는 하나라도 놓칠쎄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더 걸어 들어가면 정든 마을이 나오고, 반가운 마을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빴다.

생각같아서는 뛰고 싶었지만 도무지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걸어도 걸어도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녀는 발버둥을 치며 걷고 또 걸었지만 조금도 나아가지지 않았다. 그녀는 애가 타고 안달이 났다. 결국 지쳐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눈을 떴다. 꿈이었다. 지난밤에 고향을 생각하며 잠이 든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

새해 아침이 어둠을 삼키며 밝아오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새해 아침이지만 김노파에게는 여느때와 다름없는 지겨운 하루의 시작일 따름이었다.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애들이 찾아오지 않을까하는 은근한 바램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질려, 냄새까지 역겨운 베이컨과 토스트의 아침식사를 끝내고, 점심무렵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무료함을 잊기 위해 그녀는 창가로 갔다. 함박눈이 소복 소복 내리는 거리를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다. 그녀가 양로원의 출입구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낯익은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커튼을 걷어내며 자세히 내다보았다. 그녀의 예상대로 틀림없는 쥬리할머니였다.

"저 늙은이가 길도 미끄러운데…"

김노파는 허둥대며 출입구로 뛰어갔다.

"아니, 눈이 이렇게 오는데 어쩐 일이여?"

손목을 덥석 잡아 끌어들이며 김노파는 반가워서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설날이라고 남들은 오고가며 야단인데, 아파트에 혼자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자기도 보고 싶으니까 왔지…."

헤어지기 전까지 한 아파트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으나 서로 노인아파트와 양로원으로 헤어진 뒤로는 자주 만날 수 없었다. 두 노파는 서로의 손목을 꼬옥 잡고 김노파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래, 어때? 살만해?"

쥬리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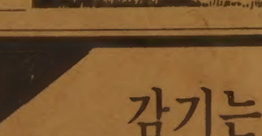
"살만하긴… 맨날 벙어리지… 자기는 어때?"

"마찬가지지, 나라고 별다르나. 감옥생활 같애."

그리고는 두 노파는 말이 없었다. 서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탓인가? 아니면 침묵과 고독의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탓인가? 서로의 시선을 외면하며 우수에 젖은채 두 노파는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같이 살 수 있는 양로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으련만…"

김노파가 혼잣말처럼 무거운 입을 열었다. 두 노파의 주름진 얼굴 위에는 마른 눈물이 흘러내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벌써 새해의 첫날이 어둑어둑 저물고 있었다.



83년도 본사 사업

주간한국·영문판 발행 소년야구·미인대회등

한인사회와 함께 사는 교민의 벗 〈토로토한국일보〉는 매일 신문을 내고 틈틈이 금년에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가집니다.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면의 주요변화

(1)주간지 〈주간한국〉을 별도로 인쇄, 독자들에게 배부합니다. 타브로이드판(본지 지면의 절반크기) 16면이상을 매주 발행합니다.

(2)영자판 발행: 주1회 1페이지를 영자판으로 엮어 2세들과 캐네디안들의 한인사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2회 스키강습회

1월 초보자를 위한 다운힐 스키강습회를 브랜든·스포츠사와 공동으로 주최.

◆82년 1월의 스키강습회(세넨산스키장)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

캐나다 최고의 한인미녀를 뽑는 잔치. 8회째인 금년부터 본사가 주최. 4월중순 예정.

◆제3회 명인전 바둑대회

6월부터 리그전, 9월결선. 토론토 한국기원 후원.

◆어린이야구대회

◆제1회(82년) 어린이야구대회 우승팀(연합교회)

교포어린이의 야구열을 고취시키고, 심신을 단련,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인품형성을 도모하는 배구의 제전. 각 한글학교, 교회팀, 지역팀등이 출전합니다. 7월에 개최되며 청소년층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82년의 미스코리아들. 좌: 함승희(진), 중: 윤혜련(선) 남성은 사회자 곽규석씨

◆아마추어 사진촬영대회

8회 사진대회를 사진협회와 공동주최. 금년에는 비키니 모델을 대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는 미정.

◆82년도 사진촬영대회, 현장.

◆한인업소 전화부 발행

다년간 본보가 제공해온 「한인업소전화부」— 올해는 자세한 한인사회 안내를 겸해 책자로 엮어 냅니다.

◆한인업소부

◆기타

본사가 재정후원하고 한인민족상 위원회가 선정하는 한인민족상 수상자 선정. 시상은 83년부터는 격년제로 하자는 안이 대두되어 있으므로 민족상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드디어 판매개시!

감기는 만병의 원인! 건조한 아파트생활에 주의하세요!!

日本제 최신형원심식전자동 가습기

지방에 계신 분을 위해서 Mail order를 받습니다.
물건값+송금료(3불)를 수표로 보내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US$79.-이고, 카나다 $105.-입니다.

(株) 日本家電
NIPPON KADEN LTD, BO.
MODEL NO. V.—57D
물용량 : 5ℓ
연속가습시간 : 14시간

* 예방보다 더좋은 약은 없읍니다!

습도가 부족한 겨울철의 건조한 실내는 누구나 쉽게 편도선(목젖)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아이들은 늘 감기가 계속되며 피부도 건성이됩니다. 필수적인 습도유지로 각종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세요.

* 최신형 전자동가습기의 특징

1. 소음이 전혀없으며 실내전체를 쾌적하게합니다.
2. 고장이 전혀없읍니다. (2년간보증)
3. 켜고 끄는 번거로움이 없이 최저습도 40%이하에서는 즉시 자동으로 켜집니다.

〔판매처〕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진단한다

신년 특집

◆오강남

◆김보경

◆박희민

〈사회편—김보경(페니탱정신병원, 심리학자)〉

이민윤리관 정립 시급

파업이니 노사분쟁이니 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서양 기업가들이 날로 번창해 가는 동양의 기업, 특히 일본의 기업을 연구한 뒤에 동양기업의 성공은 동양의 전통적, 유교적 권위주의가 기업 구성원들을 결속함으로써 서양에서 보는 것과 같은 노사간의 갈등을 없애므로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서양에 있어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하고 돈 받는 관계이지만 동양에서는 경영주와 피고용자는 부자의 관계로 보호와 충성이, 간부사원과 일반사원과의 관계는 형제관계로서 지도와 순종, 동료간의 관계는 우정과 의리의 관계등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파면시키기도 어렵지만 돈이 적다고 회사를 떠나거나, 파업을 시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고, 기업체가 죽으면 자기도 죽고, 기업체가 살면 자기도 산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직원이 충성스럽게 일함으로써 성공한다는 것이다.

동양의 다른 나라도 그러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떠나는 것은 곧 배신행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10년 또는 20년을 계속 일하면 근속상이나 공로상으로 그 충성심을 표창 받게 된다.

한국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개념도 비슷하다. 자기들만 잘 살자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 그 자체가 배반자가 되는 것같은 죄악감을 주고, 외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 고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초조감을 가지게 되는 것도 그러한 사회문화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다.

충성, 회생, 복종등을 요구하는 전통이 기업체를 성공시킬 가능성은 이미 앞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이와같은 전통이 우리 이민자들을 새 사회에서 성공시킬 힘도 된다. 즉 부모로서의 회생정신은 하루 16시간이상 일하게 하여 물질적 성공을 가져오게할 수 있고, 복종심을 배운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처럼 쉴새없이 공부하여 월등한 성적을 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가지는 약점은 인간개인의 회생이다. 우리들이 중공에서 온 곡예사들을 보고, 그 귀신같은 재주에 놀라며 또 만리장성 쌓아놓은 것 보고 감탄하면서도 개운치 않은 기분은 저렇게 완벽한 재주며, 저렇게 힘든일을 이룩한 이면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개인이 회생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개미들의 생활은 조직적이며 능률적이다. 여왕개미는 개미왕국의 진정한 국모이고, 모든 개미는 서로가 형제이다. 일개미, 병정개미, 숫개미들이 자기의 맡은바를 충성스럽게 일한다. 우리 동양인들의 역사속에는 개미왕국을 가진

동양사고는 개인희생요구
평등보다 상하관계 우선

일이 있고, 아직도 그 문화적 유산이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권위와 복종을 원리로 배운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위치를 상하관계에서 찾으려는 태도이다. 자기위치의 불명료성은 어떻게자기가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북미 한인사회의 대부분의 갈등은 이러한 자기위치의 불명료성에서 오는 것이라 보여진다.

예를 들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 살게 되고보니 누가 높은 사람인지, 누가 낮은 사람인지를 몰라 우선은 모두가 한번씩 목에 힘주어 보는 현상에서 싸움이 많은 것이다. 교회가 많아지고, 각종 단체가 늘어나는 큰 이유중의 하나는 이러한 집단조직이 쉽사리 자기 위치를 객관적으로 정해주기 때문이다. 장로, 집사의 위치 또는 회장, 부회장의 위치는 우선 누가 높고 낮은 사람인지를 판가름해 주고 거기에 합의한 행동양식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장로, 집사의 위치도 교회의 크기, 역사에 따라 달라지고, 회장, 부회장도 어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인가에 의하여 그상하위치는 달라진다.

개인은 어떤 자타가 인정하는 권위있는 인물,또는 집단의 지지를 받음으로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애쓰는데, 이는 해외공관 또는 본국정부등도 큰 역할을 한다. 정부초청에 의한 한국방문, 또는 영사, 대사에 의한 만찬초대, 심지어 대통령 환영리셉션에의 초대등은 자기 위치 발견내지 자기 위치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민자들에게는 돈주고라도 찾아볼만한 조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평등과 자유를 이상으로 하는 이 북미사회에서 공자님이 옛날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 만들어준 계급및 권위주의가, 언젠가 이러한 상하 자기 위치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안갈 수 없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가치관 내지 질서원칙을 찾아내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즉 나와 타인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성립시키면서 상하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더 합리적이고, 더 이상적인 관계를 말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될지, 머리를 들어야 될지 알아내야하는 몹시도 신경 쓰이는 일을 피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다.

서양사람들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가치관에 의하여 누구에게나 반말(?)을 쓰는데, 우리들은 그것이 쉽지 않으니 우리들은 타인을 모두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여 존경어만 쓰는 것은 어떨까. 사실 이 제안은 필자의 것은 아니다.

본래 우리 동양인들은 타인을 연령, 직업에 불구하고, "선생"이라고 불러왔는데, 그것은 타인은 모두 나를 지도해줄 수 있는 선험자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로 안다.

하여간 우리 이민사회는 한국의 축소판이 될 수도 없고, 까만 머리 서양사회만도 될 수 없다.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한인 이민생활 윤리에 관한 연구가 크게 시동되기를 기원한다.

〈종교편—오강남(르자이나대학, 종교학교수)〉

이민교회의 미래상

과거 10여년에 걸쳐 한인사회는 종교적인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했다. 토론토의 경우 무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교회수만도 40여개가 되고, 불교의 절도 서너개 있게 되었다. 교포신문들의 지면이 상당량 부흥회다 교회창립예배다, 목사초빙이다, 장로 집사 안수식이다, 종교관계 서적 출판·판매다, 신학생 모집이다 하는 종교관계 광고들로 메워져 있는 것만 보아도 이들 종교단체에서 하는 활동도 그만큼 활발해지고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짚오라기라도 붙잡는다. 세태가 불안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게 되면 종교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안팎으로 가중되는 이민사회라는 특수상황에서는 종교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종교들 중에서도 보수주의적이고 규율이 엄격한 종파들이 다시 득세하게 되는 것도 대체적 추세다. 궁지에 빠진듯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하고 따지고 할 겨를이 없다. 무언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눈 딱 감고 붙잡고 싶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보수성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런 위기상황을 위해 안성마춤인지도 모른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 주위에 있는 상당수의 교회는 이제 "성공한" 교회로 등장했다. 여기서 성공이란 물론 일차적으로 교인수와 헌금액의 통계적 숫자가 괄목할 정도로 신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과연 한국 이민교회가 이런 외적발전과 함께 그만큼 내적성장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사람수가 그 많큼 많아지므로 교포사회가 그만큼 밝고, 그만큼 정의로운 사회로 자라났는가?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인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 것같다. 교민사회는 고사하고,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조차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못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만 해도 상당수의 교회가 교인들 상호간의, 혹은 교인들과 교역자간의 내부적 갈등을 밖으로 노정했고, 더러는 그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교포신문에 오르내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에드먼톤의 경우, 그 덕택에 작년 한해 교회가 두서너개 더 생겨났다는 소문이다.

교회내에서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있다는 그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초대교회에서도 교회내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고, 또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교회내에 내적활력이 남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내에 이런 말썽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썽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말썽은 외부로 나타난 증상에 불과하다. 몸에 열이 오르는 것같은 한가지 증상이라도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가지일 수가 있다. 교회내의 갈등이 영적성장을 계속하는데 따르는 생산적 진통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 목적을 추구하는데서 생겨나는 파괴적 부닥거림인가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잿밥에만 관심말고
내적 성장 기해야

전자의 경우는 변증법적 발전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지극히 비종교적인 이기심의 발로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요 싸움이다.

잿밥은 맛도 있고 건강에도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적 요소를 등한시하거나 아주 망각한채 먹는데만 신경을 다 쓰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투는데만 시간과 정력을 다 쏟게 된다면, 잿밥을 위해 모여든 인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자체로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다. 참된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지엽적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엔 어쩔 수 없이 서로 편을 짜고, 싸우고, 갈라지고, 헐뜯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서로 옷등이 아물 날이 없다. 이런 식의 종교는 백해무익이라면 너무할지 몰라도 이웃과 사회에 유익보다 해가 더 많다고 해서 과장될게 없을 것이다.

이제 한인 이민사회에서도 잿밥에만 정신이 팔려살던 태도를 벗고, 종교 내면의 핵심적 요소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가 온 것같다. 교회나 종교행사를 알게 모르게 나 개인이나 집단의 얄팍한 심리적, 사회적, 재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던 마음을 청산하고, 나와 이웃 모두의 내면적 성장을 위한 발돋움에 힘쓰는 자세를 취할 때가 된 것 같다.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입는 것이요, 요즘 말로 고치면 체면과 겉치레, 권위의식, 특권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등 모든 부조리하고 부자연스런 껍데기들을 훌훌 벗어던지고, 내면의 나, 참된 자아를 재발견함으로 나 스스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 밝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이룩하는데 헌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질적 성숙을 궁극목표로 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이 이민교회의 미래상이 될 것으로 빌어본다.

〈교육편—박희민(목회학 박사, 본사 논설위원)〉

장래는 교육에 있다

교육은 한 개인의 삶을 결정해줄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초석이 된다. 한인사회의 미래상은 한 마디로 교육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떠한 삶과 어떠한 커뮤니티를 이루어 갈 것인가?하는 문제에 직결된다고 하겠다. 이 점에서 한인사회의 교육문제는 우리 교포들이 이땅에서 성공적이고 창조적인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이민자로서 사라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고 하겠다.

우리 한국인들의 캐나다 이민역사는 아직 짧다. 짧은 역사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점도 없지 않다. 교육적 측면에서 관찰해볼 때도 많은 한글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고, 교육위원회와 각교회 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 한인사회의 장래를 위해 퍽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토론토대학교 안에 한국학과를 설치할 것은 큰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교포사회의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뚜렷한 교육이념과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채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보이며, 교육시설과 운영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교육전문가가 아닌 나로서 이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이 너무 외람되지만 몇가지 소견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교포사회의 교육면 진단

지금까지 우리 교포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세대별로 나누어보면 1세교육, 1.5세대 교육, 2세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을 교육의 장소별로 나누어 본다면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각기관및 교회교육포함)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같다.

1)세대교육에 관해서

많은 교포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서 선생들과 상담하고 논의하는 면에서나 가정 안에서의 자녀교육면에서나, 또한 한인커뮤니티에 설립된 교육기관 이용도에 있어서도 빈약한 것을 엿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과외공부다, 특수교육이다 해서 열을 올리던 부모들도 이민 와서는 생업에 쫓기고, 돈버는 일에 너무 치중해서 자녀교육은 학교교육에 모두 맡겨버리고 마는 형편을 본다. 물론 거기에는 부모들의 언어의 장벽이나 이곳 교육제도를 잘 모르는데서 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지만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에 별 도움을 줄 수 없는 점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2세의 교육은 1세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할 줄로 안다.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성장과 자녀교육을 위해서도 부모들이 먼저 공부하는 삶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사실 이제 이민초기에 비해 생활도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어 부모 자신들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실제적인 면에서 차차 늘어가는 것을 최근 목격하게 된다. 이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한인커뮤니티에서 1.5세대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줄로 생각한다. 최근 L.A.같은 곳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그러한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어떤 대책과 처방을 강구해야 할 것같다.

2)교육의 장에 관해서

교육의 장(場)중에 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인 줄로 안다. 특별히 한국말이나 역사, 가치관등은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교육시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특별한 주의를 새해에는 기울여야 할 것같다. 학교교육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Korean-Canadian으로 키워가는데 큰 장벽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1세들과 2세들간의 갭(gap)을 좁혀가는 교육적 노력이 현재 아쉬운데, 이 점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었으면 한다.

2. 새해의 가능성과 기대

나는 새해에 우리 교포사회에 대해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과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1)「공동체 교육」

이땅에서 우리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살고 기여하고, 공헌하는 소수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자기가 속한 민족 공동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자세
「정신적 모국인」… 4종류의 이민자

천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지만 멸족 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역사속에 기여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전(temple)과 성경을 통한 민족 공동체 의식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었던 까닭이다.

82년도에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으로 우리 겨레가 분노했지만 그 이상으로 더 큰 문제는 우리 겨레 스스로가 우리 자신과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와 이민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정신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 민족관」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민족 공동체에 대한 긍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새 역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2)Inte gration 교육

우리는 일단 한국을 떠나온 몸이기 때문에 새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 많은 이민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몸은 떠나왔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모국에 머물러 있는 때문이다.

우리는 대개 네 종류의 이민자들을 보는데,

첫째는 무조건 새땅의 문화를 배격하고, 한국적인 것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다.(Segregation)

둘째는 새땅에 왔으니 하나에서 열까지 새땅의 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Imitation)

세째는 될대로 되라는 식의 허무주의적 태도(Nihilistic attitude)이다.

네째는 두 문화의 장점을 취사선택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를 창조해 가는 사람들이다.(Integration)

새 문화와 새 가치관은 언제나 네번째 종류의 사람에 의해 이뤄진다고 하겠다. 우리 교포사회의 교육이 이러한 네번째 type의 인간상을 형성해 가는데 기여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도덕교육과 생활교육

만일 교육을 둘로 나누어 본다면 (1) instrumental education과 (2) moral education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배우는 교육은 주로 전자인 지식의 습득과 기술교육에 국한되어 있다. 교포사회나 부모들이 보충해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한국의 언어나 역사나 문화뿐 아니고, 보다 중요한 도덕및 생활교육을 보충시켜 가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교육이나 생활교육은 말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의 솔선수범하는 생활 그 자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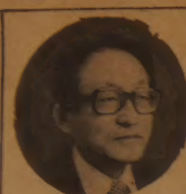
오늘 우리 이민1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상도덕, 공중도덕, 분쟁, 부정행위등)을 시정하는 교육적 자각운동이 먼저 1세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파울로·프레레가 「Pedagogy of the oppressed」에서 말한 "의식화교육"이 시급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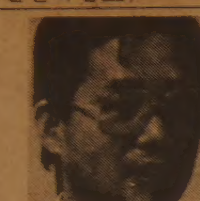
물론 이상과 같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무리한 점도 있고,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어떤이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실패하리라는 생각"그 자체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을 향해 확신과 자신(confidence)을 가지고 나가느냐 못나가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이 얼마나 실현될 것인가, 제한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복많이 받으시고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謹賀新年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오기송


◆최승락

◆김정근

한인사회를

〈정치편—오기송(몬트리얼대학 정치학교수)〉

민주적 수준 높여야

정치생활이란 멀리 떨어져 있는 현상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출발한다. 마치 경제생활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로부터 배태되듯이 정치생활도 인간공동생활이 시작될 때에 출발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함수관계에서 성숙한 정치생활은 그날그날의 성숙한 시민생활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훈련으로부터 배양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의 건설에 있어서도 멀리서 문제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비근한 예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몇가지 예는 우리들의 민주사회 건설(정치생활)의 기본자세와 긴밀히 관련된다고 생각하여 제한된 지면내에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1)소수와 다수

소수는 다수에 따른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초로 되는 개념이다. 이와같은 개념은 인간공동생활에서 "결정", 또는 "선택"이 필요할 때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결과에 있어서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를 둔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할 때에 "결정"이나 "선택"의 결과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당시의 구성원들의 지적수준, 이해관계, 감정, 외부조종등의 많은 요소들을 포함한 집약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현상이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깊이 관찰함이 없이 "다수"가 그대로 "바른"것을 대표하는 듯이 착각을 하거나, '소수'는 소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단체운영의 조잡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에 투표에 의해서 다수에 따른다는 방법을 취한다면 그 무모함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포사회에서 "다수" 결의라는 명목하에 원칙과 사회질서를 무시한 처사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바르고 그른 것은 수의 다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수결이란 민주사회 건설의 한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용될 때에는 시민생활을 후퇴시키는 요소로도 된다는 사실을 깊이 주의해야할 것이다.

2)비판과 건설

비판 없는 사회에 건설이 있을수 없음은 마치 두 수레바퀴의 존재를 무시하고 차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때 비판은 항상 표현된 사실에 입각하여 교정과 건설을 내다보면서 가능하면 해결책까지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비판은 정정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전개하는 것이 떳떳하며, 개인의 인신공격은 피해야 한다.

민주사회는 의견차이와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해서 성급하게 남을 "욕'할 필요는 없다.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에 사로 잡히거나 왜곡된 비판을 자행한다면 마치 거울에 비친 불쾌한 자기 얼굴 때문에 거울을 나무라는 소행과 얼마나 거리가 멀까?

다수횡포는 비민주적
문화시민 긍지살려

우리 교포사회에서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타인의 견해를 정확히 파악치 못한 비판이나, 비판을 하기위한 비판은 민주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3)민족주의와 그 이상

한국사람은 단일민족의 후예로서 민족주의적 관념이 강하다. 같은 동족으로서 누가 이와같은 감정에 대해서 나무랄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차원을 높여 자기 민족의 것이 귀하다고 생각된다면 타민족의 것도 귀하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민족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와같은 마음을 가짐은 복합문화정책을 지향하는 이 나라 생활에 참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민족국가에로 이민온 우리들의 마음자세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말하자면 한국적 단일민족주의에 깊이 젖은 우리의 생활태도는 다민족국가인 이 나라에 와서는 우리의 민족관을 대폭 넓혀야 할 것이다.

4)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것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과의 사이에는 뚜렷한 개념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는 혼돈과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있다. 쉬운 예로, 남북한간의 친척방문, 서신교류등 문제는 정치적문제라 하기보다는 인도적(Humanitariar)인 문제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명료한 듯한 문제가 남북한간에서 좀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착안할 때에 이 문제는 인도적인 울타리를 넘어 정치적 대립의 폭발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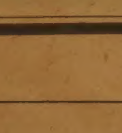
이와같은 현상은 정치는 힘(power)과 힘의 대립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파급적 작용의 연장이라는데서 발견할 수 있다. 마치 기관차가 힘차게 달릴 때의 현상과 같아서 자체의 돌진력은 대단하다. 이 돌진력은 때로는 부레이크의 제동력을 잃고 타인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치의 파급작용을 바로 인식하게 될 때에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과의 차이를 모호케 하며, 국제법의 중립에 관한 규정이 총력전하에서는 무력하여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파급작용을 바로 인식할 때에 교포들은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간의 모순충돌에서 자기 해방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집회와 질서

시민사회의 수준의 높이와 자치능력 여하는 그들의 공동관심사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된다. 또한 민주주의의 참가치는 이러한 문제의 자치능력을 전제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오늘날 교포사회는 이러한 문제처리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기현상을 보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는 분별없는 소수가 언성을 높이고 주먹까지 휘둘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다. 언성을 구태여 높일 필요도 없고, 인격에 관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근본자세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 우리 교포사회의 낙후성은 퇴치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민족으로 알려진 우리 교포들은 또한 민주질서를 지키는데 있어서도 수준을 높여야 하겠다.


533—2361

〈경제편—최승낙(캐나다외환은행장)〉

후세위해 씨 뿌리는 과정

1982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둡고 불안한 한해였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선진제국의 경기는 1930년대 대공황이래 가장 길고 깊은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각국에서는 높아가는 실업을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다행히도 3/4분기 이후 금리가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각국이 상당한 댓가를 치르면서 추구하였던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이 서서히 성공의 기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 추세는 캐나다에도 예외없이 불어닥쳐 캐나다 경제는 1982년중에 적어도 3%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업율은 내년중에도 10%선을 넘는 높은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캐나다의 경기동향을 선도하는 미국의 경기가 당초 전망과는 달리 적어도 1983년 하반기에 들어가서나 본격적 회복의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캐나다 경제는 빨라야 1983년 가을 이후에나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은 경제사회의 구성요원을 이루는 각계 각층에 고루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이민당대의 소수민족 그룹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0~15년간의 짧은 이민역사를 가진 한국계 이민그룹의 경우 정착기 이후 곧 들어닥친 경기불황은 당대의 경제기반 조성은 물론 2~3대를 위한 장기사업 내지 투자계획 수립을 수년씩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만 교민이 살고 있는 토론토 교민사회의 경제적 지위향상은 어느 소수민족보다도 착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교민가구의 상당수가 자기 소유의 Retail 스토어및 기타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래의 새로운 투자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때 교민경제사회의 기반조성은 캐나다 경제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급속히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특히 교민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Retail스토어의 운영은 거의 가족중심의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바 이는 생활관습이 다르고 사고방식이나 기호가 다른 이국경제구조하에서 초기 사업형태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경영체제이며, 이러한 경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회조직, 경영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활동의 방향을 터득하게 될 것으로 본다.

교민경제 주축인 소매가게
단시일내 급성장 고무적

이러한 단계적 발전에 소요되는 초기 사업기간은 각 민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남달리 부지런하고 미래와 자기 완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 한국교민사회의 경우에는 어느 민족보다도 짧은 시간내에 현재의 가족중심의 경영체계를 벗어나 소위 주식회사 형태의 스토아 운영, 체인스토아 운영 내지는 별도의 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통한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충분한 자금의 축적, 경영기법의 숙지와 동시에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는 정보시대의 경제이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시장의 발굴과 같은 단순한 시장정보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에 관한 정보, 금융에 관한 정보, 새로운 투자환경및 투자촉진법에 대한 정보, 수요자의 기호패턴의 변화에 관한 정보등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집약, 정리되고 면밀히 분석된 정보를 교민간 상호 교환해서 이용한다면 교민경제사회의 발전단계는 가일층 촉진될 것이 틀림없다.

교민경제사회의 발전단계는 또한 고국의 경제발전과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캐나다 양국간의 경제교류확대는 크나큰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현재 10억달러 내외의 한·카교역량은 수년이내에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증대되는 무역량은 자연히 이에 관련되는 새로운 교민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교민무역업체의 생성과 한 걸음 나아가 제조업체의 탄생을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나 여건의 성숙만으로 모든 일이 스스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능력과 재력, 그리고 기업의욕을 갖춘 교민실업인들의 능동적인 자세와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민경제사회의 발전단계는 북미의 경우 어느 지역이나 거의 유사한 것같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뉴욕이나 L.A., 시카고의 경우와 유사한 성장단계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캐나다의 경제및 사회구조가 미국의 그것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캐나다 사회는 미국사회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시장의 영세성이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착실하고 안정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든다. 안정없이 조급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캐나다의 현 경제·사회구조하에서 아직 성공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적어도 이민 2-3대 이후의 번영을 위해서 지금은 씨를 뿌리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문화편—김정근(이민사 연구원·본사 논설위원)〉

이민문화의 역수출

이민2세의 문화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한국문화를 저렇게 모르고 자라나니 사람꼴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와같은 염려 속에는 어버이다운 사랑이 숨어있다. 또 말인즉 맞는 말이기도 하다. 아닌게 아니라, 2세문화가 걱정이라면 걱정이기 때문이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좀더 범커뮤니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나와야겠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세문화는 어떠냐는 것이다. 이민1세의 문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단 말인가?

2세문화를 걱정하는 소리 속에는 은근히 1세는 이미 한국문화를 알고 왔으니 염려할 것 없다는 태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같은데, 과연 그런가? 이민길을 떠날 때 우리가 지녔던 한국문화에 대한 일정한 이해와 지식이 지금과 장래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문화인」으로 유지시켜줄 것인가?

1세들이 문화를 말할 때는 으레 한국문화만을 문제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또한 과연 그래서 좋은가? 이땅에 와 살면서 캐나다문화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도외시하는 태도에 어떤 정당성이라도 있는가? 별로 배울 점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번거롭고 어렵기도 하니 접근을 회피한다는 것인가?

◆

1세들이 위의 질문들에 대한 적절하고도 근거있는 답변을 해내지 못하는 한, 문제는 2세문화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1세문화에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2세문화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서 남는다. 그러나 어쩌면 2세문화에 대한 걱정보다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곳이 바로 1세 자신들의 문화가 아닌가 한다.

어떻게 보면 1세들이 10년전, 또는 20년전에 이민올 때 가지고 온 문화적 내용과 감각은 이미 그 문화의 원류로부터의 단절 속에서 낡고 시들어 2세들 앞에 감히 이것이 한국문화의 정수입네 하고 내놓을 처지도 못되지 않나 한다. 한국문화라고 하는 것이 10년전, 또는 20년전에 발전을 중단한 죽은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끝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 문화의 생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문화에 관한한 2세들의 접근이 빠르다. 1세가 2세에 대하여 캐나다문화를 말할 처지가 못된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바로 1세들이다.

1세들의 정신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여러분이 표시해왔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한인들끼리 단결해야 한다고만 강조하지만, 나는 반대로 우리가 「게토」화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게토」화해서 그 안에만 머물면 우리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낙후하고, 낡아빠진 사상에 빠지게 된다…"

다른 한분은 또 이렇게 말했다.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 이곳 학교에서 새 지식과 새 문화를 배우게 되지만 30대, 40대, 그 이상은 언어의 장벽과 생업의 문제로 쫓기다 보니 별로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10년, 5년, 3년전 한국을 떠날 때 가졌던 지식수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얼마 안가서 우리는 한국에 있는 동료들보다 훨씬 뒤떨어진 자리에 서있게 될 것이다."

1세문화가 「게토」화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종들이었다고 본다. 그럼, 이와같은 1세문화의 위험성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문화수입을 해야 한다. 문화수입을 구조화시켜야 한다.

수입은 한국과 캐나다로부터 같이 와야 한다. 이민커뮤니티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수입이 전혀 없어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연성에 의존해 왔다. 따라서 문화수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우연성과 간헐성을 벗어나려면 문화수입을 주임무로 삼는 기구의 설립이 불가피한지도 모른다. 몇몇 기존단체가 이 일을 분담할 수도 있다.

2세에게 무엇을 줄것인가
1세들의 문제점과 향방

아뭏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민커뮤니티의 문화적 궁핍성을 방지 내지 탈피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수입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새로이 해석되고 발전된 유형 무형의 문화가 한국으로부터 전달되어 와야 한다. 연극무대, 강연회, 연주화, 전시회를 통해서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의 수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캐나다땅의 문화적 상상력이 우리 커뮤니티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있어서 시와 소설의 소재는 무엇이며, 기법상의 새로운 실험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해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풍부한 문화권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오는 문화적 열등성을 면할 수 있다.

◆

다음으로, 문화수입과 더불어 생각해야할 다른 한가지 방안은 우리 이민커뮤니티 자체 안에 문화다운 문화를 보유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이민적 상황을 상상력의 근거로 삼는 〈이민문화〉를 창조해 내는 일이다. 이 〈이민문화〉는 양질의 그것이 아니면 안된다. 수입문화만큼 가능하다면 그 이상으로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민문화〉를 역으로 한국과 캐나다사회로 수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질적으로 겨루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민문화〉를 양질의 문화로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이민적 테에마에 대한 진지하고도 활발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 관계인사, 관계단체들의 태도에 변화가 와야 한다. 이민커뮤니티 안에서 행해지는 문화활동이므로 저질과 열등성이 「루울」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이 극복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이민커뮤니티 안에서 시와 소설을 쓰며, 학술활동을 하며, 미술, 음악, 연극을 하는 분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본다.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우수성에 대한 지향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의 일반 성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스폰서로서, 독자로서, 또는 관객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1세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고급의 문화권으로 꾸며낼 수 있을때 비로서 2세문화에 대하여 가타부타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도 갖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새해에는
뜻하신 일들이
모두다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르빈 한약상사
한의사 서 춘 봉
643 A- BLOOR ST. WEST, TORONTO 〈신용조합옆〉
B) 536 6854
R) 743 0752

신년메시지

양국관계 증진 전력 당부

이 규 현 캐나다 대사

친애하는 캐나다의 동포 여러분!

1983년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여러분의 모국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안으로는 안정을 다지고, 밖으로는 국위를 세계로 떨치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입법 및 행정조처들이 취해졌읍니다.

국제적으로는 대통령각하의 아프리카및 캐나다 순방으로 아프리카 대륙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태평양권내의 협력태세를 구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읍니다. 근래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여러나라 지도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남으로써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1988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한데 이어,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도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으며, 금년도 국제의원연맹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데 압도적인 다수찬성을 얻어 성공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무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음을 여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도 온 세계가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있으며, 대개의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의 고난을 겪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1982년도에 우리나라는 6퍼센트의 GNP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83년에는 7.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한편, 한국·캐나다 양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1982년은 획기적인 해 였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캐나다 방문은 우리의 국가원수로서 최초의 캐나다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1981년의 트뤼도 수상각하의 한국방문과 아울러 양국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일이었으며, 정상간의 교류로 새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유대는 전에 없이 강화되었읍니다.

이러한 우의와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각계의 고위인사들이 상호방문이 빈번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도에 약간 침체되었던 교역도 양국의 경제사정이 호전되는대로 또다시 비약적인 증진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본인은 지금 한국과 캐나다 양국민이 서로를 재발견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1세기전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래하여 정신적 접촉을 함으로써 서로를 발견한 이래, 캐나다의 한국동란 참전, 5만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 교역량의 10억달러 돌파등의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금후 우리는 서로 문화예술의 교류, 학술연구, 언론보도등을 확대하여 서로를 알고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관계가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현재 처하고 있는 정세에 대한 이해와 동정이 없이는 항구적인 우호를 기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그러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여러분의 캐나다사회 발전에 공헌하심은 물론, 모국과의 관련을 항상 존중하여 모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시고, 양국관계 증진에 전력하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1983년 1월1일

주 캐나다 대사 이 규 현

◆전대통령 캐나다 방문시 교민 초청 리셉션에서의 이규현 대사(오른쪽)

캐나다사회에 공헌하기를

박인순 한인회장

1983년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돌이켜보건대, 1982년은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읍니다. 전세계가 불경기로 허덕이는 속에서도 우리 교포사회는 전투하면서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성장을 보여주었다고 느껴져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대통령각하께서 캐나다를 방문하여 캐나다와 한국 양국간의 친선이 두터워지고, 무역업무도 대폭 늘어났으며, 교포사회에 격려가 되기도 하였읍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힘든 부문들이 교포들의 성원을 받아 무난히 치르게 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983년은 전 세계가 모든것이 보다 나아지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교포사회도 큰 희망을 가지고 전투해 나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인순 한인회장

여러분 각 가정에는 희망이 넘치고, 하시는 사업은 날마다 번영해 나가고, 교포간에는 친목과 단결이 굳어져 가고 뭉쳐진 힘을 가지고 캐나다 전체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부족한 제가 한인회장직을 맡고있는 동안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신 일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초에는 새 회장단에게 임무를 넘길 것이오니 여전히 협력과 격려를 보내셔서 금년보다 훨씬 뛰어난 업무를 남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돼지가 되련다

장순채 토론토 한인회장 당선자

염불처럼 구실삼아 외던 "희망의 새해 임술년"도 보잘것 없는 아귀다툼으로 끝났는가 생각하니 세월의 무상함보다 자신의 무력했던 점이 한심되기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희망의 새해라고 되뇌이다 보면 송구신년을 맞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연륜만 깊어가기 마련인가 합니다.

하기야 내일의 설계라는 것도 오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요, 그 오늘이 별안간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면, 어제- 그것이 영광의 어제이건, 치욕의 어제이건, 우선 그 어제부터 똑바로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일년전 코리아타운 번영회를 맡으면서 아쉬움과 치욕보다는 영광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년이 되기를 얼마나 갈망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일년후인 오늘의 결산이란 조그마한 몇가지의 행사와 실속없는 회세확장 뿐이었고, 그저 남은 것은 아쉬움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만교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엄청난 중책을 짊어지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나는 2년간이라는 무책임한 임기보다는 새로운 장을 어떻게 엮어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토론토 3만교민의 명예에 욕됨이 없게 할 것인지에 고심초사, 잠을 이룰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오직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교민 속에서 교민과 함께 호흡한다면 3만교민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그것만도 보람이요, 희망으로 믿고 열심히 뛰어보려합니다. 그래서 실행 불가능한 계획보다는 교민과 함께 타협하면서 성실히 연구해 가노라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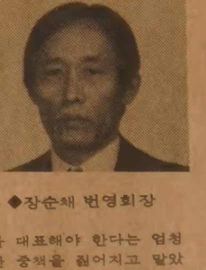
개는 영리하면서 부지런한 반면, 돼지는 미련하면서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만교민중에서 가장 미련한 돼지가 되어 희망의 계해년을 맞으려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술년을 보내면서 교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돼지처럼 살찔 수 있는 계해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주님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아침에

코리아타운번영회

회장 장 순 채



◆장순채 번영회장

아낌없는 성원 부탁

오기송 총연합회 회장

존경하는 5만 교포 여러분!

빛나는 새해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낡은 해를 보내고, 198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분 한분 가정 위에 항상 승리와 기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이주하여 새 사회와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읍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근면과 개척정신을 발휘하여 힘차게 건설하여 나가시는 여러분의 투지와 열망에 대하여 만강의 경의를 표시하여 마지 않읍니다.

총연합회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교민배가만명서명운동」을 비롯해서, 부인회창설, 한글학교대표자대회개최, 종족차별과 여성문제 심포줌 개최, 「한인의 날」 행사등 폭넓고 내용있는 활동을 전개하여 교포사회의 단결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기송 총연합회 회장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사가 짧고, 공고한 기초를 갖추지 못한 총연합회는 다른 모든 단체와 마찬가지로 발전적인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앞으로 회원확장문제, 체질개선문제, 임원선거문제, 운영기구 강화문제, 국제교포사회와의 협조문제, 재정확보 문제등등 산적한 문제들이 속한 처리와 개선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더 말할것도 없이 총연합회가 명실공히 5만 교포를 위한 봉사기구로서 부족함이 없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고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총연합회의 원대한 목적과 포부에 비추어 전체교민의 단결된 호응이 없이는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은 뻔한 일 입니다.

총연합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빌면서 신년인사를 끝마치려 합니다.

이해와 협조로 단결 보이자

이상훈 토론토총영사

친애하는 교민 여러분,

신년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3만여 교포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임술년 한해도 우리들 주변은 무척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모국에서는 제5공화국 출범이래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정의, 복지사회를 구축하는데 여념이 없었으며, 그동안 세계 경제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았읍니다만, 전 국민의 일치단결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대통령각하의 아프리카4개국및 캐나다 순방을 통하여 제3세계 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한·카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 우호관계를 심화하고, 앞으로의 태평양시대의 동반자로서의 토대를 굳게 정립하였읍니다.

한편, 모국정부는 지난해 1월22일 대통령각하께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의하시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긴장완화및 평화통일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위한 점진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20개 시범 실천사업을 계획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아직도 이러한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을 부정하고, 관광단 '모집, 가족찾기 운동등을 통하여 해외동포 사회까지 분열시키고자 획책하고 있읍니다.

◆이상훈 총영사

토론토 교민사회도 지난 한해동안 많은 발전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읍니다. 대통령각하 방문시 우리 교민들이 보여주신 열렬한 환영과, 최근의 여러 교민행사에서 보여주신 단결과 화합의 정신은 우리 교민사회의 역량과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읍니다.

새해에도 교민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굳게 단결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캐나다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한인사회를 이룩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 않읍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교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이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1983년 원단

주 토론토 총영사 이 상 훈

사랑과 평등을 나눕시다

윌렴·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

온타리오 주민과 정부를 대신해서 〈토론토 한국일보〉 독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 만나서 평화와 약속과 친선의 순간을 나누고, 우리가 물려받은 사랑과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더욱 추구해 나가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적바탕위에서 마음속으로 부터 솟아나오는 기쁨과, 축하를 나누면서 관용과 이웃사랑의 마음이 영원토록 계속되며, 혼란한 세상에 두루 퍼져 이땅에 평화가 이룩되도록 새로이 마음을 다집시다.

캐나다의 부강과 우리의 다양한 유산을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귀하와 귀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축복된 새해를 맞기를 기원합니다.

◆데이비스 수상

평화와 건강을

폴·갓프리 메트로시의장

본인은 메트로·토론토 의회를 대표해서 〈토론토 한국일보〉의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복과 회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큰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캐나다국민들은 참으로 복을 받았읍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년내내 계속된 일상생활의 압박감없이 평화와 우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내 평화와 행복,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갓프리 메트로 시의장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김 회 삼

O.K. Auto Body
503452 ONTARIO LTD.

138 SIXTEENTH ST.
TORONTO, ONT. M8V 3K1
BUS. 251-9889

82년 교민사회 10대뉴스

캐나다 교민사회의 82년도 한해는 한마디로 〈성장을 위한 진통의 해〉였다.

전반적인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가 교민들의 생활에도 침투, 2월초 식품업체간의 쌀값경쟁이 붙었고 1년내내 교민 상점들은 강도에 시달렸다. 2월말 터지기 시작한 전대통령 암살음모 사건은 모국의 언론까지 떠들썩하게 장식했고, 종국에는 최홍희씨등이 고소, 한국식품계열의 고소와 더불어 본지 데스크에는 두터운 송사철이 쌓이게 됐다.

8월말은 전대통령의 캐나다방문으로 떠들썩했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양로원건립문제, 난산으로 출범한 상협문제등이 대두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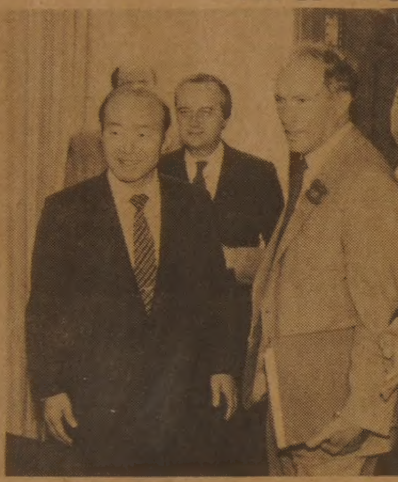
1. 전대통령 암살 음모 적발

82년 2월24일 캐나다 연방-주정부 합동특별수사반은 교민 최홍희씨의 아들 최중화씨와 토론토 조직범죄계의 야노버, 제틀 및 롤페거맨등을 전대통령 암살음모단으로 적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거의 한달간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모국의 각 언론의 특파원들이 토론토로 집결, 치열한 취재경쟁을 벌였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 사건만큼 교민사회를 모국의 매스컴에 알리게 해준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이 과연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이었는지, 돈만 챙기고 최와 북한측 배후를 속여먹을 생각이었는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해결의 열쇠를 쥔 최중화가 계속 북한에 머물고 있어 해가 지나도록 이 사건의 핵심은 밝혀지지 않았다.

친북한세력은 이 모든 사건이 서울정부의 꾸밈이라고도 주장하지만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과연 캐나다의 합동수사반이 외부세력에 의해 좌우되어 수사결과를 조작할 정도로 믿지 못할 기관인가하는 의문이 생긴다.(물론 수사반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외부의 영향설을 강력 부인했었다.)

아뭏든 이 사건은 교민사회로서는 친북한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모국에서는 캐나다 교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대통령이 트루도수상의 안내를 받으며 한·가각료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2. 전대통령 캐나다 방문

82년 8월28일 전대통령이 아프리카순방을 마치고 오타와 공항에 도착 4일간의 캐나다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한국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캐나다 방문이었다.

전·트루도 정상회담후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지만 캐나다 전국 교민 1천여명이 대사관저의 환영 리셉션에 초대되었고 지나친 대통령 경호와 반대데모는 캐나다 언론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방문기간동안 교민들의 가장 큰 관심의 촛점은 과연 대통령이 가장 많은 교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또한 가장 반정부세력이 강한 곳이기도 한 토론토를 방문할 것인가였다. 나이아가라폭포 관광을 겸해 토론토를 전격방문할 것이라는 캐나다측 정통한 보안 소식통의 얘기와는 달리 대통령은 토론토를 방문하지 않았다.

3. 쌀 전쟁 격화

토론토 한국식품업계를 거의 독점해오던 팬·아시아식품과 이에 도전하는 DY수입상사와의 치열한 가격전쟁으로 토론토식품점의 쌀값이 연일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고 그 덕분에 불황에 시달리던 교민의 가계부가 약간의 부담을 덜게 된 사건이 지난 3월초 터졌다.

그러나 이 싸움의 화살은 엉뚱하게 신문사로 비화, 본지는 팬·아시아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광고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

최홍희씨의 명예훼손고소와 더불어 이창복씨의 본지상대고소등은 별 진전이 없이 결국 자동취하된 셈이다.

◆한인회 주최 3.1절 기념행사에 나온 교민들이 미시사가 최홍희씨 집앞으로 몰려가 최씨 규탄 시위중이다.

4. 항공정비사등 정착문제

캐나다 단독이민의 길이 거의 막히다시피 했음에도 불구, 82년도에 항공정비사, 컴퓨터·프로그래머등의 기술자들이 대거 이민해왔다.

한국의 KAL(대한항공)등에서 좋은 보수를 받다 이민한 이들 정비사들은 캐나다정부가 이민을 허가할때는 당연히 구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막상 수개월동안 원하던 일자리가 안 생기자 생계가 막연해졌고 마침내는 이민성에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같은 딱한 소식이 전해지자 실협등 일부 한인단체는 취업알선 또는 생계를 돕기로 결정한 반면, 일부 이민 선배들은 처음 이민온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을 정비사라고 해서 건너뛰려고 하는가라고 비난하면서 이민성 항의소동은 앞으로 이민을 신청자들의 길을 막는 처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일부 아파트에서 모여살며 공동체를 형성했던 항공정비사들은 본지에 보도된 이후 지나친 교민들의 관심(?)에 시달려 결국 신문사에 일체 자신들에 관한 보도나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부탁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다.

캐나다의 기업체들의 불황이 교민사회에 끼친 여파가 단적으로 드러난 케이스였다.

6. 미국 밀입국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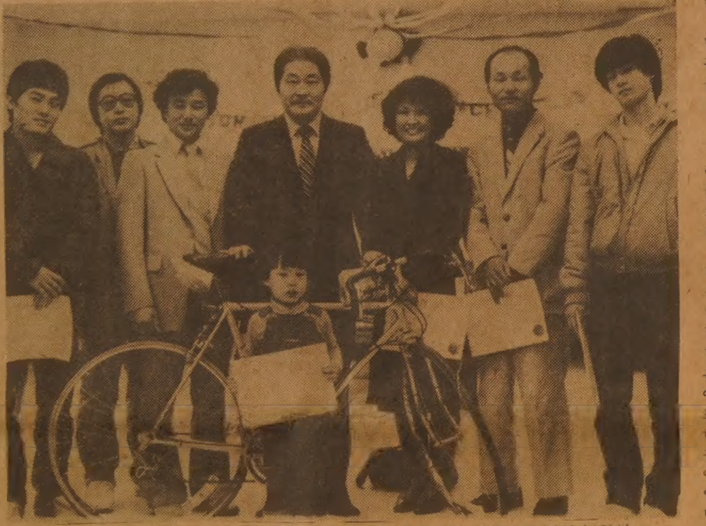
지난 여름부터 불법체류 또는 취업을 노리고 토론토에 몰려들기 시작한 한국인여행자들은 끝내 화근이 되고 말았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토론토에서 취업이 시원치않게 되자 하나, 둘 미국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말썽의 씨앗은 이들의 월경을 알선해준 교민들이 체포되면서 시작했다.

9월초에 교민 계모씨를 비롯한 월경팀이 캐나다세관원에 잡혀 벌금형, 또는 추방령이 내려져야 했다. 또 9월18일에도 모식품점을 경영하던 김모씨가 미국 버몬트주 국경수비대에 잡혀 곤욕을 치루었다.

캐나다를 지상의 낙원으로 잘못알고 찾아 온 이들 불법체류자들도 문제이나 이들을 이용, 돈을 벌려던 교민들도 문제이다. 캐나다 이민성은 이들의 사면을 고려중이나 쉽게 끝날것 같지는 않다.



◆양로원건립비모금 워커톤에서 자전거를 탄 수상자들, 가운데는 박인순 한인회장.

5. 양로원 건립 시비

와이즈멘·클럽이 주동이 된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가 범교민적인 모금운동인 워커톤등으로 기금 2만여달러를 모우고 양로원 건립운동을 한창 추진시키는 동안 갈보리교회등 일부 교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연방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생겼다.

문제의 핵심은 연방정부는 같은 에트닉·그룹내에서 여러단체가 같은 목적의 자원지금을 요청해올 경우 아무 단체에도 자금을 대주지 않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

결국 한인회가 개입, 양로원 건립운동을 한인회의 사업으로 추진시키는 일을 추진중에 있으며 새해 1월12일 이를 위한 2차 모임이 열릴 예정이며 양로원 건립사업은 1개단체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민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문화인의 반려자 한국일보·533-2361

◆첫 한인의날 행사에서 오기송회장이 개회사를 읽고 있다.

7. 한인의 날

81년도에 캐나다 연방정부가 10월3일을 한인의 날로 제정 공포한 이후 첫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첫 기념행사가 전역의 한인대표가 모인 가운데 10월1일부터 3일간 몬트리얼에서 거행됐다.

이 행사기간중 총연합회(회장 오기송)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이민증대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의 증서를 연방정부에 전달했고 총연합회는 정부에 등록을 마침으로써 정식으로 캐나다의 한인전체를 대표한 기구로 등장했다.

인종차별과 권익옹호, 이민여성의 지위향상, 국제결혼의 시비등의 문제를 다룬 심포지엄과 「한국 민속예술의 밤」등의 행사는 실효보다 의의면에서 성공했고 한인총연합회는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시련을 겪기도 했다.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 총연합회의 기구편제상의 문제점은 새해 4월로 예정된 총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공인협회 임원·이사진, 왼쪽부터 김완수 부회장, 정창헌부회장, 조병역회장, 김무호 이사장.

8. 상공인협회 출범 난산

지난 10월15일 실협의 저지를 뚫고 상공인협회가 출범했다. 교민일반경제단체로서는 실업인협회에 뒤이은 두번째, 주로 코너·스토어 경영자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 실협이라면 그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상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너·스토어 이외의 종사자들도 실협의 회원일 수가 있는데 굳이 제2의 단체가 생겨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실협의 상협발족 저지의 이유였고 두 단체간의 불협화음은 82년 연말 교민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9. 한인회장 인준총회

제18대 토론토 한인회장에 단독출마한 장순채씨(부회장 이기훈·변의섭씨)가 우여곡절끝에 힘겹게 당선되었다.

한인회장선거에 연3대째 단일후보가 출전하자 이번부터는 과거처럼 거수로서 인준시키느냐 아니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인준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가 마침내 한인회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인준을 하기로 결의하고 그후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랑)에서는 11월27일 총회에서 인준을 비밀투표로 결정한다고 신문지상에 공고했다.

그러나 인준총회에서는 당초 공고와는 달리 총회진행측에 의해 거수로서 인준을 하게 됨으로써 교민사회에 개운치 못한 여운을 남겼다. 신임장회장은 아무리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를 결의했다해도 한인회의 최고의결 기관인 총회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거수로서 인준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인회 신임회장단, 왼쪽부터 변의섭부회장·장순채회장·이기훈부회장.

10. 한국계은행 진출

82년 4월 한일은행이 뱅쿠버에 지점을 개설, 토론토 외환은행에 이어 두번째의 캐나다 진출 한국계 은행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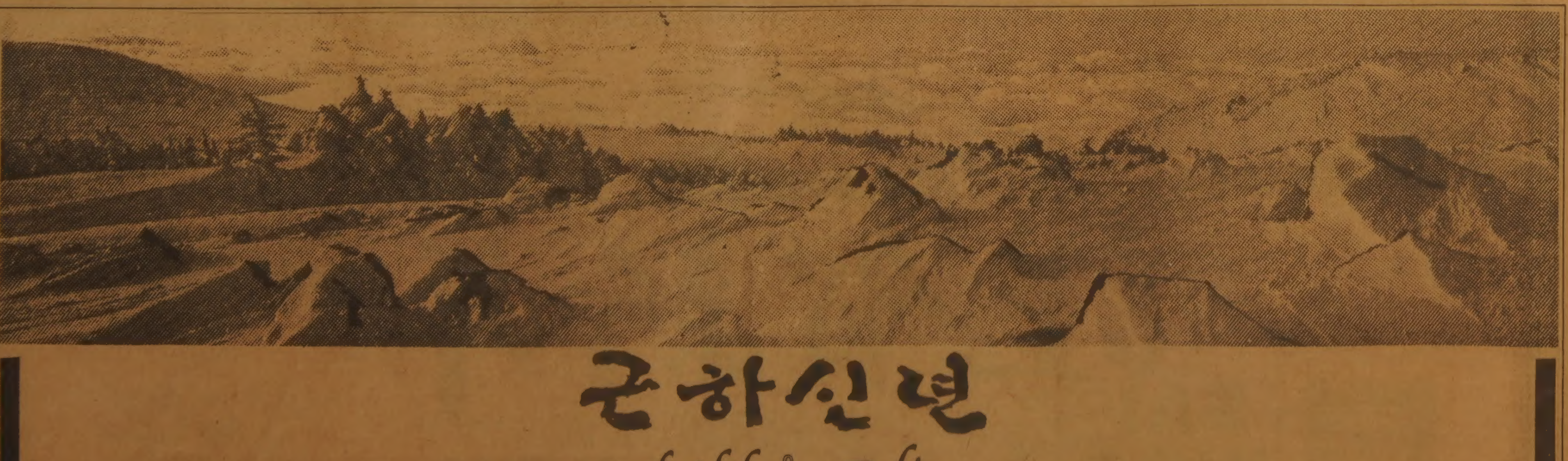
한국계 은행의 진출은 교민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는데서 크게 고무적인 일이었다.

캐나다 금융가 중심부에 본점을 둔 외환은행이 6월들어 한인상가 집결지인 블루어에 지점을 차리자 언어장벽을 겪던 교민들의 이용도가 커졌다.

외환은행이 블루어로 진출하자 한인신용조합도 서비스 개선등으로 이에 맞섰으며, 캐나다 서부-한일은행, 동부-외환은행으로 각자의 성을 지켜오던 두 은행이 12월 한일은행의 토론토 진출발표로 밀월의 시대를 끝내고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

한일은행 토론토지점은 새해 1월 개점예정이며, 사무소만 개설한 조흥은행도 84년도 개점 목표로 준비를 진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 많은 은행이 영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민경제의 수준이 향상될런지는 두고 볼일.



근하신년

Bridal Fashion

웨딩드레스전문

1503 BAYVIWE AVE. TORONTO, M4G 3A8
PHONE: B) 485-9419, R) 889-3544 Mrs. 원

신년 인터뷰

이규현 캐나다대사로 부터 듣는

한·카 관계의 전망과 교민의 역할

본지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한국·캐나다 관계의 전망과 교민의 역할에 관해 한국정부를 대표한 이규현 대사의 견해를 들어보는 대담을 기획했다.

19세기말 캐나다 선교사들에 의해 출발된 한·카 양국관계는 63년 양국의 정식수교, 양국 상주공관설치(오타와 한국대사관은 65년, 캐나다 대사관은 74년), 66년의 무역협정, 71년의 기술협력협정등을 거쳐 81년 트루도수상의 방한, 82년 전대통령의 방한등으로 이어진다.

양국 수뇌의 상호방문을 자신의 임기내에 겪은 이대사는 초대 백선엽씨, 2대 진필식씨, 3대 한병기씨에 이은 제4대 캐나다대사이다.

올해 60세의 이대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 영자지 코리아·헤랄드편집국장, 중앙일보 편집국장등을 거친 언론계 출신 관료로 72년도 해외공보관 초대관장, 문공부차관, 총리비서실장, 문공부장관을 거쳐 80년 캐나다대사로 부임했다.

본지의 조미래기자가 29일 오타와대사관저를 방문, 이대사와 대담을 가졌다.

●29일 오타와서 조미래기자●

◆관저에서의 이규현대사부처. 뒤에 대사가 관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 보이는 족보가 보인다.

○문: 한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면서 교민의 한사람으로서 대사님께 묻고싶은 가장 궁금한 질문중의 하나는 과연 한국과 캐나다관계가 앞으로 한햇동안 얼마나 더 긴밀해 질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5만 캐나다 교민으로서는 우리를 낳아준 모국인 한국과 우리를 길러주는 캐나다와의 관계가 긴밀해진다는 것은 바로 교민들이 딛고서는 발판이 단단해진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이대사: 우선 지상으로나마 전체교민들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해동안 한·카양국관계에

80년대는 서로를 재발견하는 시기

문화적 연대감이 양국유대의 바탕

대한 전망을 질문하셨는데 저로서는 한해라기보다 앞으로 10년간 즉 80년대 전체가 한·카 양국으로서 대단히 흥미롭고도 긴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80년대초인 81년 9월에 트루도수상이 한국을 방문했고, 또 82년 8월에 전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함으로써 한·카 양국관계는 획기적인 시기로의 서막이 펼쳐졌읍니다. 양국의 정치·외교적 유대는 역사적으로 보아 전에없이 강화되었지요. 경제적으로도 비록 82년도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양국의 교역도 다소 침체되었지만 81년도는 양국의 교역량이 10억달러를 넘었고 세계의 경제사정에 따라 앞으로 그 이상의 교역량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문: 개괄적인 양국관계의 전망을 얘기해주셨는데요. 캐나다측으로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자하며, 지금까지의 만족도는? 또한 한국측으로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이대사: 국제관계란 결국 상호 이익추구관계로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질때 그 관계는 더욱 긴밀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없어요.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잘 커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를 침략한다거나 식민지화해본 역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종전에는 유럽각국과의 교류가 압도적이었으나 지금은 태평양제국과의 경제교류가 많아졌지요.

한국으로서는 캐나다는 우선 5만의 교민이 사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이 큰 관심거리 입니다. 브리티쉬·컬럼비아주의 석탄을 사들여가는 량을 따져볼때 한국이 두번째입니다. 아무튼 80년대에 한·카 양국간에 서로 협력해야할 일이 많아요. 우선 신년인 83년도에 서울서 열릴 IPU(국제의원연맹)총회, 86년 뱅쿠버의 엑스포(무역박람회)가 있고 88년에는 서울서는 하계 올림픽이, 캘거리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실질적인 일들을 젖혀두고라도 저는 이제부터의 한·카양국의 관계는 〈서로를 재발견하는 시기〉라고 보고 싶고 또 재발견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서로를 처음 발견한 것은 1세기 전이었어요. 역사학적으로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1세기전 캐나다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훌륭한 일 많이 했고, 6.25참전으로 전사한 캐나다군인들의 수만도 516명입니다.

81년도 현재 교역량으로 따져볼때 양국이 서로 각 7위를 차지했읍니다. 그러나 이런 긴밀한 정치·경제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읍니다. 한국정치·경제 인사들도 미국에는 수없이 왔다가지만 캐나다에는 별로 오지 않지요. 캐나다사람들 역시 일본과 중국과는 왕래도 많고 관심도 많지만 한국은 잘 몰라요. 서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캐나다인들 5천년 한국의 역사는 물론 현재의 상황도 그다지 잘 모릅니다. 개인의 관계도 그렇지만 국제관계도 서로가 잘 모르는 경우에 오해의 틈이 생기기가 쉬워요. 양측이 역사는 물론 정치, 교육, 문화의 배경을 두루 잘 알아야 관계가 단단해 집니다.

경제 교역량만 비대한 수치만의 관계로 남을 때는 조금이라도 서로의 수치적 이해가 상반될 경우 불행한 관계로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지요. 예를들어 82년 한국은 캐나다에 대한 수출목표를 달성못합니다. 또한 한국의 수출대상국중 캐나다가 수입규제가 가장 심하며, 현재 캐나다로 들어오는 한국상품은 각종 규제망을 뚫고 상륙한 것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라도 문화, 역사적 이해의 바탕이 단단하다면 두 나라의 유대는 크게 위험해지지는 않아요.

이점에서 교민으로서도 할일이 많다고 봅니다.

○문: 문화·역사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작업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이대사: 예컨대 토론토대학에 한국학과가 설치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는 일이지요. UT 한국학과는 비한국계 캐나다인 즉 교민이 아닌 캐네디언에게는 물론 교민 2, 3, 4세에게도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읍니다. 캐나다측에서도 한국의 대학을 지원, 한국에 캐나다학과를 설치하게끔 서서히 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캐나다학과는 서울대에 설치될 전망인지요?

●이대사: 서울대일지 연세대일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만 연세대와 캐나다와의 관계는 유서가 깊어요. 1880년대 캐나다선교사인 스콧필드박사가 연대에서 가르쳤었잖아요?

○문: 선교사들 얘기가 났으니 말씀인데요. 한국에 신교도입의 해가 1884년으로 양국이 서로를 발견한지 1세기가 지난 관계이고 6.25때 같이 피를 흘린 혈맹관계치고는 너무도 서로가 소원한 관계가 아닐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사: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세기전 선교사들이 한국에 간 당시 양국이 서로 식민지였다는 점이 이유로 꼽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문: 조금전 말씀하시던 문화·정신교류의 방안에 관해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대사: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예술인·학술인을 교류하거나 서적·자료등을 교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요. 예컨대 한국태생이지만 온전히 캐나다가 길러낸 피아니스트 문익주(위니펙 교민인 마니토바주립대 사회학교수 문승규씨 아들)씨의 연주회를 한국에서 갖는다든가, 마가렛·앳우드, 마가렛·로렌스등의 캐나다 작가나 노드롭·프라이 같은 학자의 서적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한국문학을 캐나다땅에 소개시키는 것등이 있겠지요. 개인의 관계도 그렇지만 양국의 관계도 너무 물질적·경제적인 데만 집착하면 불행해 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교민의 역할이 컸지요. 저도 일부러 한국에서 족보를 갖고와 이렇게 비치해두고 캐나다인 손님들이 오면 우리의 뿌리를 자랑하곤 합니다만 민간외교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 힘이 크지요. 총연합회 같은 단체도 그렇지요. 이왕 캐나다정부가 한인의 날을 선포하고 총연합회를 한인을 대표하는 기구로 인정, 행사보조비까지 주었다면 한인사회대표자들은 중지를 모아 잘 키워서 코리언의 긍지를 빛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 이민증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캐나다 한인총연합회에서 추진되었었읍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의나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을까요?

교민은 양국을 잇는 고리역할

한국에도 캐나다학과 설치돼야

●이대사: 이민증대운동은 사실은 한국정부나 공관의 힘보다는 교민들 자신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캐나다경제가 나아져야 이민의 길이 열리겠고 이미 와 있는 이민선배들이 모범을 보여 코뮤니티에서 존경받는 시민들이 돼주어야 합니다. 교민 하나하나가 자녀교육, 가정교육을 잘 해서 2세들을 의사, 변호사는 물론 캐나다 군인, 경찰관등 각 분야로 진출시켜 인종 모자익 사회에서 한국인의 위치를 빛내주는 길이 어떤 정치적 힘보다도 큰 작용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교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모국이요, 캐나다는 입양국입니다. 교민하나하나가 양국관계를 잇는 고리(Ring)의 역할을 하지요.

○문: 그런 의미에서 외교관으로서 캐나다정계나 외교계에서 듣는 한국계 교민의 평판은 어떠했는지요?

●이대사: 2년반전 처음 부임했을 때 교민들 칭찬 많이들 하더군요. 그러나 그 상태를 더 낫게 해야지요. 명예를 깎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문: 교민신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대사: 글쎄, 제가 대사로서 신문에 대해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대체로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심을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여건하에서 잘들 해내고 있고… 이민정착에 도움을 주고 본국소식과 캐나다 소식을 두루 전하며 정신적 지표가 될만한 컬럼들, 생활영어, 법률상식등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디다.

○문: 지금까지 2년반동안의 오타와 재임이 이대사님으로는 첫 해외부임지이실텐데 한간에서는 외교관으로서는 무척 "행운아"라는 평들을 합니다. 재임기간에 양국정상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대사 자신은 오타와생활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대사: 한마디로 대단히 만족합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나 개인으로서는 부임이후 한·카 양국관계가 현저히 강화됐음을 느낍니다. 캐나다사회에서 한국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고 국제무대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됐으며, 캐나다정부의 수뇌인 수상이 세번씩이나 일개 대사의 집을 방문할 정도로 친해졌다는 것도 외교관으로는 큰 수확이고 ….

○문: 오랫동안 언론인생활을 거쳐 문공부 장관을 지낸 분으로서 특히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 대사로 계신 점은 교민들로서는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 기회를 빌어 교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대사: 어떤 동기에서건 일단 이민은 이상 뿌리를 깊게 넓게 내려서 잘 살아 주시길 바랍니다. 돈만 많이 벌어 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의의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사회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여 코리언 캐네디언의 얼굴을 빛내고 모국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캐나다교포는 재일교포등 다른 지역교포와는 달라 그 역사에 비해 비교적 빨리 모국에의 기여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모국정부도 캐나다 교민들을 잊지 않고 형편되는대로 지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호지원은 정신적인 측면 즉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요. ★

5분간의 落書

일본을 본다

홍 기 만

나는 일본인을 증오한다. 모든 한국인이 그러하듯 나도 그중의 하나다. 그러나 일본인은 경이적인 존재다. "왜놈이…"라는 감정을 앞세우더라도 경탄할만한 존재다.

나는 일본인을 바로보고 싶다. 이성을 갖고 정시하고 싶다. 정시하면 할수록 시기심마저 불러 일으킨다. 느닷없이 이는 시기심은 부유해진 이웃을 배아파해서가 아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단군의 자손은 서글프도록 하찮은 일을 되풀이해야 하기에 말이다.

1982년 한국의 여름은 무덥고 길었다. 「평화선」 문제가 들먹여질 때마다 거치른 구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1950년대의 광경이 재현되고 있었기에. 숱하게 참여했었고, 숱하게 보아왔고, 아마도 숱하게 보게 될지 모르는 낯익은 광경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게 없었다. 혈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면서 「극일(克日)」이란 낯선 단어가 선을 보였다. 일본을 따라잡자는 뜻일게다. 감정의 언어보다는 이성을 되찾고, 중국에 가서는 일본을 앞지르자는 뜻일 게다. 이 새로운 어휘에 어떤 정치적 함수가 내포되어 있다해도 나는 「극일」이란 말을 사고 싶다. 우리의 후세들이 이마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혈서를 쓰는 우리 세대의 모습을 반복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다. 「반일」이 「극일」로 변한 것은 「반공」이 「승공」으로 둔갑한 거와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한맺힌 역사를 잊을 순 없다. 잊어서도 안된다. 하지만 오늘에 보다 현명하라는 평범한 말이 있다. 솔직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선진국 가운데 근사치를 찾을 수 있다면 일본뿐이다. 그러기에 일본을 바로 보는데 인색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인 멸시의 경멸적인 언어를 자주 입에 담는다. 그러면서 그들위에 서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일본쫍이야…" 후려치기에 여념이 없다. 남의 것을 들여다 잽싸게 흉내내는 "Monkey see, monkey do"라고 비웃는다.

일본은 모방의 명수는 아니다. 그러나 응용의 천재다. 유럽에서 인간이 만드는 로보트를 들여다 인간 아닌 로보트가 로보트를 생산하는 것이 일본이다.

일본을 비웃는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야말로 흉내내기에 바쁘다. 6개월, 1년마다 모델이 바뀐 상품이 시장에 나오면, 복제품 만들기에 급급하다. 심지어 북한에서까지 「히다찌」냉장고를 들여다 「승표」라는 상호를 붙여 자기네 제품인양 떠벌리고 있는 몰골은 모방이 아니라 해적행위다.

우리가 「36년」을 거듭 울거먹고 있는동안, 일본을 얕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 일본은 아득히 먼 곳으로 줄달음쳐 있었다.

◆

11월호 〈HARPER〉지는 카버스토리로 일본을 다루었다. 그 내용중의 한 사진은 이렇게 말한다.

"A Japanese soldier home from the war finds a job, Tokyo, 1946."

군장(軍章)이 떼어진 군모와 군복을 착용한 패잔병 모습 그대로의 초라한 젊은이가 인력거를 끌고, 그 인력거에는 미군 중사가 미소를 띄우고 앉아있다.

사진은 굴욕의 순간을 증언했고, 그들은 모든 것을 삼켰다.

"나는 일국의 수상과 회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날 때 나는 트랜지스터 판매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드골 대통령이 사또 수상과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끝내고 한 말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견디어냈다.

◆

사회의 밑바닥을 흐르는 우리네 서민들이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교훈을 나는 오래전 일본의 서민생활서 발견한 적이 있다.

동경에서 나고야로 달리는 열차에 흔들리고 있던 내 맞은편 좌석에는 노부인과 딸인 젊은 여인이 앉아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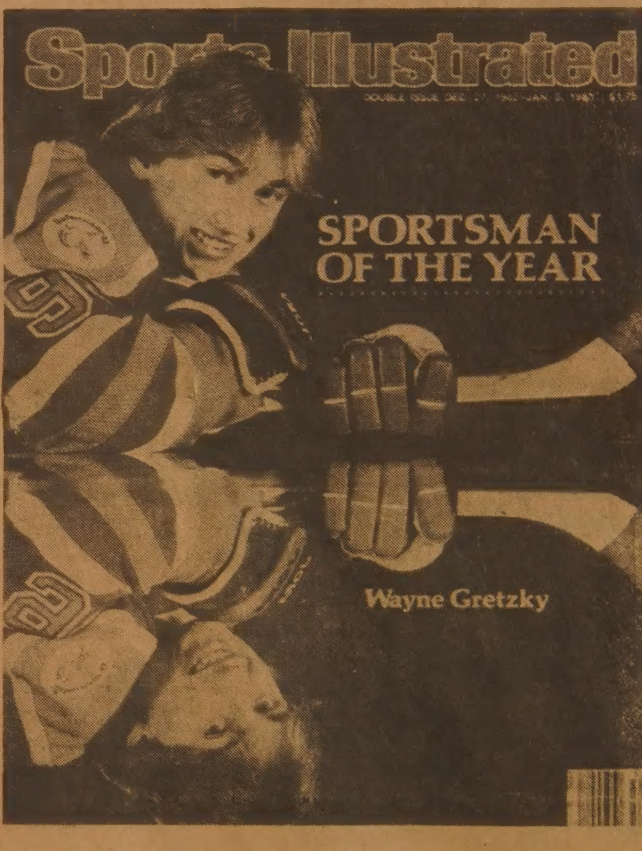
나는 우연히 여인이 핸드백 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백속에서 껌을 포장했던 빈 은박지를 꺼냈다. 그리고 씹던 껌을 싸서 의자에 붙어있는 재떨이에 넣는것이었다.

나는 한동안 차창에 흐르는 풍경에 멍하니 시선을 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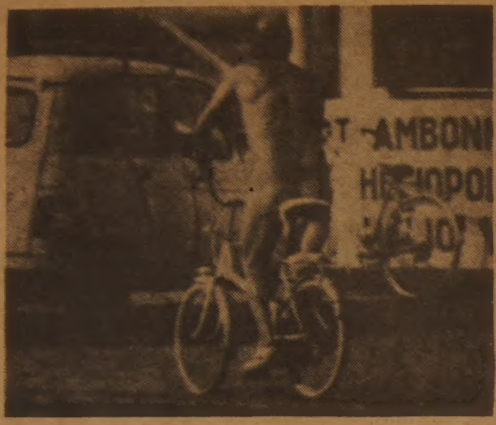
얼마후 열차내에서 파는 간이도시락으로 점심을 끝낸 모녀가 굵은 대패밥으로 만든 도시락곽을 돌돌말아서 도시락을 묶었던 끈으로 다시 맨 다음 청소원이 집어가기 쉬운 위치에 놓는 것을 보고, 나는 문득 「일본주식회사」라는 어정쩡한 말을 실감했다. 그리곤 그들 모녀는 나고야에 닿을 때까지 줄곧 책을 읽고 있었다.

몇년후의 일이다. 〈문예춘추〉란 잡지의 발행부수가 백만부를 돌파했다는 보도를 읽고 그때 노부인이 읽던 잡지가 같은 이름의 것임을 상기했다. 지성지가 백만부를 돌파했다는 것은 출판사의 자랑이 아니라 국민의 자랑이다.

나는 이십년전 내가 잠시 눈길을 두었던 두 모녀에게서 지금의 일본을 본다.



▲올해의 스포츠맨—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매거진이 82년의 스포츠맨으로 선정한 하키선수 웨인·그레츠키(21)가 이잡지표지를 장식했다. 그는 이번 시즌 27개 전국하키리그출전기록을 세웠으며 그중 연속 30게임에서 최소매게임당1포인트를 따내는등 맹활약을 했다.



▲조그만 타운인만큼 자전거는 훌륭한 교통수단. 몸에 걸치는것이라고는 신발뿐이다.

“아침에일어나 샤워한후 옷을 입지않고 그대로 밖에나가는 기분은 기막히지요”

▲옷도 없이 가방만 두른채 쇼핑하는 여성주민.

南프랑스에 最大누드村

“까다그드”타운에 2萬여명 몰려살아

마켓·食堂갈때등 모든生活 맨몸으로

“처음엔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젠 정상으로보여요”

남프랑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누디스트·컴뮤니티가 있어 화제.

까다그드라고 불리는 이 타운에는 2만명의 주민이 살고있는데, 은행, 수퍼마켓, 레스트랑, 나이트크럽, 우체국, 쇼핑·몰, 아파트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온갖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한후 옷을 입지않고 그대로 밖에 나가는 기분은 기막히지요』라고 은퇴한 경찰이며 이곳 주민인 스탄[illegible]인브리지는 말한다.

이 누디스트타운이 형성된 것은 25년전. 바닷가에 자리한 이 타운은 그면적이 [illegible] 74에이커이다

이 타운의 창설자이며 자연주의자이고 [illegible]트리뷴 "[illegible]이체" 이곳은 휴가때만 와서 옷을 벗고 휴가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장소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떠나 이곳으로 아주 옮겨 오고있다』고 말한다.

이곳 주민들은 전혀 옷을 입지않는다.

은행이나 디너를 먹으러 레스트랑에 갈때에도, 현금이나 체크를 넣기위한 옷도 입지 않는다.

까다그드 이웃 학교선생인 한 주민은 『백만 들고 쇼핑가는 것이 참 좋아요. 누디즘은 매우 매력적인 생활방식이예요』라고 들려준다.

이곳 생선가게의 주인은 『처음 가게를 오픈했을때, 맨몸인 손님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맨몸인 생선을 고르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보였지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정상으로 보인답니다』라며 웃기도.

〈독 자 투 고〉

지난 1년간 본지의 독자투고난을 적극 활용해 준데 대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투고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일로에 있어 본지는 신년부터 독자투고난을 위해 한 페이지를 할애할 예정입니다.

◉독자투고는 성함과 주소가 명기되어야 하며 전화번호도 기입해 주시면 편집상 문제가 있을때 연락에 도움이 되겠읍니다. ◉원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핵심만 쓸것을 요망합니다. ◉편집권은 본지에 있기 때문에 다소 수정이 뒤따를 경우도 있으며, ◉또한 일단 접수된 원고는 본사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편집자 드림 —

신뢰받는 한인회가 되자

정 일 송

전 캐나다 교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토론토 한인회의 건전한 발전은 캐나다에 사는 전 교민의 관심사요, 바람이다. 본인은 오는 1월15일에 있을 토론토지구 한인회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한인회의 운영과 관련된 몇가지 소견을 총회, 이사회, 집행부(회장단)의 순으로 피력하고자 한다.

①총 회

총회는 일정한 연령(성인)에 달하는 전 회원이 모여 단체(회)의 기본질서인 법(회칙, 정관)을 제정하고, 중요한 정책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총회에서 제정된 회칙은 회원, 집행부, 이사회가 회와 관련된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총회 자체의 운영도 회칙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만약 회칙이 부적당하면 먼저 회칙부터 개정한 후에 이를 실천해야 한다.

회칙이 준수되지 않는 단체는 질서가 파괴되고, 신뢰를 잃게 되며, 불신은 비협조로 나타나서 단체의 힘을 약화시킨다.

모든 회원은 총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회칙을 개정하고, 회의 각기관(이사회, 집행부, 기타 특별기구, 사무국)이 회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일하였나를 물어야 하고, 보고를 받아야 한다. 한인회 행사에 기부금을 내는 것에 못지 않는 중요한 일이다.

총회에 제의되는 안건이나 보고사항은 사전에 신문에 그 내용이 보도되어(현실적으로 볼 때 회원들에게 알리는 적합한 방법으로 간주됨)총회에 참석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비판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더구나 중요한 회칙개정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반드시 공고되어 회원들의 여론을 들어야 한다. 일반회원은 총회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총회는 「소집」되어야만 활동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회장이 총회를 잘 운영함은 회장으로서의 첫째의 사명이요, 회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②이사회

제11조(이사회) : "이사회는 총회의 대행 의결기관이다".라고 되어있는 현 회칙은 법률적 견지에서 이해할 수 없다. 총회는 그 자체의 고유한 권한과 사명을 갖고 있다. 어떤것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가는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총회의 대행 의결기관」이 아니라, 총회 다음으로 중요한 의결기관이다. 사실상 많은 일들이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짐을 볼 때 이사회의 구성은 보다 광범위하게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의 의결」을 총회에서 다룸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예산의 증감은 이사회의 진지한 토론으로 의결함이 족할 것이다. 만약 중대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전체회원의 의사를 묻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회는 중요한 의결기구인만큼 그 의결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사회는 회칙을 준수하는 시범이 되어야 하며, 부단히 연구하여 회칙 또는 각 규정이 회의 발전의 근본 질서가 되도록 개정 또는 제정함에 이바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임원탄핵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불신임안」을 결의하거나, 회비납부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은 권한밖의 일이며, 회칙 준수가 아니다. 회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처는 회칙에 구체적 규정을 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즉 회칙 「제8조 일항 나」에서 의무이행자에게만 임시총회 소집권을 줌과 같다. 이사회는 한인회가 보다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회칙의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위한 작업의 추진을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③집행부(회장단)

회칙의 규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올바른 집행이다. 그러므로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선거하며, 회를 대표한다. 회칙을 준수함은 물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

본인이 입후보를 했건, 이사회가 추천을 했건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제33조의 경우)했건, 회장으로 취임한 이상 사명은 마찬가지이다.

회칙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라는 또하나의 의결기관이 있는데, 집행부는 회장단에 의하여 소신껏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구는 의결기관보다는 심의기구가 더 적합할 것이다. 회의를 세번 거친다는 것(운영위원회, 이사회, 총회)은 일을 신중히 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형식적이 되거나 비능률을 수반한다.

회장단은 회기초에 연도사업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전문인사들을 찾아 아이디어를 얻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을 입안하여 이사회에 넘기고, 이사회는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고, 회장은 거기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단체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과거 사업계획을 승인(의결)해준 이사회가 "왜 특정사업을 실시 않는가?" 라고 「회장불신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을 외부에서 볼 때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토론토한인회가 사업계획도 없이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했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회장단은 많은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순서나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의 회원 또는 이사의 충고나 질문에도 성실히 답해야 한다. 성실한 답변은 비판자를 협조자로 바꿀 수 있으며, 솔직한 사과는 신뢰를 쌓고, 구차한 변명은 불신과 비협조의 근원이 된다. 물론 한인회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신상에 관해서는 개인이건 신문이건 개의치 않는 것이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인회는 회원들 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회원들간의 약속인 회칙의 준수는 신뢰를 얻고 협조를 받는 정도(바른길)이다. 모든 한인회의 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칙준수」와 「성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 런던한인회장)

노력의 연속

—운전면허 따기까지—

이상온(토론토가정주부)

이 나라 문명속에 살려면 우선 언어소통과 풍습에 적응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59년간 살아온 전통을 무시할 수 없다. 침묵으로 일관해 왔지만, 자식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안된다.

작년 어느날 자식들 몰래 3일간 밤을 새워 공부하고 운전필기시험에 응시하니 예상밖에 패스되였다. 용기를 얻어 실기연습을 하던중 남편의 병환으로 2차에 걸쳐 병원입원 12달, 예기치 않은 눈길위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탔는데, 차사고등을 목격하니 "늙게 무슨 운전이냐? 포기할까? 말까?" 망설이던중 자신이 운전연습중 전선대를 받고 보니, 더욱 아들딸이 막무가내로 "어머니는 제발 못 받을 면허니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딸들도 역시 "택시 타고 다니시면 될 걸 자식들 걱정 덜어주세요"하고 반대들하나 오로지 남편만은 "늙어 조용히 자식신세 덜지게 운전 배워두워. 면허 따놓으면 생활에 자신이 생기고, 젊음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고 북돋아 주었다.

그렇치만 간간이 운전선생을 통해 배우면 주머니 사정이 딱해지고, 남편의 호독한 면박과, 험난한 구박소리!

나는 38년간 함께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 남편은 섬세하고 선량한 줄 알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맹세가 허세고, 하루는 잔디위에서 엉엉울며 "다시는 당신에게선 안배운다"고 냉전속에 며칠 지나면 또다시 "해야지. 시종일관 「칠전팔기」(七転八起)를 외치며, "내 자신을 위한 일인데 끝을 보아야겠다"고, '병신같이 못난여편네 데리고 사는 당신이 불쌍해요." 하길 몇번…

1~5회 떨어지니 이제는 더욱 "너같은 ○○은 천만해도 떨어진다"며 "돈이 아깝다! 왜 시작했나?" 후회도 많았고, 포기할까 망설였지만, 하루는 남편이 수십년간 살아온 과거를 들치며 "너같은 ○○하고 살았으니 너 때문에 내가 요모양으로 산다"니, "재수가 없다"니 별별 소리를 마구 퍼붓는데, 이런 과정을 거칠적마다 나는 솟구치는 마음을 금할길 없어 "따고 말아야지"하고, 하루는 버스를 몰래 타고 그날에 취소하는 사람 대신 실기시험을 치는 속에 끼여, 그 결과 다행히 "굳 패스"라고 들었지만 다시 사무실에 들어자 확인하고, 그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나는 많이 혹독하게 겪은듯 싶다. 부끄럽지만 시험전날 교회에 나가 진실을 고하고, "저에게 힘을 줍시사"하고…

그날 박회민목사님 말씀이 "긴장보다는 평화로! 저주보다는 사랑으로!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시험관이 옆자리에 앉으면 굳어지며, 긴장했던 것은 사실였었지요"이 귀한 말씀을 몽땅 내것으로 삼고, 하나부터 100까지 세어가며, "나의 기량대로 판단해 주십시오"하고 기도드렸다.

늙은 아줌마 가르쳐주신 오행근선생께 감사드리며, 남편의 피끓은 가르침에 힘입은 덕분으로 합격한 줄 안다.

앞으로 더욱 조심과 기량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일종에 경기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더 쌓아보겠으며, 혼자 차를 끌고 나가려면 또 한가지 언어소통에 근심이 생겨 이제는 영어회화 공부를 좀 해서 만일에 대비해야 하겠다.

New Year's thoughts

by : John Kim

I stayed in Korea until I was six years old, spending my entire six years in Korea with my grandparents. While I was with my grandparents my mother and father were in Canada. So every New Year in Korea I would be with my grandparents. They would dress me in the finest children's clothing on New Years. On New Year's Day I would have to do a New Year's greeting to my grandparents, and after that they would give me some money for doing the New Year's greeting(and I really enjoyed receiving that money too). After that We would get together to have a nice meal but now I'm in Canada. I do not have any grandparents. and I don't need to do a New Year's greeting to earn money. Canada's New Year is not much different from ours, only a bit less fancier. They don't dress so fancily(but some people do) like we do. And instead of money they exchange presents. I don's have any special feelings about up-coming New Year. To me it's just the ending of one year, and the beginning of another.

캐나다의 설날 (토론토거주·7학년생)

◆필자

나는 6살때까지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동안 엄마, 아빠는 캐나다에 계셨다. 그래서 한국에서 새해 설날에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야 했다. 설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옷을 입혀 주시고 세배를 드리면 그 댓가로 돈을 주셨다.(이 돈을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 세배가 끝나면 식구들이 함께 모여 명절 음식을 즐기곤 했다.

이제 나는 캐나다에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계시고, 돈도 벌 수 없다.

캐나다의 설날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별로 한국의 설날과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돈을 주는 대신 선물을 주고 받는다.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감흥은 없다. 그저 한해가 끝나면서 또 한해가 시작될 뿐이다.

참여·단결·책임

이 근 영(컴퓨터 프로그래머)

◆필자

무언가 막연한 꿈에 부풀어 단독이민길에 오른지도 두어달 후면 만 일년이 된다. 그간의 외롬고, 쓸쓸함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으로 이어졌다. 공연히 처와 자식을 고생시키는구나 후회속에서도 직장때문에 이리뛰고 저리뛰다보니 그 고통과 피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느껴왔다. 나와 내가 속한 우리 한인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망년의 한때를 보냈다.

우리는 한인회에 대한 참여의식, 책임감등을 충실히 지켜 그의 성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나? 한인들의 조직이나 단체는 그 소속원인 한민족들의 발전은 물론 캐나다사회에서의 다른 민족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목표로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회원들이 그 단체나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등이 단체의 장(長)이나 몇몇 간부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 단체나 조직은 존재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다 사라져 갈 것이다.

산발된 대화 또는 분산적 의견은 명제를 잃게 하고, 그 조직의 목적을 망각시켜 불균형한 단체를 만든다. 단체의 목적에 부합리로 의견을 가진 책임의식과 단결을 목표로 한 참여의식이 단체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내일의 창조적 결실을 위해,

우리는 오늘 참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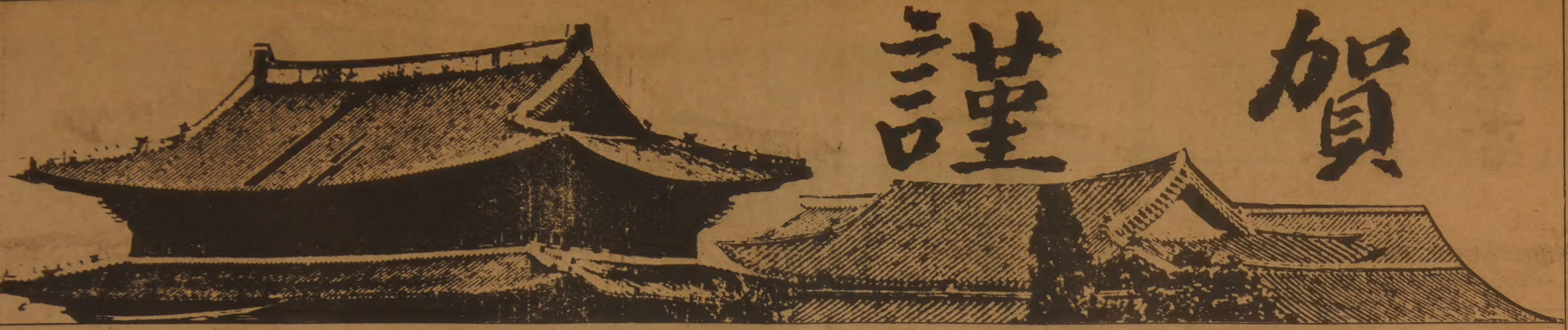
단결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슬기롭고, 조화있는 한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도록 도와주는 바탕이 될 것이다.

Happy Holiday Season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한국관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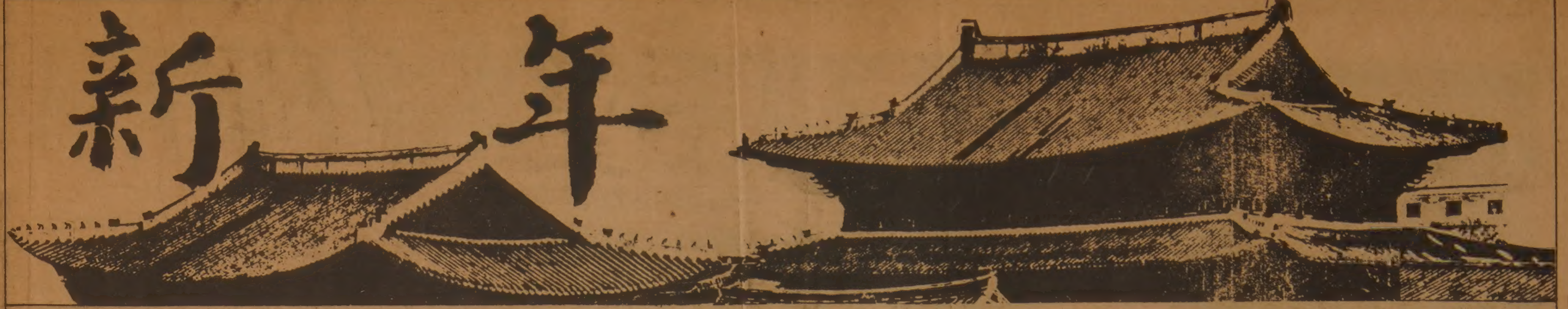
〈정초〉 1월1일 영업합니다
ㅁ크리스마스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5주년 개업기념 봉사
83년 3월말까지 (단 토·일요일은 1회)
짜장면 $3.25
곰 탕 $3.25
냉 면 $3.25
비빔밥 $4.00
육개장 $4.00
영업시간 : 오전10시—새벽1시까지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謹賀



Big Seven 선물센타 김 영 철 533—7966	한 국 기 원 김운서, 정근영, 변의섭 533—0168	볼 링 협 회 정 용 필 742—2193	선 · 라이프 김 신 명 922—3111(B), 791—8196(R)	에 코 시 가 구 점 김 만 구 2300 Yonge St, 486—0397
NEW STAR PIANO 이 상 철 665—8233	황 해 도 향 우 회 회장 : 김 춘 순 368—1602	사 진 협 회 회장 전경수외 임원일동 438—4435	김 미 영 무 용 연 구 소 499—5079	쌍 방 울 메 리 야 스 602 Bloor St, W. 532—5394
Skyway 사업용기계 김 인 환 675—1295(B), 671—0938(R)	호 남 향 우 회 651—8835	온타리오한국맹인후원회 회장 : 원종필 593—8943	김 용 순 무 용 연 구 소 김 용 순 922—2241	샘 터 의 상 실 606 Bloor St, W. 535—4441
STEREO KING 김 봉 훈 2989 Dundas St, W. 766—4770	ROYAL DONUTS 이 양 섭 536—8088	코 리 아 타 운 번 영 회 장 순 채 532—2727	문 인 협 회 회장 조정대외 회원일동 1—723—0981	무 나 미 트 로 피 이 기 훈 298—3584

新年



윤 중 태 치 과 360 Bloor St, W, #307 925—2408	Kim's 냉장고·에어콘 김 진 환 749—3178	황 용 현 부 동 산 임윤식·이헌영·강정숙·임분옥 449—8644~6	GRANT BROWN GM 이 한 구 247—7161	Young Flower Shop 김 순 환 589 Yonge St, 960—6265
이 영 일 치 과 30 Humber Town Centre Suit 9 Islington 233—9301	RICHVALE Heating & Cooling 오 현 구 752—0404	A·E·LEPAGE부동산 우 덕 이 1174 Albion Rd, 741—9170	North York Chev—Olds 김 병 권 881—5000, 221—2979	다 우 스 꽃 집 대표: 이 동 환 464 Dawes Rd, 751—5851
최 해 경 치 과 586 Eglinton Ave, E, Suit 208(at Bayview) 483—9515	PALMER'S AIRCON 김 봉 균 750 Oakdale Rd, Unit lo, 494—0512	Kim's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타일, 유리일체) 535—4441	스 피 디 인 쇄 소 곽 호 중 535—3520	제 인 팍 꽃 집 여 정 웅 769—0609
훼 밀 리 닥 터 왕 운 린 600 Sherbourne St, #402 968—1543	훼 밀 리 닥 터 최 등 영 600 Sherbourne St, #308 964—0471	Kimbo Electric Co, 김 부 원 245—5544	칠 성 인 쇄 소 한국해외개발공사 현지고문 이 인 용 789—7351	케 네 디 꽃 집 대표: 김 웅 일 2252 Bloor St, W, 762—1572

땀 흘려 모은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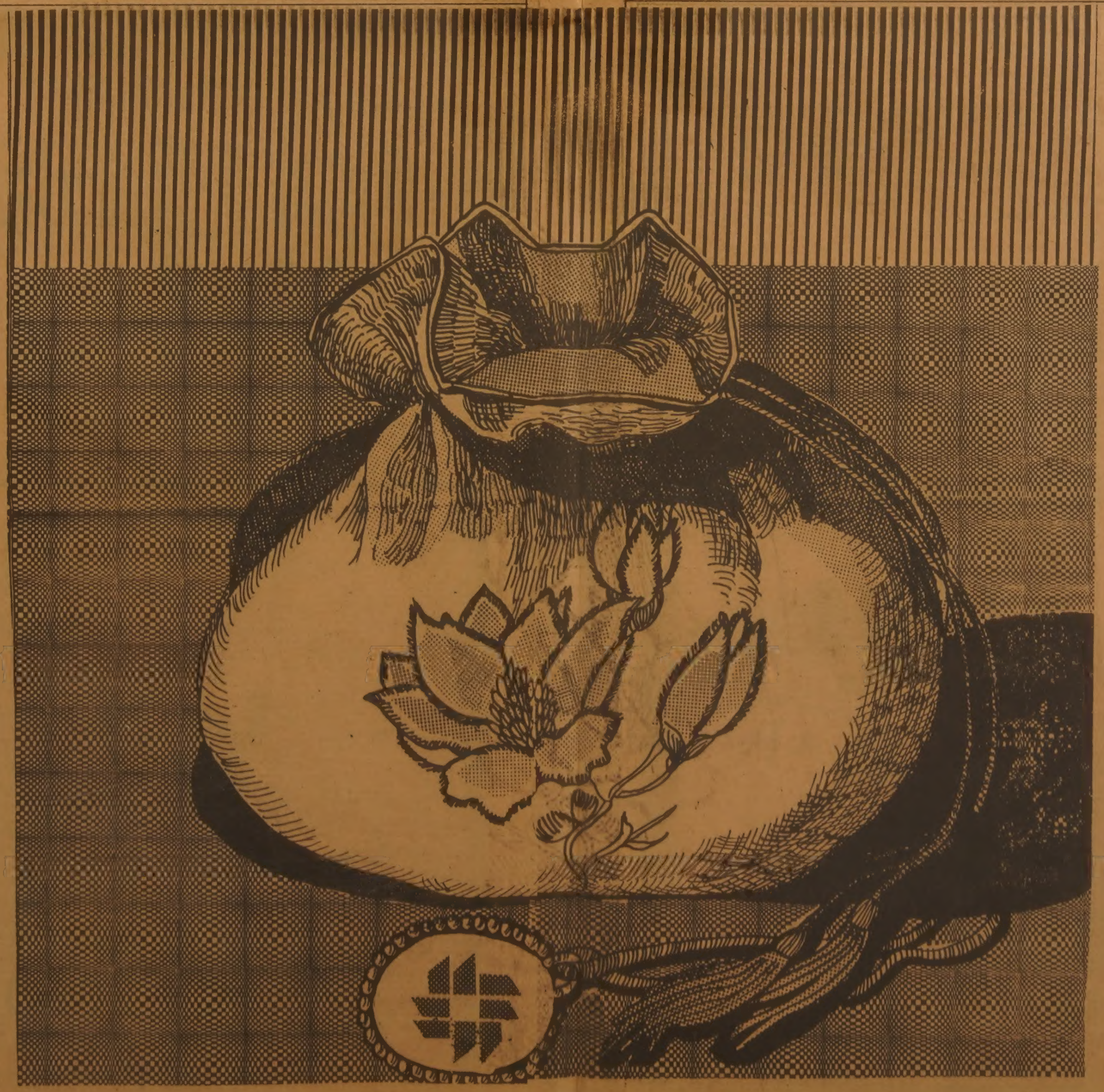
노력하면 먹고 살수아 있다지만
돈을 모으기는
정말로 어려운 생활.
한푼의 돈이 곧 한방울의 땀입니다.

꽤 버는 것 같아도
어디론가 다 스며들어가 버리고마는
생활의 연속···

당신이 흘린 땀 한방울 한방울이
헛되히 흘러가 버려서야 되겠읍니까?
저희 은행은
여러분의 귀중한 돈을

안전하게 맡아서
크게 키워 드리는
믿을만한 은행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맡기신
돈 그 자체보다도
그 뒤에 스며 있는
땀방울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방파제,
믿음직한 금고,
그리고 생활의 자상한 안내자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외환은행이 새해를 맞이해서 교포여러분에 만복을 빕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N EXCHANGE BANK OF CANADA

임직원일동

본 점	블루어지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O.BOX 402, TOR., ONT. M5X 1E3	629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6G 1K8
364-2890	533-8593

영업안내/ 예금 대출. 수출입. 송금. 모기지

캐나다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보장합니다.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번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 칼럼

決算을 해보니…

주름살 하나에 떡 하나…

사건記者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인술(仁術)의 일각이 병들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와 입원기간을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사취한 의사와 환자 뱃속에 수술기구를 놓아둔채 봉합한 정신나간 의사가 있었다。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생명의 담당자들이라는 점에서, 의사들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실망 또한 적지않은 사건이었다。 이번주 「기자수첩」에는 1억5천만원이라는 기록적 사망보험금을 받은 유족에게 「상속세등 5천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濟州 소식도 메모됐다。

관리잘못 개주인 입건

▲서울강동경찰서는 개를 소홀하게 관리, 행인을 물게한 개주인 金홍대씨(47·농업·서울시강동구 둔촌동582)를 과실상해혐의로 입건했다。

金씨는 지난6일하오 12시반께 집앞에 묶어둔 1년생 잡종개가 지나가던 李홍칠군(20·재수생·서울시동대문구 상봉동 222의66)의 허벅다리를 물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경찰은 개주인 金씨가 개끈을 도로변까지 갈수있을만큼 길게 묶어두었다는 이유로 金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金씨는『우리개는 약을 올리지 않으면 물지않는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국내사망보험금 지급사상 최고액수인 1억5천만원을 받아 화제가 됐던 유족에게 상속세등 세금이 5천만원가량 부과돼 또한번 화제。

高英子씨(34·여·제주시 건입동)는 지난30일 남편 金학호씨가 사망하자 동방생명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10일 제주세무서로부터 이에 대한 상속세 4천58만원, 방위세 8백11만원등 4천8백69만원을 납입하라는 통보를 받은것。

병원서 사고환자 입원보험료 조작 횡령
환자 뱃속에 수술기구 놓은채수술한의사

<그림·權大雄>

교통사고 보험료 착취

▲水原지검仁川지청은 교통사고환자의 치료비와 입원기간을 조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1천6백만원의부당이득을 취한 경기의원원장 高충열씨(46)와 사무장金석기씨(36)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1월12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金정순씨(42·여·仁川市南區龍峴洞561)의입원기간이 실제 2일밖에안됐는데도 12일로 연장, 보험회사에 11만1천5백원을 받아내는등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25명의 교통사고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기간을 연장, 모두 1천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것。

▲강원도 春川 경찰서는 春川市要仙洞인 성병원의사崔외기씨(49·서울마포구망원동427의14)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김면수씨(60)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해11월12일 하오3시께 이병원에 장중첩증세로 입원중인 환자 金영복씨(42·강원도 楊口郡楊口邑井林里)를 수술한뒤 뱃속에 금속으로된 길이16cm 폭6cm의 지혈감자(일명켈리) 1개를 놓아둔채 그대로 봉합해버려 金씨는 그동안 병원을 옮겨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는것이다。

초만원 女湯서 자리다툼 暴力에 男종업원 나타나자 大騷動

▲서울동부경찰서는 13일 대중목욕탕안에서 자리다툼을 벌여 같은 욕객을 다치게한 崔모씨(23·여·서울성동구성수2가)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

崔씨는 12일 하오3시께 일요일을 맞아 초만원이된 서울성동구자양동 C목욕탕에 들어가 자리를 찾다가 수도꼭지앞의 崔일분씨(33·주부)에게 『방금 내가 앉았던 자리니까 비켜달라』고 요구했으나 崔씨가 『무슨 소리냐』고 비켜주지않자 두 여인은 말다툼을 벌였고 崔씨가 주부 崔씨를 밀어뜨려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는것。

탕안에서 두 여인이 10여분동안이나 고함을 지르며 다투자 싸움을 말리러 남자종업원이 여탕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문에 다른 여자손님들이 질겁을하며 몸을 감추거나 탈의실로 뛰쳐나오는 소동을 빚기까지 했다고。

면허증보이고 택시절취

▲서울청량리경찰서는 朴勝鎬씨(32·경기도東豆川市生淵洞608)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朴씨는 지난7일하오3시40분께 서울청량리역앞에서 택시를 탄후 운전사에게 자기 운전면허증을 내보이고 『운전연습을 해보자』며 운전대에 앉아 서울동대문구 장안동727 앞길에 이르렀을때 운전사에게 『콜라를 사오라』며 내리게한후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나는 등 지난 11월23일부터 지금까지 택시6대를 같은숫법으로 훔친혐의다。

朴씨는 훔친택시로 영업을 하면서 지난5일하오1시30분께 서울동대문구면목7동 수원쌀상회(주인 유영순·45)에서 쌀가마를뒷좌석에 싣고가다 『차가 고장난것 같다』며 유씨를내리게 한후 내빼는등 네다바이까지 했다고。

醉中핑계 정복경찰 때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吳春男씨(42·상업·서울중구중림동306)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폭력등 전과11범인 吳씨는 지난10일 새벽2시께 중구중림동754앞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다 순찰중이던 서대문경찰서 중림파출소 李光秀순경(40)이 『왜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느냐』며 말을 걸자마자 뒤로 돌아서며 주먹으로 李순경의 오른쪽 귀를 때려 고막이 터지는등 전치3주의 상처를 입혔다는것。

이웃 주점에서 친구3명과 함께 밤늦도록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다 급한김에 소변을 보게됐었다는 吳씨는 『어두운 밤중이라 정복경찰관인줄 모르고 엉겁결에 주먹이 날아갔다』고 변명。

▲大邱북부경찰서는 결혼을 미끼로 정을 통하고 돈을 뜯어낸 咸모씨(30·大邱市北區七星洞)를 혼인빙

•새이름 남강
•고급레스토랑
그라나다
923-3060
920 Yonge St.

밝은 새해아침을 맞아
여러분 가정위에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문에 안난 現場」

자 간음및 사기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咸씨는 2명의 자녀까지 둔 유부남이면서도 지난해 11월 경북龜尾市에서 만난 李모양(24)에게 『상처한 독신이니 결혼하자』며 유혹, 여러차례 정을 통했다는것.

咸씨는 또 大邱市東區新岩洞의 18평짜리 연립주택 분양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李양에게 내보이며 『우리의 보금자리』라고 꾀어 5차례에 걸쳐 5백여만원까지 울궈낸 혐의다.

손님重傷입힌 技士

▲서울강남경찰서는 승리한시택시소속 서울4바 2543호 택시운전사 徐建石씨(35·서울중구신당동239의39)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徐씨는 지난5일 밤9시40분께 서울강남구 염곡동 399 앞길에서 승객 金慶文씨(44·상업·동대문구 답십리2동58의83)를 태우고 답십리로 가던중 金씨가 대치동 은마아파트쪽으로 갈것을 요구했으나 강남구신사동에 가 연료를 넣어야 한다며 코스문제로 시비하다가 金씨의 옆구리를 발길로 차 갈비뼈 3개를 부러뜨리는등 金씨에게 전치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11일 하오7시께 서울 종로구내수동192 경도목욕탕 한증실에서 金忠鉉씨(42·상업·서울서대문구홍은동48의84)가 숨져있는것을 종업원 金光鉉씨(22)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종업원 金씨는 이날하오 7시께 영업을 끝내고 뒷정리를 하기위해 한증실문을 열어보니 金씨가 반듯이 누운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金씨의 몸에 상처가 없는 것으로 미뤄 뜨거운 한증실에서 심장마비로 숨진것으로 보고있다.

무당푸닥거리 효과없자、夫婦 보상청구

▲병을 낫게하고 액운을 없앤다는 무당의 말에 속아 거액을 주고 푸닥거리 등을 해온 부부가 자칭 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釜山市南區龍湖1洞5440의1 宋영승(48) 崔숙자씨(45)부부는 지난 9일 자칭 도사인 무당 金소수씨(50·여·釜山鎭區 開琴1洞544의7)를 상대로 8백25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

소장에 따르면 崔여인은 지난80년1월 金여인의 점괘를 보고 액운이 끼여 몸이 아픈것이라며 2차례에 걸쳐 푸닥거리및 전신마사지등까지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못했으며 남편 宋씨에게는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려 치료비조로 15만원을 받았다는것.

이들 부부는 또 金여인이 지난80년 6월10일 자기 소유의 釜山鎭區草邑洞山21 소재 임야 2천7백30평이 지금은 자연녹지라 쓸모없지만 곧 풀려 대지로 쓸수 있다고 말한데 속아 7백50만원을 주고 이를 구입했다며 푸닥거리비용등을 합쳐 8백25만원을 내놓으라고 주장.

自律化로 고객끌기 열올린 제주다방들

▲지난해 3월 다방허가가 자율화된 이후 제주도내에 다방수가 급증하면서 손님을 끌기 위한 갖가지 작전이 펼쳐지고 있어 이채.

이 지방에는 최근 24시간 영업을 하는 심야다방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모닝·코피에 달걀을 서비스하는데서 한걸음 나아가 차를 주문하기 전에 당근주스와 홍즙등을 서비스하는 다방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

심지어는 차 주문이 많은 단골 회사에 대해 다방 종업원이 꽃꽂이를 도맡아 하고 사무실 청소까지 해주는 다방도 있다고.

현재 제주시내의 다방수는 지난81년3월 자율화이전 1백31개소에서 1백99개소로 늘어났다고.

棋士姜씨, 향군위반구속

▲서울관악경찰서는 11일 프로바둑기사 姜勳씨(25·4단·서울관악구신림9동251)를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姜씨는 지난80년7월부터 지난9월까지 모두 11번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불참, 8번이나 고발을 당했다는것.

姜씨는 경찰에서 프로바둑 대국준비를 하느라고 예비군훈련을 못받았다고 말

사건記者 수첩

했다고.

▲9일 밤10시40분께 서울마포구신수동 西江大앞에서 梁順玉씨(34·여·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312의17)가 포니승용차를 모는 25세 가량의 운전사에게 현금 25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 수표·적금통장등 모두3백만원상당의 금품이 든 핸드백을 차치기 당했다.

여의도 홍우상가에서 양장점을 경영하는 梁씨는 이날 상가앞에서 종업원 李숭웅양(27)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는데 마스크를 한 청년이 운전하는 포니승용차가 멈춰서더니 가는 방향을 묻고는 같은 방향이니 태워주겠다고 했다는것.

梁씨등을 태운 이 운전사는 西江大앞에 이르자 차를 세운뒤 『차가 고장났으니 뒤에서 좀 밀어달라』고 말해 梁씨등이 핸드백을 차에 둔채 차를 밀려고 나간 순간 시동을 걸고 그대로 달아났다는것.

경찰은 1백70㎝가량의 키에 장발을 한 25세 가량의 이 청년을 수배했다.

합판 잘못던져 꼬마다치게한 行商구속

▲서울강남경찰서는 11일 文東愛씨(48·고물행상·경기도城南市新興2洞284의58)를 중과실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文씨는 지난9일 상오10시반께 서울강남구서초동85의1 금성빌딩 4층 비상계단에서 16m 아래의 도로로 크기 약1평짜리의 합판을 던져 때마침 이 곳을 지나던 姜一■씨(38·서울강남구반포동305의2)의 장남 현회군(5)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文씨는 빌딩 옥상에 버려진 이 합판을 집에 가져가 땔감으로 쓰겠다며 빌딩주인으로부터 얻어낸후 계단으로 들고 내려가기가 귀찮아 계단에서 길 아래로 던졌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가짜휘발유 양산판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李憲永씨(38·서울강동구길동394의10) 李현재씨(서울도봉구미아8동734)등 3명을 소방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蔡모씨(43)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蔡씨는 서울강남구포이동 58의1에서 동우상사라는 화공약품상을 경영해오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李현재씨등 2명의 종업원을 시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어 1천3백60드럼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주로 운전사들에게 20ℓ당 6천7백원씩 받고 모두 9천여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다.

영장이 신청된 李우영씨는 蔡씨 가게에 있는 기름탱크를 빌어 지난10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백70만원어치(86드럼)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것이다.

▲12일 상오9시께 서울성북구정릉4동 鄭日炳씨(50·회사원)의 집 건넌방에서 鄭씨의 큰딸(24)이 음독, 숨져 있는것을 아버지 鄭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鄭씨에 따르면 일요일인 이날 아침식사를 하라고 딸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방에 가보니 문이 안으로 잠긴 채 입에 거품을 물고 반듯이 누운 자세로 숨져 있었고 머리맡에는 약병과 유서가 놓여 있었다는것.

유서에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수는 없다. 나는 삶과 적응할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도 가진것이 없다』는 등의 글이 씌어 있었다.

가족들에 따르면 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소 미국유학을 꿈꿔 왔으나 부모들이 한국실정에 맞게 결혼이나 하라며 반대하자 고민해 왔다는것.

<정리·黃升應기자>

살림의 지혜

겨울철 모발 손질

추운 겨울철엔 피부 손질 못지않게 모발 손질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이 떨어지고 찬 바람이 세게 불면 머리결이 거칠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물론 심하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겨울철 모발손질 요령을 알아본다.

머리손질의 기본은 규칙적인 빗질이다. 빗으로 충분히 빗으면 먼지·때·비듬이 잘 빠질뿐아니라 발모(發毛)를 촉진시키고 모근(毛根)을 자극하여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빗는 횟수는 아침 저녁 두차례 그때마다 50회정도가 적당하다. 지나치게 자주 빗으면 머리털이 상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빗은 모발손상을 막기위해 빗살이 적당한 간격으로 균등하게 놓여있는 단단한 것이 좋고 빗을 때는 허리를 약간 굽히고 빗의 솔하나하나가 모발 속에 들어가도록 빗는다.

머리가 긴 경우는 머리끝까지 한꺼번에 빗지말고 길이를 이등분하여 빗는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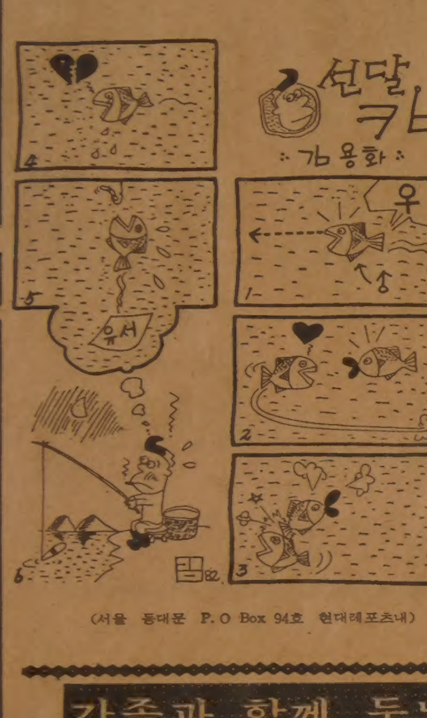
또 모발의 건강을 위해서는 두피마사지도 효과가 있다.

두피마사지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피부지방의 분비를 조절하고 모근을 자극하여 머리털의 발육을 돕는다.

마사지방법은 손끝을 사용하여 목부분에서 이마를 향해 반원모양을 그리며 돌리듯이 눌러주고 네손가락을 모아 윗부분부터 약간씩 눌러주는 동작을 반복한다. 또 손가락을 깍지를 끼고 머리꼭대기 부분에 손바닥을 펀펀히 놓거나 머리를 조금씩 잡아 머리가 나있는 방향과 반대로 2~3회 잡아당기는것도 효과적이다.

세발은 미지근한 물에 모발타이프에 따른 샴푸를 사용, 1주일에 2회정도 감는것이 적당하다.

두피 마사지와 빗질을 한후 미지근한 물에 세발을 하되 샴푸가 머리에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번 헹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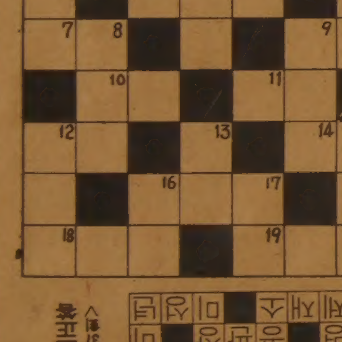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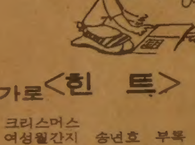
(서울 동대문 P. O Box 94호 현대레포츠내)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37회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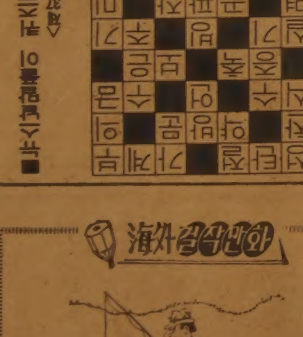


■가로 <힌 트>

1. 크리스머스
3. 여성월간지 송년호 부록
5. 약을 짓기 위해 약명과 분량을 적은 종이
7. 한강오염으로 끓여서 먹음
9. 받은 돈을 거두어 들임
10. 집을 더늘려 지음
11. 은혜를 갚음
12. 좋은 기회를 놓침
14. 한 바퀴를 도는 시기
16. 판매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판매하는곳
18. 벌채한 나무를 자르는곳
19. 만 20세이하

■세 로

1. 예수의 최후를 기념하여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
2. 아껴씀
3. 집안과 문중
4. 초상난 집에 부조로 내는 돈
6. 사투리
8. 물을 끓이면…
9. 기온 따라 오르락 내리락
12. 86년이후로 실시 연기
13. 미끌 미끌, 겨울엔 조심해야
15. 3·1운동
16.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17. 영국의 국화



土亭 李之菡의 「토정비결」

숨은그림 찾기

이토정은 이조 중종대왕 12년(1517) 고려문신 목은 이색의 6대손으로 태어났다. 이조 선조때의 문신을 지냈으며 이름은 지함, 호가 토정이다.

토정은 음양술수학을 배워서 천문·지리·복술등에 통달하여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예언하였고, 토정비결이란 책을 지었다.

그는 며칠씩 굶어도 배고픈일도 없고, 눈위에 누워자도 추운줄을 모르며 길가다가 피곤하면 두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선채로 잠을 잔는데, 소와 말이 받고 차도 끄떡하지 않았다 한다.

그는 국내명산을 두루 돌아본뒤 10년후에 큰난리가 날터이니 정신차리라고 사람들을 깨우쳤다.

그 큰난리란 임진왜란을 가리킨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가난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고 도둑들을 선도하여 살길을 터주었으며, 걸인청이란것을 만들어 걸인과 노약자의 구호에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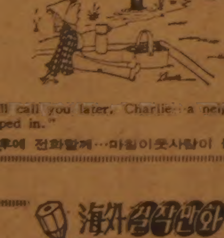
타고난 성품이 남달라 어려서부터 엉뚱한짓을 잘했으며 그의 괴상한 행동과 기지에관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많이 전해져 온다. <자료중에서>

■숨은 그림

백조, 물음표, 도장, 붓, 삼각자, 사발, 알파벳H, 칫솔, 골프채, 압정, 쌍절곤, 빗비

구성 장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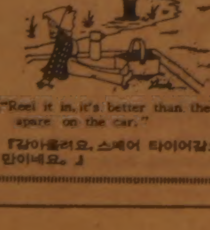
海外걸작만화



"I'll call you later, Charlie…a neighbor just dropped in."

『조금후에 전화할께…마침이웃사람이 들렀다오.』

海外걸작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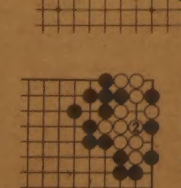
"Reel it in, it's better than the spare on the car."

『감아올려요. 스페어 타이어감으로 그만이네요.』

妙手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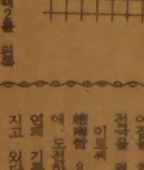
<문제도>

黑 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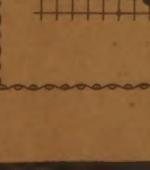


黑이 잡히지 않는 방법이 있다. 패를 내어 白을 잡는다.

<해답도>



제1도=흑1로 끊어가 백2로 누르면 흑3의 먹이는 수. 백은 어느 1쪽도 잡을수 없다.



쌍방적이 방법이다. 백2를 왼쪽으로 두면 흑은 1로 이어진다.

제2도=단수라고 흑1로 둘이면 백2로 받게 되어 패.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趙治勳、棋聖도전권 따내

가또 9단에 不計勝, 藤澤棋聖과 1월頂上다툼

○…제7기 棋聖戰(讀賣新聞주최) 도전자 결정 3번승부 제1국에서 趙治勳 名人은 가또·마사오(加藤正夫) 9단에게 2백52수만에 다섯집반승을 거두었다. 9일 일본기원에서 열린 대국에서 백을 쥔 趙名人은 우상귀에서 리드를 잡아 우세를 보였으며 가또 9단은 1백6회 패착을 범했다. 趙名人은 16일 열린 제2국에서 불계승을 거둠으로써 도전권을 획득했다.…○

이번 기전은 趙名人·本因坊이 일본 棋界사상 첫 3대기전의 타이틀 정복과 연간 수입 3억원 돌파의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 첫번째 관문이어서 국내외 바둑팬의 관심은 높다.

趙名人은 상금액수 제2위의 「名人」(상금 1천5백만엔), 3위 「本因坊」(1천2백만엔), 5위 「十段」(5백만엔) 타이틀외에 「鶴聖杯」(4백만엔), 「秀哉杯」(4백만엔)등 5개의 타이틀을 보유, 현재 일본 기계의 최강자임을 과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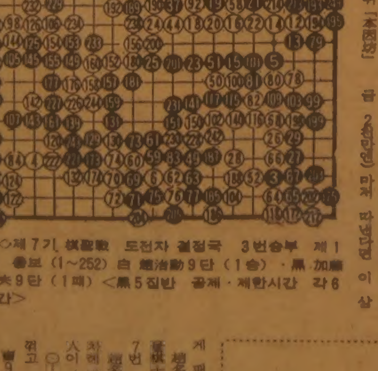
여기에 상금 1위인 「棋聖」(상금 2천6백만엔)마저 따낸다면 이 상금과 기타 대국료 수입까지 합해 일본 바둑사상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기사가 되는것이다.

趙名人은 이 제1국에서 승리한 뒤 나머지 2국중 1국에서 더 이겨 도전권을 따냈다. 현재의 棋聖은 후지사와·히데유끼(藤澤秀行) 9단.

그런데 도전자 결정전서 맞붙은 가또 9단은 75년 이후 趙名人과 가진 7번의 대국에서 계속 趙名人에게 패했다.

趙名人이 도전권을 따냄으로써 「괴棋士」로 불리는 후지사와 棋聖과 7번 승부를 갖는다.

趙名人은 최근 후지사와 棋聖과 3차례 대국을 가진 바 있는데 모두 趙名人이 이겨 棋聖位 정복 전망이 밝다.



◇제7기 棋聖戰 도전자 결정국 3번승부 제1국 총보(1~252) 白 趙治勳9단(1승)·黑 加藤正夫9단(1패) <黑5집반 공제·제한시간 각6시간>

週間 바둑話題

○…曺薰鉉 國手가 徐奉洙 7단을 꺾고 國手位를 지켰다.

曺9단은 10일 벌어진 제26기 國手戰 도전 5번기 제4국에서 徐7단을 2백67수만에 1집반으로 이겨 타이틀방어와 함께 國手位 7연패를 기록했다.

曺9단의 선번으로 시작된 이날 대국은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으로 맞서 중반 집 부족을 느낀 黑이 좌하귀에서 변화수를 시도했으나 실패, 白의 미세한 우위로 진행됐다. 종반에 접어들면서 白은 승부수를 적어 대세를 유리하게 이끌다가 치밀하고 경쾌한 國手가 끝내기 단계에서 20여집을 차지하는 묘수를 연발, 대역전극을 펼쳤다.

이로써 金寅의 아성을 다시 흔들고 趙南哲 8단의 國手位 9연패 기록에 도전하게 된 曺國手는 「기어코 9연패 기록을 깨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鄭>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M OFF TOMORROW.

퇴근길에 내일 다시 만나자는 같은 직장의 미국인 동료에게 「내일은 내가 노는날이다」를 말한다는 것이 I play tomorrow. 라고해서웃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마도 이분은 「논다」는것을 play로 직역했음에 틀림없으리라.

off는 쉬는, 휴가의 뜻으로 「내일은 비번이다」는I'm off tomorrow. 가 정답이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내일 하루를 쉬어야되는 경우에는 Can I take tomorrow off?라고 하면 된다.

A : Hi, John.
B : Hi, Sue. You look pale. Are you ill?
A : No, I'm just tired.
B : You should take a day or two off and rest.
A : I'm off tomorrow. It'll give me a chance to catch up on my sleep. When are you off?
B : Not until next week.
× ×
A : I think I'll take a day off next week.
B : Won't your boss mind?
A : No. I'm entitled to it for working during the weekend of our convention.
B : You mean you get a day off instead of being paid overtime?
A : That's right.
B : I think I'd rather have the money, but I guess having some free time during the week isn't really all that bad after all.
A : I heard you were working as a waitress. How come?
B : I wanted to have my mornings free during the summer, so I took a job working afternoons and evenings.
A : Are you also working on weekends?
B : I have every orther weekend off.
A : What a great schedule!
B : I know. It couldn't be better.
A : 안녕하세요? 잔.
B : 안녕하세요? 수. 안색이 창백한데 어디 편찮으세요?
A : 아니예요. 그냥 피곤한것 같읍니다.
B : 하루나 이틀쯤 휴가를 받아서 쉬셔야 될 것 같군요.
A : 내일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내일은 그동안 못잤던 잠을 잘수 있을 거예요. 언제가 쉬는 날이세요?
B : 다음주에나 가야 쉬는날이 돌아옵니다.
A : 다음주에 하루 쉬려고 생각해요.
B : 당신 보스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A : 아니요. 우리 총회때 주말에 근무했기때문에 쉴 수 있읍니다.
B : 오바타임 수당을 받는대신 하루를 논다는 뜻인가요?
A : 그렇습니다.
B : 나라면 차라리 돈으로 받겠읍니다만 주중에 한가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결코 그렇게 나쁜것만은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A : 웨이트레스로 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거니?
B : 여름동안 아침시간을 쉬려고 오후와 밤에 근무하는 직업을 택한거예요.
A : 주말에도 역시 일하니?
B : 2주에 한번씩 주말에 쉽니다.
A : 참 근사한 스케쥴이구나.
B : 알고 있읍니다. 정말 좋아요.

연재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106

지난줄거리

세검정 으슥한 술집에서부터 교태를 피운 술아는 춘찬을 ○호텔까지 끌고 갔다. 철저하게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결심한 춘찬은 술아를 벗겨내려갔다. 두 사람은 열락의 늪에 빠져 허위적거렸다. 결국 술아는 파김치처럼 늘어졌다. 일본애들은 춘찬의 표창을 몰래 빼냈지만 춘찬에겐 비밀표창이 남아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춘찬이 앞에…

몸을 감싼 대형수건의 감촉이 싫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방안의 분위기를 훑어보았다. 문고리를 눈여겨 봐도 이상이 없었지만 뭔지 모르게 변했다는 예감이 들었다. 벗어 놓은 옷가지도 그대로 있었고 흐트러진 침대도 그대로였다. 만약 사람이 몰래 들어와 숨을만한 곳이라면 침대 밑뿐이었다.

일본 애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정신없이 술아와 뒹굴때 공격하는 게 최선이었을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 공격하지 않았다. 함부로 덤벼들지 않으려는 조심성이었을지도 모른다. 아까 들어왔을 때 눈치채지 않게 침대밑에 발을 넣어보고 유리창의 커튼을 점검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쾌락의 늪을 헤매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침대밑을 일찌감치 손댈 생각도 들었고 끝까지 두고 지켜볼 배짱도 생겼다.

담배 한대를 빼어 불을 붙이고 침대를 유심히 살펴 보았다. 전혀 변한 게 없었다. 그러나 침대 밑이 자꾸 불길해 보였다.

『개운하지?』

술아가 물었다. 수건 한장으로 사람이 훨씬 아름다와질수있다는걸 느낄수 있었다. 물기가 남아있는 그녀의 몸은 내게 또 욕망의 사슬을 던졌다. 욕망이란 주체할수 없는일에 열중하고 나면 작은 후회의덩어리가 쌓이는것인데 술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묘한 흡인력을 지닌 여자였다.

『여러 남자 잡았겠다.』

나는 정말 그녀의 몸을 칭찬하고 싶었다.

『여러 여자 녹였겠는데, 뭘.』

술아도 지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머리칼에 묻은 물기를 닦아냈다.

『널 갖겠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 말야?』

『그래.』

『다혜는?』

『헤어졌잖아.』

『정말 헤어진 거야?』

『네가 필요해.』

나는 그녀의 입술을 힘주어 빨아들였다. 술아도 꿈틀거리며 받아들였다. 나는 지금의 내 기분이 거짓말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육체를 그녀에게 팽개쳤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프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가 내가 원하면 처녀를 팽개쳐버렸다는 것과 육체의 유희를 터득했다는 사실, 내 육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내들에게서 터득했다는 일종의 질투심이 남아있었다.

『다혜와 헤어질 수 있어?』

『이미 헤어졌어.』

『왜 날 선택하지?』

『내가 좋아하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순 없다. 그냥 내 기분이 뭐야.』

나는 반쯤은 의도적이었지만 나머지 반은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오싹해졌다. 누굴 좋아한다는 게 장난일 순 없지만 내가 술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묘한 내 이중성이었다.

술아를 손아귀에 넣고 싶었다. 그녀가 나를 해치기 위해 나를 선택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술아를 완벽하게 잡아끄는 방법도 일본 애들과 교묘한 싸움에서 기선을 잡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다. 다혜를 버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완전한 결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 다음에 어떤 낯으로 다혜를 쳐다볼 수 있을까?

하나님.

별로 할말이 없읍니다.

나는 다시 불 붙는 육체를 끄고 싶었다. 악착같이 육체를 지킨 다혜에 대한 가증한 복수심이기도 했지만 술아를 그냥 두고싶지 않았다. 육체에 있어선 어느 경우도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술아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다. 그녀의 일생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겨주고 싶었다.

이게 사내들이 갖는 못된 자만심인지도 모른다.

두 번째의 격렬한 몸짓은 처음의 몸짓과는 달랐다. 침대 밑에 숨어있을 낯선 사내를 자극하고 싶었고 그런 사내를 숨겨놓고도 육체의 잔치를 계속하는 그녀에게 상처를 남기게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

침대밑에 있었으면 어떤 얘깃거리가 있을것 아닌가

술아는 가쁜 숨을 골으며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겠지.』

『미워.』

『노래하는 거야?』

『몰라.』

코먹은 소리였다. 그렇다고 내 저정이 멈추진 않았다. 술아를 실험동물처럼 다루고 있었다.

술아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다루기만했다. 발치 끝으로 금새 창날이 빠져나올것 같았지만 술아를 육체에 눈 뜬 여자를 그냥 놔둘수는 없었다. 이건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는 것에 지나지않는 행위였다. 그저 승부욕 뿐이었다.

술아는 숨을 멈추었다. 끊어졌다 이어지는 숨소리 끝엔 그녀의 처절한 신음이 묻어나왔다.

술아는 흐트러졌다. 결승점에 도착한 장거리 선수가 쓰러지듯 그렇게 쓰러졌다. 목이 타는지 물병을 가리켰다. 나는 누워있는 그녀에게 물병을 쥐어줬다. 침대가 흠뻑 젖도록 그녀는 조금씩 조금씩 물을 마셨다.

그리고 침묵이었다. 우리는 영원히 말하지 않을 것처럼 누워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나를 탈진시켜 그들 계획대로 처치할 생각을 할 것이고 침대 밑과 밖에서 기다리는 녀석들은 내가 잠들기를 기다릴지 모른다.

『날 사랑해?』

한참만에 술아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이미 내 가슴 속엔 준비된 대답이 있었다.

『아직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할순 없잖니. 좋아한다는건 확실하지만.』

『그럼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어?』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금방 죽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왜 이래?』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해. 너같은 여자와 즐기다가 죽는 게 소원였지만.』

『그러니까 만났잖아.』

『하나님은 참 묘하단 말야. 어떻게 남자와 여잘 요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 딱딱 들어맞게 만든 걸 보면 장난꾸러기 아니면 잔인한 마술사같애.』

『샤워할까?』

술아가 땀투성이인 내 가슴을 입술바람으로 불며 물었다.

『샤워할 힘도 없어.』

『잤겠더라.』

『자고싶어.』

『끈끈해서 어떻게 자려고. 내가 닦아 줄께.』

나는 마지못해 따라 일어섰다. 당장이라도 침대 밑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기로 했다. 어떤 녀석인지 침대 밑에서 여러가지 고통을 참느라고 애를 썼을 것 같았다.

꿈의 온도를 맞춘 술아가 내 귀를 잡아당겼다.

『날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책임져야지.』

『맹세할 수 있지?』

『맹세한다.』

술아는 내 눈을 응시했다. 나도 지지않고 술아를 노려보았다.

『일본애들이 뒤쫓는 거 알아?』

『침대 밑에 한놈 들어있을 거야.』

『뭐?』

『날 속이지마.』

『어떻게 알았어?』

『네가 날 유혹할 때부터 알았지. 그 뒤를 우리 애들이 또 쫓고 있으니까.』

『미안해. 난 돈이 필요했었어.』

술아는 솔직하게 시인했다. 감추거나 비굴하게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필요해서 이런 짓을 맡았니?』

『그건 묻지마.』

『좋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되는 거나?』

『나도 잘은 몰라. 걔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어떻게든 힘 빼서 재우게만 하랬으니까.』

『수면제 작전은 없니?』

『민감해서 안될 거라고 하던데. 약은 없었어.』

『빨리 씻는체 해.』

우리는 대충 몸을 씻었다.

『미안해.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가 일본애들 앞잡이가 되다고 생각하니 한심한 생각도 들었어. 그러나 난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 날 이해할 수 있지?』

『좋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라. 나를 해치우고 나면 반드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너를 해치우는 건 그런 세계에서의 원칙이라는걸.』

『무서워 죽겠어.』

『내 말대로 해. 너도 살아나고 싶으면 내가 잠든 체하고 있을테니까 빨리 신호를 해서 걔들이 맘놓고 나타나게 해야돼.』

『날 지켜줘야 돼.』

술아는 나약한 여자였다. 어떤 재앙을 받았는지 아직 알 순 없지만 그런 조건에 나를 유혹해놓고 후회하고 있는게 확실했다. 그녀가 후회하기를 기다리기 위해 나는 쓸데없는 육체의 승부를 걸었던 것이다.

우린 밖으로 나왔다. 나를 감시하고 있는 일본 애는 한명 뿐이고 나머지는 그들의 하수조직에서 제법 악명을 떨치는 애들이란 것만이 내가 알고 있는 전부였다.

술아는 눈짓으로 옷을 입으라고 했다. 나는 재빨리 옷을 입었다.

『왜? 가려고 그래?』

『가야지. 누나가 기다려.』

『왜 이래? 그럼, 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술아가 매달려 떼를 쓰는 시늉을 했다.

『집에 가야 돼. 어서 옷 입어.』

『싫어. 가려면 혼자나 가. 이 밤에 어딜 가라는 거야?』

술아가 앙칼지게 대꾸했다. 그녀는 배우처럼 굴었다. 침대 밑에 있던 녀석이 당황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참, 정말 안 갈래?』

『우리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난 지금 돌아갈 수도 없단 말야.』

『참,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된다. 약속이 있어.』

『그러지 머.』

나는 옷을 벗는 시늉을 했고 술아는 그 사이에 재빨리 옷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는 태연하게 침대위에 누웠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말을 시켰다. 침대 밑에 있는 녀석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잠들때까지 침대밑의 사내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까지 참은것도 내 성깔에 안맞는 짓이었다. 나는 정면대결을 원하는 놈이지 뒤통수를 갈기는 짓은 싫었다. 술아가 잠자코 있으라고 손을 잡았지만 내 의지를 꺾을순 없었다.

나는 소파에 기대앉아 침대 밑을 가리켰다.

『어이, 침대밑에 있는 친구. 그만 나와 침대에서 편히 주무시는게 어떨까?』

잠잠했다. 술아가 내뒤에 바짝 붙어서 겁먹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뭣하면 나오쇼. 사내가 쩨쩨하게 숨어있어서야 쓰겠소. 술이나 한잔 합시다.』

침대가 흔들렸다. 사내가 불쑥 튀어나왔다. 왼손에 날선 칼 한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듬직한 체구에 긴머리였고 청바지 주머니가 불룩했다.

『왼손잡이시군. 파일은 준비가 안됐으니 치우시지, 그래.』

사내가 술아에게 눈짓을 했다. 비키라는 신호같았다. 술아가 두어발짝 옆으로 비켜 섰다.

『파일없다고 했잖아. 거기 얌전하게 앉아서 침대밑에서 느낀 얘기나 하지, 그래.』

사내는 말이 없었다. 표정이나 자세가 보통 칼잡이는 아닌것같았다.

『가만 있어봐. 한 얘기가 있을거야 아닌가. 침대밑에 있으면 그렇게 희한한 얘깃거리가 있었을거 아닌가. 이사람아.』

사내는 그래도 말이 없었다. 칼든 손이 유연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순간에 소름이 오싹 끼치는 걸느꼈다. 우습게 넘길 칼잡이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웬만한 녀석이라면 일어서지도 않겠는데 녀석의 동작이 눈빛은 전문가 같았다.

나는 재빨리 허리띠를 풀었다.

『몸조심하게.』

녀석이 칼을 휘둘렀다. 매서운 바람소리가 일었다. 공격의 심도로 미루어 살상의 뜻보다는 제포의 뜻이 숨어있는 것 같았다.

두번째 칼날을 피하며 나는 허리띠로 사내의 무릎을 감아 내던졌다. 칼을 쥔 손목의 급소를 뒤꿈치로 때렸다. 칼날이 바닥에 누웠다.

뒤곽지를 잡아 앉혔다.

『으으윽 으으으…』

사내의 신음소리가 절규처럼 들렸다. 급소를 맞고도 버둥대는 걸 보면 보통 단련된 사내는 아니었다.

나는 사내가 벙어리라는 걸 눈치챘다. 급소를 누르고 물었다.

『애들 어딨어?』

고개를 저었다.

『으으으오 으으윽!』

일본놈 칼잽이 노릇 또 하면 그 손목을 못쓰게 하겠다

동물처럼 신음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사내였다. 혈을 지그시 눌렀다.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고개는 연신 흔들었다. 이 정도면 입을 열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벙어리가 확실했다.

사내는 조정하는 애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나를 물어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른 채 숨어 들어온것 같았다. 이 사내를 보낸 것은 일본애들의 치밀한 작전같았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뒤를 캐나갈수 없게 하겠다는 전술같았다. 몇번 드세게 다루었지만 이 벙어리 사내에게서 알아낼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국인이나?』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놈을 위해 칼잡이 노릇을 한번만 더하면 그땐 손목을 아예 못쓰게 하겠다. 알았지?』

사내는 고개를 또 끄덕거렸다. 나는 사내의 왼팔 혈을 조금 더 눌러주었다. 괘씸한 생각을 하면 한동안 손목을 못쓰게 해주고 싶었지만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 몇푼에 팔려야 하는 사내가 안됐다 싶었다.

그리고 사내는 내 동족이었다.

비록 일본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곤 있지만 내 동족이며 같은 피를 나누어 가진 사내였다. 더구나 동족의 언어마저 잃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벙어리였다.

『가라. 그리고 명심해라. 굶어죽더라도 일본놈 앞잡이는 하지마라.』

사내는 왼팔을 쥔채 고개를 숙였다. 문을 열어주자 뒤돌아 두번 절을 하고 복도를 뛰어갔다. 알아줄었을지 모른다. 일본애들의 사주를 받아 동족을 괴롭힌 자신의 죄를.

『이제 어떻게 하지?』

술아가 질린 얼굴로 물었다.

『내가 먼저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

『보통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복병하면 복병하게 해줘야지.』

우리는 옷매무새를 고치고 복도로 나왔다.

『내 차는 제대로 왔겠지?』

『왔을거야.』

『당분간 숨어있을 생각해.』

『무서워 죽겠어.』

『내가 숨겨 줄테니까 걱정말고. 너하나 책임 못질 수야 없잖아.』

술아는 팔을 낀 채 따라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아는 귓속말처럼 말했다.

『어디선가 숨어서 우릴 본 것같애.』

『걱정말고 따라와.』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몰려드는 깊은 밤이었다. 한 녀석이 지나가는 것처럼 다가섰다.

『애들 찾았나?』

『예.』

『몇명 찾을 수 있겠지?』

『그럼요.』

『한놈도 놓치지마라.』

『삼선동 벙어리새끼도 끼어있어요.』

『어느 쪽이냐?』

『오사카모하고 코피숍.』

『내가 아예 말불러니까 너희들은 위를 맡아.』

『예.』

녀석은 신이 났는지 뛰어 갔다.

우리 애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를 풀어놓은것 같았다. 내 신변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애들을 많이 동원한것 같았다.

나는 안내하는 녀석을 멀찌감치 따라붙어갔다. 술아가 자꾸 몸을 웅크렸다.

『이 여자를 내 차로 태워가라. 잘 지켜줘라.』

한 녀석이 술아를 데리고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걸 확인하고 코피숍으로 들어갔다.

나는 세명의 사내가 앉아있는 차탁 옆에 무조건 앉았다.

『내가 장춘찬요. 얘기 좀 합시다.』

놀랍게 벌떡 일어나는 녀석들의 옷을 잡아 앉혔다. 우리 애들이 앞으로 모였다.

〈다음호에 계속〉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聖堂 司祭館만 턴 도둑

가족없어 훔치기 쉽고 신부님들 申告안해

장·발장이 神父司祭館의 은촛대를 훔쳤다가 神父로부터 용서받는 장면을 생각한 것일까—성당과 神父司祭館만을 골라털던 한 장·발장지망생(?)이 경찰에 붙들렸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13일 천주교회및 司祭館만 골라 모두 9회나 절도행각을 일삼았던 柳時學씨(20·주거부정)를 검거했는데… 『성당같으면 도난신고를 안할줄 알고』 성당을 털었던 柳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으나 결국 구속됐다.

◇성당및 사제관만 노려 모두 9회에 걸친 행각을 벌였던 柳時學。『도난신고를 하지 않을것같았고 신부님은 혼자 살기 때문에…』라고 성당을 노린 이유를 말했다。

지난13일저녁 왕십리 중앙시장부근. 연말연시범죄예방검거계치근무중인 경찰에 한청년이 걸려들었다. 이 청년은 장물로 보이는 카메라, 녹음기등을 갖고 있었고 경찰은 이 청년을 연행, 신원을 확인했다.

성명 柳時學. 1961년6월1일생. 본적 전남광산군비아면신가리376. 주거는 일정치않음.

컴퓨터 조회결과 2건의 절도전과사실이 밝혀졌다. 78년6월 절도죄로 가정법원에 이첩된 적이 있고 81년에는 다시 절도로 잡혀 상습절도범으로 1년10월의 형을 받고 수원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경찰은 카메라, 녹음기등이 장물임을 확신하고 물품의 출처를 추궁했다. 처음 『아버지것이다』 『친구것이다』 등 횡설수설하던 柳는 전과사실이 밝혀지고 더이상 발뺌할수없게 되자 『훔친것』임을 털어놓게 됐고 놀랍게도 성당과 신부 사제관만을 모두 9회에 걸쳐 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범인 柳가 털어놓은 범죄 내용은 이런 것이다.

지난해 절도범으로 붙잡혀 수원교도소에서 복역한후 금년초 부모와 두동생이 사는 성남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은 말이 집이지 집밖으로 떠도는 생활이었고, 가방공장등에서 직공으로 일한적도 있으나 무직, 주거부정, 무위도식으로 설명되는 삶이었다.

자연 돈이 궁해지고 남의 물건에 눈이 갈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두번이나 교도소 신세를 져본 처지에 함부로 남의 물건을 탐내다 또다시 교도소로 가는 일은 피하자는 쪽으로 머리가 회전했고 위험부담이 없는 곳을 찾는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성당과 신부사제관을 지목하게 됐다.

장물 처분하러 나왔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구속
전과2범…神父는 처벌 원치않았으나

柳가 범행한 성당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175 3에 주소를 둔 상대원동천주교회와 역시 성남시 단대동 5331 3 단대동천주교회 두곳이다. 이 두곳에서 금년3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연거푸 9번의 절도행각을 했다.

『우선 집근처에 있어 주위사정을 잘 아는 만큼 범행하기가 용이했고 언제나 들어가면 돈이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신부님은 최하 도둑을 맞았다고 신고하지는 않을것 같았기 때문에 성당을 택했다』는 것이 柳가 사제관전문털이가 된 동기라면 동기다.

금년 3월20일 밤12시, 柳는 처음으로 상대원동 천주교회의 담을 넘었다. 이 성당은 미국인 李浩尙씨(42)가 사무장으로, 관리를 맡고 있는데 마침 이날 李씨가 자리를 비운사이 柳는 쉽게 범행을 할수 있었다. 첫번째 범행에서 柳는 성당사무실에서 60원짜리 우표30장과 현금8천원등 9천8백원 어치를 섭게 훔쳤다.

柳는 첫번째 범행에서 비록 값진 것은 훔치지 못했으나 출입이 생각보다 쉬웠던 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4월5일 다시 같은 성당의 담을 넘었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사무실 자물쇠쯤은 드라이버로 쉽게 열수 있는 柳는 두번째 범행에서 현금1만원과 히다찌 녹음기 한대를 손쉽게 챙길수 있었다.

도난신고도 안하는 것 같았고 성당 터는데는 이력이 나버린 柳는 세번째인 5월5일에는 성당사무실에만 만족하지 않고 신부사제관까지 넘보게시리 발전했다. 柳는 역시 상대원동성당에 담을 넘어가 우선 사무실에서 양말, 팬티등 옷가지를 슬쩍 한 후 칼을 이용, 나무로 된 사제관 출입문을 따고 숨어들어갔다. 창유리를 드라이버로 깨고 방안으로 숨어 들어가 신부님이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속에서 현금6만원을 챙겼다.

범행이 무척 간단하고 무엇보다도 신고가 되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자 柳는 한 성당으로 발을 뻗기 시작했다.

9월10일 밤12시. 이번에는 성남시 단대동 533의3에 주소를 둔 단대동천주교에 들어갔다. 우선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 사무실 철창은 드라이버로 간단히 제거했다. 柳는 이날 현금 5만원을 훔치는데 성공했고 이어 9월 30일에 현금7만원, 10월15일에 현금3만원, 10월25일에 현금5만원과 싯가 7만원짜리 녹음기 한대를 단대동 천주교회 사무실에서 안전히 챙겼다.

8번째 범행이 된 11월9일에는 역시 단대동천주교회의 담을 넘어 들어가 사제관으로 침입했다. 베니어로 된 부엌문을 칼과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현금10만원, 싯가 35만원짜리 녹음기와 싯가20만원상당의 카메라1대, 신사구두, 양말, 마이크, 탁상시계, 만년필등 싯가 8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닥치는대로 쓸어 넣었다. 전후 9차례의 범행중 최대수확(?)을 올린 날이었다.

마지막 범행은 11월28일 밤11시에 역시 단대동천주교회 사제관에 들어가 신부님이 벗어놓은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14만원을 훔쳤다.

이렇게 9차례에 걸쳐 성당및 사제관을 턴 금품은 경찰추산으로 모두 1백27만여원어치였다.

柳씨는 검거되던 날 중앙시장에 장물을 처분하러 나왔다가 운이 없어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린 것인데 9차례의 도난사건중 신고된 것은 단1건에 불과했고 피해를 입은 신부님들은 한결같이 처벌치 말아 줄것을 당부해 柳가 범행대상은 제대로 골랐던 것 같다.

『신부님들은 혼자 살기때문에 사제관은 털기가 쉽다』고도 예기한 柳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혐의로 구속됐다.〈瑞〉

구독신청
월~토
☎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讀者페이지

■投稿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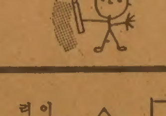
〈단물만 빨아먹고 버려라〉
플레이 보이가 껌을 오래 씹는 친구에게 들려 주는말.
손진화(서울성북구 석관동77의64)

〈인생은 분명 즐거운것〉
울음보다 웃음이 많기때문이다.
김종찬(전국낙서문학회·창녕군청 새마을과)

〈노인과 아이는 잠이 없다〉
노인들은 신기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보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아이들은 이 세상 모든게 신기해 보이니 잠이 오지 않는다。
팍자집(산1번지 달동네 대변인)

★〈어느 자선남비의 이색구호〉
딸랑딸랑(동전 넣는 소리)—이 소리가 아닙니다。 풀석풀석(지폐 넣는 소리)—이 소리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선가의 헌금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원철연(유머작가)

지금 웃는중



〈군밤·군만두·군참새·군고구마·군오징어 좋아하는 사람〉
군살 쪘더라。
원철연(유머작가)

〈축! 사법고시합격〉
××동창회·친구·가족·이웃주민·하숙집아줌마, 그리고 또 한명 마담 뚜。
원철연(유머작가)

〈국외적으로 본 82년〉
평명한 한 해였다。
—개해—

〈토끼와 거북이〉
밝은 날은 토끼, 눈 오는 날은 거북이。
화양동OB시음장(코믹필명 50개 돌파를 자축하며)

〈82년은 큰손시대였다〉
여자(장여인)는 큰 손으로 돈을 주고 받았고, 남자(프로야구)는 큰 손으로 공을 던지고 받았다。
피카소황소

〈노총각을 늙은 곰에 비유한다면〉
노처녀는 쓸개이에 비유련다。
한키호테(土月文友會·숭록동을바산)

〈내년은〉
돈년(豚年)이다。

〈신기한 마술이었다〉
땅에서 얻은 금메달을 물속에서 건져내다니…。
—빙판에서 최윤희선수—
경재호(성내동)

〈형님! 먼저 올라가세요, 곧 뒤따를께요〉
철도·사외·버스 요금이 연쇄되자 시내 버스가 하는말。
맹비(낙서 연간문화계)

〈처녀를 쉽게 울릴 수 있다〉
예 한 마디에。
—산부인과 의사—

〈25時〉
공공요금 연장 타임。
제갈공명(서울동대문구면목1동91의31)

〈성탄절과 소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 같다。 해마다 이맘 때면 소주가 팔리는 걸 보면…。
박 현

〈中東의 귀국자들에게〉
김포공항에 도착 즉시 마중 나온 당신 아내의 환성 어린 선망의 눈초리가 여러분에 제일 먼저 닿는가를 살피라。
1, 당신의 얼굴일 때는 예금통장의 금액이 예상외로 많을 것이다。
2, 당신이 손에 든 00? 가방에 쏠릴 때는 예금통장은 비어 있을 것이다。
헐꺼비(LIBYA에서)

〈새해 첫날 첫소리는?〉
「냉수 한 그릇」에 해부옥이다。
—당년의 주당—
김선형(土月文友會편집장)

(詩) 〈중 동〉

아!
역사의 발자취 따라
나 여기 사모위에 섰노라

손 감회라도 있을 듯하건만
그저 메마름 뿐이다

먼 훗날 우리는
이 서글픔일랑 말하지 말자

먼 때—
적막 같은 모래산 위엔
족달만이 울었다

최성식(BEMA 913호 HYUNDAI CONSTRUCTION CO. LTD. P. O. BOX 1275 BENGHAZI. LIBYA)

◇알 림

☆이번주의 최우수작은 〈어느 자선 남비의 이색구호〉입니다。 원철연씨! 축하합니다。

상품은 등산·레저장비 전문메이커인 한라스포츠(☎0925)가 제공하는 고급 코펠트입니다。

☆독자만화 투고를 바랍니다。 독자만화는 호가 거듭될수록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읍니다。 〈久〉

送年특집 週刊한국 選定

제15회 82년 各界 最低大賞 —그 主役들—

> 最低라 해도 태연할수 있는 사람은 最高란 말을 들어도 興奮치 않는다
> <프랑스 속담>

한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도 이제 며칠후면 새 달력으로 바뀔 때가 됐다. 「개」의 해에서 「돼지」의 해로 넘어가면서 週刊한국은 14회(79년도)까지 실시하다 중단했던 「最低賞」을 부활, 시상식을 갖는다. 이 시상에 즈음 「最低속엔 最高가 공존(共存)한다」 그리고 「逆도 眞이다」는 뜻을 되새기며 수상자들은 「最低라 해도 태연할수 있는 사람은 最高란 말에도 흥분하지 않는다」는 프랑스의 격언을 명심하기 바란다.

政治·經濟界 발칵 뒤집어논 미모의張여인

假名의 큰 손들을 떨게 하다 만 「實名制」

경제

■대상=實名制

사회정의를 앞세운 명분은 좋았으나 가명의 큰손들을 떨게하다 말았다.

張여인사건을 계기로 私債를 양성화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려 했던 이 정부안은 3천만원이상의 자금은 특별경우외는 출처를 조사받게 해 떳떳치 못한 지하경제의 큰 손들을 꽤 뒤집어 놓고 말겠다는것으로 무려 1조1천억원으로 추정되는 私債의 검은 돈을 겨냥한것이었다.

이 발표로 한때 은행예금이 빠져나가고 증권시장이 위축되고 사채시장의 어음거래가 끊겼으며 금값이 오르고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나기도 했는데 큰손의 주인공들은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이 정책은 국세청의 완전 컴퓨터작업화등의 현실적인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데다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는 여론에 따라 진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국회에서 「86년이후」로 후퇴해버렸다.

■유명상=張玲子

남편 李哲熙씨등 돈많은 배경을 가진 38세의 미모여인. 그는 재벌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수완으로 82년도 우리나라 경제계에 가장 큰 충격을 안겨다 준 인물이다.

◇가명의 큰 손들을 떨게 하다만 實名制의 공청회.

유명 은행장들을 떡주무르듯 요리하고 7천억원이란 자금을 굴리면서 82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혜성이었다고나 할까.

겁없는 배짱들에 쇠고랑을 찬 그는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판과정에서도 나름대로의 경제이론을 펴는 배짱을 보이는등 숱한 화제를 남겼다.

日新製鋼·共榮土建 그리고 두 은행장을 쓰러뜨린 외에도 장관이 두차례나 바뀌는 정치적 시련, 實名制파동을 낳는 역할까지 해 이 유명상도 모자라는 느낌이다.

◇정치적 시련과 實名制파동까지 유발시킨 張玲子여인.

■노력상=開浦洞 福부인

지난 봄부터 회복조짐을 보이던 아파트경기가 7·3조치와 實名制가 발표되면서 재개발지 開浦洞·果川등을 중센으로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마침내 지난 가을에는 반짝경기가 일어나 福부인들은 모처럼 활개를 쳤다.

開浦洞등의 아파트투기붐은 새로 분양된 住公아파트가 평이 좋은데도 다른 곳에 비해 싸다는 이점에서 비롯된 것이나 모처럼 등장한 福부인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과열화현상을 보였다. 왕년의 전성기처럼 1천여명의 복부인들이 합세한 이들은 폴라로이드카메라등의 장비까지 갖추고 새아파트분양권을 사고 팔거나 주택은행예금통장을 사고 파는 전매행위로 돈을 벌면서 프리미엄을 3천만원까지 끌어 올린 노력이 가상해 노력상을 수여한다.

◇福부인들이 모처럼 눈부신 활약상을 벌인 開浦洞.

■행운상=해당자 없음
■장려상=해당자 없음

국제

■대상=갈티에리

아르헨티나는 英國과 1백50년간이나 영유권분쟁을 벌여온, 양치기섬인 포클랜드를 지난 4월 강점했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던 갈티에리는 무진장한 석유자원을 선점하고 또 반정부데모대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보겠다는 도박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나 힘부족으로 지고 패전의 책임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내놔야 했다.

이 전쟁은 불과 3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쌍방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 준데다 고도로 발달된 미사일의 위력을 실감케 해 현대전의 잔혹함을 세계인에게 재인식케 해 준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갈티에리는 당연히 최저 대상수상자다.

■유명상=딜로런

전 미국제너럴·모터스 부사장이며 英國북아일랜드의 스포츠카회사 사장인 그는 세계적인 불경기로 파산에 이르자 엉뚱한 마약밀매로 재기하려다 쇠고랑을 차 미국과 영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훤칠한 체격에 만능운동선수였고 라켈·웰치와 캔디스·버겐등과 염문도 뿌린바 있는 그는 한때 미국최대 자동차회사인 GM社의 사장으로 오르기도 한 입지전적이고 성공한 실업가의 상징이었는데 57세에 허망하게 무너져 미국민들의 꿈을 깨뜨렸다.

■노력상=바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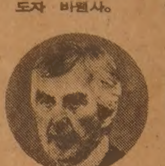
한 전기기술자로 출발, 폴란드국민의 성원을 받으며 共産黨최고지도자와 맞상대를 하면서 미·소양국의 줄다리기외교에 영향을 미친, 세계적인 인물이었던 그는 지난해는 줄곧 연금상태에서 꼼짝을 못했다.

그동안 폴란드국민들에게 민주의지를 일깨워준 자유노조 지도자였으나 지난 10월 폴란드의회가 자유노조를 공식적으로 불법화해 해체시킨후에 석방되어 설자리를 잃은 꼴이 됐다.

노력의 결과치고는 너무 허망하다고나 할까. 3천6백만 폴란드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민주화의 싹이 잘리고 있는 위기속에서 이제 그가 할수있는 역할은 어떤것일까.

◇올 한해 동안 연금생활을 한 폴란드 자유노조지도자 바웬사.

◇팔레스타인 난민학살 책임으로 궁지에 몰린 베긴 이스라엘수상.


◇마약밀매를한 前 GM社 부사장 딜로런.

◇포르노영화배우와의 스캔들을 일으킨 영국 앤드루왕자.

送年특집 82년 話題를 뿌린 最低賞의 主役들

■행운상=베긴

시오니스트운동으로 시베리아수용소에서 복역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反英게릴라사령관을 하다가 수상이 된 그는 팔레스타인의 난민 1천8백명을 무차별 학살한 책임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지난 78년에는 이집트의 사다트와 함께 中東평화이룩에 공이 크다고 해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었지만 이제 「세기의 대학살」 방조혐의자로 국내외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문위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용케 수상직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서 행운상을 수여한다.

■장려상=앤드루왕자

英國왕실의 두번째 왕위계승권자인 그는 이제 22살의 나이임에도 지난 가을 美國의 포르노영화배우와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여 심상치않은 화제를 남겼다.

「랜디 앤디」라는 별명도 가진 그는 어렸을때는 왕실의 개구장이였고 좀 커서는 익살꾸러기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유럽의 유명규수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플레이보이였는데 헬리콥터조종사로 포클랜드전쟁에 참가, 여러차례 겪은 생사의 기로에서 그 나름대로 터득한 어떤 인생철학때문이었던지 연상의 캐머런·스타크(25·별명 쿠)와 비밀리에 카리브해의 무스타크섬에 갔다가 보도진에 쫓겨 도망쳐 나오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세계인에게 가공스런 미사일전의 위력을 과시한 포클랜드전쟁.

베긴, 「世紀의 大虐殺」 방조 혐의속 首相職

파리 한마리 잡아주려다 禍부른 宜寧사건

사회

■대상=咸安의 바둑이

생후 10개월된 셰퍼드잡종 바둑이가 옛주인인 6살짜리 소년을 저수지서 구해냈다는 보도가 오보로 밝혀지자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탈색된 현대인의 휴머니티를 일깨워준 바둑이의 「헌신적인 행동」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소식은 차라리 덮어두고 싶을 정도였다.

이 오보를 놓고 교육자료로 채택하느니, 독지가들이 나와 바둑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던 일, 그리고 日刊紙들이 정정기사를 싣는 해프닝을 벌인것으로 단연 대상감이다.

유명하려다 만 達田마을도 유명상 경합대상이다.

◇禹순경이 주민 50여명을 살해한 의령총기난동사건.

◇사형직전에 안구와 콩팥을 기증한 金堂사건범인 박철웅.

◇朴尙恩양피살사건 범인으로 몰려 1년가까이 구속되었다가 無罪로 풀려난 鄭載巴군.

■유명상=宜寧사건田여인

지난 4월말 경북宜寧에서 총기난동사건을 일으켜 주민 50여명을 무차별 사살하고 30여명에게 중상을 입힌 禹範坤순경의 내연의 처다.

田여인은 사건당일 낮잠을 자는 禹순경의 가슴에 붙은 파리를 잡아주려고 손바닥으로 때려 禹순경을 화나게했고 이것이 그의 난폭성을 부채질해 엄청난 결과를 빚은 꼴이 됐다.

禹순경을 미치광이로 만든 다른 동기는 관내유지와 술친장에 놀러간 궁류지서장등에 있을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역시 직접적인 동기는 파리를 잡으려던 田여인이고 보면 유명상수상자일 수밖에 없다.

■노력상=朴鐵雄

지난 79년 골동품상 金堂 주인부부등 3명을 살해, 암장해 사형선고를 받은 그는 지난 7월 사형집행에 앞서 속죄의 뜻으로 안구와 콩팥을 사회에 기증했다.

몸서리쳐지는 잔인한 살인을 한 사형수였으나 마지막의 죽음을 맞아 참회를 함으로써 산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노력상감이 아닐수 없다.

■행운상=鄭載巴

미모의 여대생 朴尙恩양피살사건의 두번째 혐의자로 몰려 1년 가까이 구속되었다가 풀려나 행운상을 차지했다.

K大 張군을 첫 혐의자로 봤다가 무죄석방시킨 검찰은 鄭군을 진범으로 보고 집요한 추적을 벌였으나 끝내 확증을 찾아내지 못했던것.

이 사건은 尹노파피살사건과 함께 혐의자의 자백의 임의성문제를 사건수사의 큰 문젯점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오보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경남咸安의 바둑이.

■장려상=素女經

한때 문교부가 추천하는 「학생독서지도도서 목록」 속에 들어갔다가 「중국의 성교본」이다. 성교기술까지 적혀 있는 이 고전여성학판을 고교생들이 버젓이 읽을수 있을뻔 했다.

素女經을 통달한 우리 남녀 고교생을 상상만해도 아찔한 지경이다.

실무책임자인 두 장학관의 목만 날린 수준급(?) 해프닝이었지만 덕분에 이책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아져 장려상이다.

◇슈퍼스타없는 슈퍼스타즈 내년시즌의 분발을 기대하며….

싸웠다하면 깨지는 한국축구·프로복싱

마라톤 同時1위 해프닝·슈퍼스타 없는 三美슈퍼스타즈 野球

스포츠

◇한국프로복싱은 금년 한해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렸다.

■대상=한국축구대표팀

82년은 한국스포츠가 각분야에서 혁혁한 전과와 착실한 성장을 기록한 한해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축구대표팀의 활약은 82년을 한국축구 최악의 해로 기록하는데 유감이 없을 정도.

아시안게임에서의 예선탈락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82년 한해 참가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단 한번의 패권도 차지하지 못한 한국대표축구팀의 활약상은 체육부문에 관한한 도저히 경쟁상대가 없는 독보적인 것으로 이에 최저 대상을 수여한다.

◇대표팀 감독 사퇴의사 표명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申東坡. 금년은 그가 더욱 유명해진 한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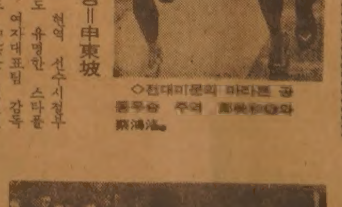
◇전대미문의 마라톤 공동우승 주역 鄭晩和와 蔡鴻洛.

■유명상=申東坡

申東坡는 현역 선수시절부터 너무나도 유명한 스타플레이어였고, 여자대표팀 감독을 맡아서도 中共을 연전연파하는등 대단히 유명한 체육인이었다. 그러한 申씨에게 금년은 대표팀감독직 사퇴건을 놓고 더더욱 유명해진 한해였기에 이에 유명상을 수여한다. 당시의 사태가 申씨만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겠으나 아시안게임에서 中共에 일격을 당함으로해서 최저 유명상의 자격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노력상=鄭晩和·蔡鴻洛

鄭·蔡 두선수는 10월31일 열렸던 孫基禎배 제36회 전국마라톤선수권 대회에서 열심히 보조를 맞춰 나란히 1위로 들어온 진정한 노력형의 마라토너들이다. 한국마라톤의 중흥을 바라는 수많은 눈길속에서 두선수는 같은 학교(建國大)를 다닌다는 의리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나 웬만한 배짱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비록 대회에서는 실격을 당했으나 안면을 몰수한 만큼 처절한 그 노력은 높이 평가, 본지나마 한가지 상을 시상한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금메달의 꿈을 키우던 한국축구대표팀. 예선탈락의 불명예와 함께 전면 해체의 비운까지 겪게 됐다.

■행운상=한국권투위원회

금년한해 한국프로복싱은 그야말로 참담한 현상이었다. 가네히라약물파동, 태국가짜복서사건등으로 연초부터 지리멸렬이었고 세계타이틀도전 6전전패에 유일한 챔피언 金喆鎬마저 타이틀을 잃었다.

뿐만아니라 비극까지 감수해야만 했던 한국프로복싱의 불운이 누구의 탓인가 생각했을 때 어느 개인의 책임으로 볼수 없어 한국권투위원회가 이 상을 받는 행운을 얻었다.

送年특집 82년 話題를 뿌린 最低賞의 主役들

■장려상=三美프로야구팀

三美슈퍼스타즈에 이상을 시상하는 것은 금년최하위의 불명예를 새삼 거론하려는 뜻이 아니라 문자그대로 장려의 의미를 가진다.

三美는 금년시즌 통산 15승65패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하위를 차지했으나 이는 시즌 전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다만 관중동원수가 너무 저조, 공동채산제아래 타팀에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되고 있음은 깊이 반성해야될 것이다. 내년 시즌의 분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장려상을 수여한다.

연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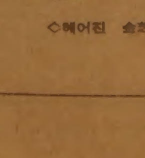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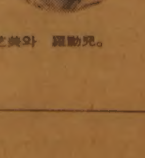
■대상=金芝美·羅勳兒

만인의 사랑을 받던 톱스타·톱가수의 결합이라 다소의 역풍도 없진 않았으나, 이들을 감내해준(?) 팬들을 헌신짝 버리듯 차버리고 결별한 둘의 용감성에 감히 최저 대상을 수여해야 할듯.

연상의 여배우 김지미와 정상을 달리던 가수 나훈아가 뜨거운 사이로 변해진것이 6년전.

그때 이후 둘은 「여보」 「당신」으로 어지간히 뜨겁게 타오르더니만, 급기야는 「방정스런 예측」이 들어맞는 꼴이 됐으니 안타깝기만.

당초 두 사람의 동거를 건전하게 본 사람이 많지 않았던것은 결혼신고도 없는 장기 동거자체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 원컨대 두분, 이같은 대상일랑 남보기도 민망하니 다시 안타도록 유의해 주는게 어떤지….



◇헤어진 金芝美와 羅勳兒.

■행운상=元美京

22살의 여자가 겪을 수있는 온갖 불운을 한해에 겪으면서도 시청자의 사랑을 잃지 않은 그의 운을 높이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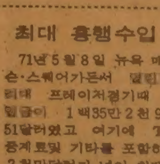
전대미문한 7남자와의 스캔들로 방송가를 발칵 뒤집고 다시 영화판에서 「꾸장이발언」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바다건너 미국에서 건너온 한 신부의 온정어린 위로의 편지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팬들의 사랑을 말하는게 아닐까.

■장려상=秘密요정M마담

지난6월 텔런트요정출입스캔들의 배후주역으로 매스컴의 매서운 철퇴를 맞았다.

일부매스컴에선 사회의 공기인 브라운관의 주역들을 타락시켜 결국 대중문화까지 오염시킨다는 비난을 퍼부었지만 일부에선 「부의 재분배」니 「필요악」이니 농으로 텔런트요정출입의 타당성을 역설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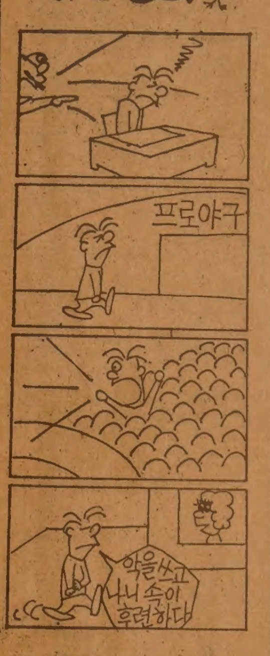
어쨌든 여느 여자라면 열번도 더 벌어졌을 치욕을 맞고도 굴하는 기색이 안보인다는 M마담에게 장려상으로 제며의 박수를 보낸다.


◇스캔들로 입방아 대상이 되었던 元美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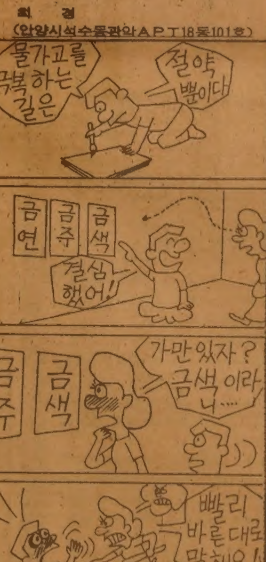
◇관중도 없고 볼은 오지않고…
미 련 (중구충무로1가23—1)

◇정확한 심판
조기영 (동대문구 면목1동91의31호)

독자만화



최 경
(안양시석수동관악APT18동101호)



珍기록

최대 흥행수입

71년5월8일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서 열린 알리대 프레이저경기때 수입금이 1백35만2천9백51달러였고 여기에 TV중계료및 기타를 포함하면 2천만달러가 넘어 최대흥행수입을 기록했다.

교포여러분께 새해인사 드립니다.

새해에도 성실하게 여러분을 만족스럽게
모실 것을 재삼 다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조흥은행

THE CHO-HEUNG BANK, LTD.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번지

☎ : 725－7451(대)

토론토사무소

Suite 1125 Commerce Court North

Toronto Ontario M5L1B9

(416)363－3448/9

밝은 새해를 맞아 존당의 만복과
하시는일 번창하시기를 비오며
삼가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뉴-서울

529 BLOOR ST. WEST
TORONTO, ONT.

예약전화 533-1500

賀 正

새해를 맞아 삼가존당의 만복을 비나이다.

회망의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온타리오 전역의 실협회원 여러분과 교포 여러분에게 삼가 세배 올립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 「실업인협회」가 성장을 할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십시다.

여러분의 한가정, 한가정위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아침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집행부

회장	차선겸
부회장	조기연
총무	김풍수
재무	정상우
기획조사실장	여문석
협동조합추진부장	심태섭
섭외및 봉사부장	이홍규
홍보부장	이정구
사업제1,3부장	강경하
사업제 2 부장	최봉식
사업제 4 부장	김남원
상담실장겸 사무장	강공선
사무원	서선미
사무원	이명신

자문위원

김정곤
김영대
이형인
이근우

이사회

이사장	김태진
부이사장	백경락
총무이사	이춘수
서기이사	이학현
회장	차선겸
부회장	조기연
해밀톤지구	조용구
오샤와지구	남동희

강기원	송재규	최호영
강준남	우희두	한천석
강창흘	원종필	한덕상
고정배	유영갑	현영일
김판영	유영갑	홍사렴
김영정	이동환	
김용규	이상철	
김회삼	이진효	
나상선	이형택	
박경택	이 휘	
박광철	임승철	
박남희	임철원	
박찬도	장가진	
박천봉	장추국	
서동준	전기석	
서정길	조한권	
서준경	최복기	
송기선	최상수	
송완일	최장복	

해밀톤지구 실업인협회

회장	조용구
부회장	장홍규
부회장	정 덕
총무	권택규
이사장	김철희
부이사장	유기훈

오샤와지구 실업인협회

회장	남동희
부회장	이일석
총무	박문흥
이사장	구연원

배리지구 실업인협회

회장	김근철
총무	오상길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 협회